금주의 법구-〈시가라위경〉
우리의 목숨은 무상하고
인생은 잠깐이다.
부지런히 닦아 불멸의 곳으로 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2월 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29호 2017년 1월 1일 일요일



정유(丁酉)년 새해, 원효의 이름을 새기며… 아침을 잉태한 새벽은 불법(佛法)을 품은 시간이다. 어둠과 밝음, 시작과 끝, 생과 멸을 하나로 품었다. 오늘 아침 역시 그 새벽을 지나 우리 곁에 왔다. 가르침으로 받아야 할 시간이다. 원효 스님이 개산한 것으로 전해진 여주 신륵사 마당 끝으로 적정의 시간을 지나온 새해 첫 햇살이 다가온다. 올해는 원효 스님이 이 땅에 오신지 1400년이 된다. 원효(元曉)는 '불교를 처음 빛나게 했다'는 뜻이며, 당시에는 스님을 '새벽(始旦)'이라 불렀다. 우리에게 새벽인 스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면 올 한 해는 분명 값진 해가 될 것이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버마어'로 피어난 법정 스님 동화책

(사)맑고향기롭게, 〈슬기로운 동화나라〉 등 2천권
미얀마 현지 도서관 · 교육기관 등 450곳 무료배포



故법정 스님이 2003년 펴낸 동화책 〈슬기로운 동화나라〉가 버마어로 번역돼 미얀마 아이들에게 전해졌다.

시민모임 (사)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일)는 버마 어린이 · 청소년 지원단체인 따비에(버마대표 마웅저 · 한국대표 정보임)와 함께 최근 한국동화책을 버마어로 번역 · 출간해 미얀마에 무료 배포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법정 스님의 동화책 〈슬기로운 동화나라〉1~3권 중 미얀마 어린이와 공유할 수 있는 5개 이야기 △자비로운 노스님 △어리석은 부자 △지혜주머니 이야기 △머리가 두 개 달린 새 △노인을 버리는 나라를 묶은 것과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로 각 1000권씩 미얀마 현지 도서관 및 교육기관(국립 및 마을도서관 · 에이즈센터 · 한센병센터 · 학교 등) 450곳에 전달된다.

버마어 번역출판사업은 (사)맑고향기롭게가 길상사 경내서 환경운동으로 펼치는 '녹색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진행한 데 의의가 있다. 또 '무소유'를 강조한 법정 스님의 동화책이 출판의 자유가 제한된 미얀마 어린이들에게 전해져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마웅저 따비에 버마대표와 카이몬 사무국장이 번역작업을 시작해 9월 초 인쇄 및 제본작업을 완료했다. 10월부터 도서관을 비롯한 각 기관에 무료 배포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80%가량 보급됐다. 〈슬기로운 동화나라〉 잔여분은 1월 중 분쟁지역 및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에 있는 어린이 교육기관에 전달되며, 현재 번역작업이 끝난 〈어린왕자〉도 함께 배포된다.

(사)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일 스님은 "모임이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얻은 순수 수익금을 모아 버마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말로써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법정 스님의 뜻을 기리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번역된 책이 버마 어린이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도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따비에'는 미얀마에서 평화와 행복, 안녕을 상징하는 나무 이름이다. 현지서는 이 나뭇잎을 '따비에 꽃'이라 부르며, 각종 행사서 따비에 나뭇가지를 잡고 기원을 올린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원효 · 결사 · 백일법문 불교 지평 넓힐 키워드

키워드로 본 2017 한국불교

정유년(丁酉年) 새해는 불교계에 여러 의미가 있는 해이다. 화쟁국사로 숭앙받는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이자 현재 한국불교의 기틀을 만든 봉암사 결사 70주년을 맞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종교지도자인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을 설한지 꼭 반세기를 맞는다.

원효 스님 탄신 1400년

가장 눈길이 가는 기념행사는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한 · 중 · 일 3개국을 순환하며 원효 스님의 저술과 사상을 살펴보는 대규모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먼저, 3월 23~24일 중국 인민대학서 '원효와 동아시아불교'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시작하며, 5월 19~20일에는 동국대 주최로 14명의 세계 학자가 참여하는 '21세기 원효학의 의미와 전망-원효 찬술 문헌의 계보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24일 열리는 동국대 HK연구단, 가나자와문고 공동 세미나는 원효 스님을 일본에 알리기 위한 공동 전시를 기념하는 행사다. 두 단체가 여는 공동 전시는 일본 소재 한국불교 사본 전시하는 기획으로 꾸며진다. '원효와 신라 · 고려 불교'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6월 23일~8월 17일 일본 가나가와현 현립 가나자와문고에서 진행한다.

동국대 HK연구단 주최 3~6월
韓中日 3국 학자 '원효'로 만나
한국불교학회, 원효 논문 공모
성철 스님 백일법문 50주년 맞아
'중도 사상' 주제 포럼 출범 계획

이 같이 '원효 스님'을 주제로 한 · 중 · 일 3국을 순환하는 대형 학술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효 스님에 대한 학술적 논의 범위를 동아시아로 확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종욱 동국대 HK연구단장은 "원효 스님 관련 저작과 문헌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이에 대한 연구를 점검하는 것은 동아시아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각의 원효 스님 관련 논문을 공모 중이다. 논문 선정은 3월 31일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4월 중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상 논문들이 발표된다.

한국불교학회 법인 이사 종호 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은 구랍 12월 19일 열린 학회 동계 워크숍에서 1년 사업 계획을 밝히며 "논문 공모는 그간 원효 스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해가 담긴 연구 논문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모 취지를 설명했다.

봉암사 결사 70년 · 백일법문 50년

근현대 선지식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불교 기틀을 만들었던 봉암사 결사 70주년을 맞아서는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와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올해 하반기 봉암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계종단 차원의 기념행사는 현재까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철 스님이 1967년 동안거에 설한 백일법문 50주년을 맞아서는 새로운 형태의 포럼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인재원은 백일법문 상시 강좌와 더불어 성철 스님의 강조한 '중도 사상'을 세상에 알리고 구현하기 위해 '백일법문 중도 포럼(가칭)'을 출범할 예정이다.

'백일법문 중도 포럼'은 한국 사회에 산재한 갈등을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중도'로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이사는 "올해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도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도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직면한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한 중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포럼의 성격이 강하다"며 "재가불자들을 중심으로 전문 역량을 모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2017년 신년특집호 – 52면 발행

A 특집 · 종교 간 대화– 법현 스님 · 바르트 교수 5
특집 · 각 종단 신년 법어 8·9·10
특집 · 이젠 생활밀착형 불교 12·13·14
특집 · 지상법석–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16·17

B 특집 · 결사, 한국불교 변화의 원력 1·2·3·5
특집 · 원효를 말하다 8
특집 · 불교와 닭 15
특집 · 신임 신행단체장의 새해 다짐 19

자비광명이 충만한 복된 새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조계종, 朴대통령 뇌물죄로 특검 고발

서초동 특검팀에 고발장 제출… GBC인허가 혜택 관련

봉은사 수행 환경 훼손 및
서울시 인허가 중단도 촉구

조계종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특검에 고발했다. 서울 삼성동 현대차 그룹 신사옥 건립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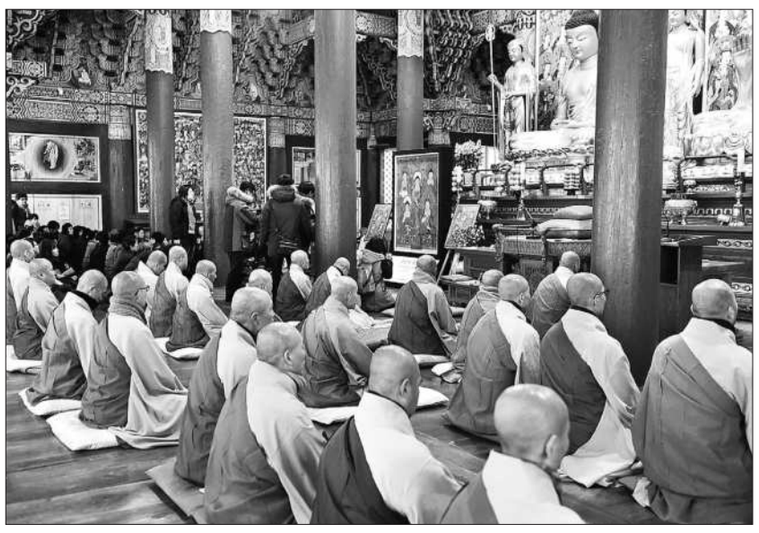
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 · 원명, 이하 대책위)는 구랍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연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정몽구 회장을 뇌물공여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대차가 2014년 신사옥 부지를 마련을 위한 한전부지 매입 절차에서 정부가 세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8000억원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출연금 납부 시기 전후로 조기 착공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인허가 과정도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정 회장이 2015년 7월 단독 면담한 이후 현대차 그룹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 기부,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체결로 총 200억원을 제공했다"며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책위는 특검팀에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과 신사옥 건설 특혜 의혹에 대해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전통문화를 수호하는 봉은사의 수행환경, 역사문화가 훼손될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건축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를 통해 역사를 바로잡고 전통문화를 수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송광사 오불도 40년 만에 봉안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진화)는 구랍 29일 대웅전에서 오불도 봉안식을 개최했다. 오십삼불도는 칠불도 1폭, 구불도 2폭, 십사불도 2폭, 오불도 2폭 등 7폭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오불도 2폭이 도난 당했다. 이번에 귀환한 오불도는 불조전 왼쪽 출입문 벽에 걸려 있던 그림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 5주기 다례 1월 6일

봉암사 결사에도 참여… 문도회 "수행정신 기릴 것"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학승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가산당 지관 스님의 열반 5주기 추모다례재가 1월 6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다.

대적광전에서 열리는 추모다례재는 지관 스님을 기리는 헌다의식과 인사말, 추모사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지관 스님은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3년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하고 1976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스님은 1947년 성철 · 청담 · 보문 · 우봉 스님 등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에 은사 자운 스님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스님은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총장, 해인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2012년 1월 2일 세랍 80세로 입적했다. 문도회장 세납 스님은 "지관 스님의 수행정신과 덕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추모다례재에 많은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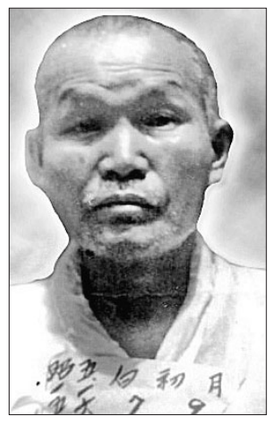
독립영웅 백초월 스님 일대기, 웹툰으로

은평구, 구랍 23일 '백초월 스님 웹툰' 제작발표회

"베일 가려진 애국활동 선양"
붕붕아트 채광석 작가 제작 맡아
5월 제작 시작 광복절 전후 연재
진관사, "청소년 귀감 되길" 환영



은평구는 구랍 23일 은평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서 '백초월 스님 웹툰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백초월 스님

숨겨진 독립영웅, 백초월 스님 일대기가 웹툰(webtoon)으로 제작된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독립운동 활약상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백초월 스님을 선양키 위해 웹툰을 제작키로 하고, 구랍 23일 은평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서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백초월 스님(1878~1944 · 사진)은 1919년 중앙학림(1915년 11월 개교한 불교계 고등교육기관)에 민단본부를 설립하고 진관사 법회를 통해 군자금을 모금했을 뿐 아니라 제2의 3.1운동 추진, 〈혁신공보(革新公報)〉 제작, 의용승군 조직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다. 특히 진관사 마포포교당을 중심으로 항일 비밀결사체 '일심교'를 창설하며 본격 항일운동에 나섰지만 1944년 독립운동 군자금 사건으로 붙잡혀 청주교도서에서 옥중 순국했다.

이처럼 백초월 스님은 백용성 · 한용운 스님과 함께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공적을 세웠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진관사 칠성각 보수 과정 중 태극기가 발견돼 재조명 받기 시작, 2014년 6월 국가보훈처는 백초월 스님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은평구는 △백초월 스님 추모재 △학술세미나 △진관사 태극기 도로 가로기 게양 등 전개하며 백초월 스님의 애국정신을 선양해왔다.

이번 웹툰 제작도 연장선상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근래에 영화 '암살', '밀정' 등 흥행으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다. 백초월 스님은 두 영화의 등장인물처럼 활약을 펼쳤지만, 그에 비해 삶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며 "이번 웹툰 제작으로 백초월 스님의 애국활동과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웹툰 제작은 (주)붕붕아트의 채광석 작가가 맡았다. 채 작가는 "진관사와 '의친왕 망명 사건' 주무대인 수색역 등 은평구 관할지역이 웹툰의 주 무대가 될 것이다. 독립운동에 지도자급 승려 신분으로 참여한 백초월 스님의 숨겨진 이야기를 극적이고 감동적인 드라마로 재구성할 것"이라며 "대중성과 교훈성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소식에 백초월 스님이 주석했던 진관사(주지 계호)는 환영을 표했다. 계호 스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게 생각한다. 웹툰을 계기로 시민들의 민족관 및 역사관이 재정립되길 바란다"며 "독립운동 개념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백초월 스님 웹툰은 올해 5월부터 제작에 착수, 광복절 전후를 기점으로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무료 연재된다. 이후 웹툰을 바탕으로 연극 · 뮤지컬 ·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새해부터 스스로 수행점검을…"

조계종 포교원 일일 수행점검 책자 발간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들의 자기신행점검을 위한 수행점검표를 발간, 산하 신도단체 및 사찰에 배부해 원활한 신행을 장려한다.

포교원(원장 지홍)은 구랍 27일 서울 종로 더뷔페서 열린 '2016 신도단체 송년의 밤' 행사에서 최근 제작한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점검표〉 발간을 알렸다. 수행점검표는 불자들이 기복행위를 벗어나 일과수행법을 제대로 알고, 신행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안내서로 활용된다.

수행점검표는 스스로 수행하며 점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각자 수행기간을 30일, 60일, 100일 등으로 정한 뒤 재적사찰서 입재한다. 이후 자신의 수행장소에서 기도 · 염불 · 독경 · 참선 · 애어 · 보시 등 수행법과 덕목을 적고 실천한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최근 통계서



조계종 포교원 산하 신도단체 회원들이 수행점검표를 들고 주체적인 불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하고 있다.

불자인구가 300만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기복에 기반한 구시대적인 신행형식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자기 종교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고, 또 알려주지도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고 복만 비는 기초적인 종교 접근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개인 중심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과 사회로 회향하는 자리이타를 추구하는 신행으로 변해야 한다. 수행점검표를 잘 활용해 탈종교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받는 불교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수행점검표는 △수행의미 △수행공덕 △수행덕목 △수행점검표 △예불 및 발원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포교원과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각 신도단체장들은 행사에서 수행점검표 사용법을 배우고, 함께 발간 퍼포먼스를 하며 주체적인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새누리당, 종교인 정치 이용 말라"

조계종 비판 논평 발표

조계종이 구랍 23일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에 인명진 목사가 지명된 것에 대해 비판논평을 발표했다. 인 목사의 업적과 별개로 종교인을 정당에 끌어들여 정치적 위기 모면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정치와 종교 양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계종은 논평을 통해 "정당의 역할은 민의를 받들어 국론을 통합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에서 기인한 오늘의 국가적 위기는 민심을 바로보지 못하고 당리당략에서 편벽된 어리석음에서 비롯됐다. 특정 종교 성직자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계종은 이어 "어느때보다 국민들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균형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국가시스템 회복을 여망하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 이사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정부원장 석화담 승정 석혜암
원로원장 석법령 원로부원장 석대원 원로 석일우 석지관 석일두 석무송

총무원장 석도선 부 원 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호법부장 석성보 감찰부장 석성도 조사부장 석담원 사정부장 석도운
규정부장 석운담 교육부장 석정허 재무부장 석노담 사회부장 석청암 교무부장 석보현
의전부장 석성담 문화부장 석성원 홍보부장 석동운 사업부장 석만허 조직부장 석원호
포교부장 석도명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혜성 포교국장 석성우 봉사국장 석성호
사회국장 석원각 수행국장 석보각 사서국장 석성덕

비구니회회장 석혜담 부회장 석효성 부장 석용정 국장 석지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영덕중앙종무원장 석지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김천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종무원장 석현공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덕진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인천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풍기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울산중앙종무원장 석법운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 종단법인 운영이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선화. 성덕. 남산. 청강.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수.
학산. 법광. 혜림. 자운. 혜화. 심공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도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심)
총 무 대각심(김경숙)
임 원 혜명심(박현숙)
임 원 원명화(윤영아)

■ 종립예술원
원 장 묘 각(이재인)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국 장 불심화(정형숙)

■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혜 충북부장 상학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대전부장 정민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보인 경기부장 덕산 종무국장 혜명
경북원장 성인 전남부장 혜명 국제국장 혜월
포항원장 명성 재무부장 자운 부산국장 혜성
청도국장 지천
포교국장 청운
포항국장 혜림
구미국장 혜진
화순국장 보정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 ‘민족 스승’ 이라며 동상 세울 땐 언제고…”

지자체 책임회피로 공원에 방치된 효창공원 원효 동상

원효대사 탄신 1400년을 맞아 재조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원효대사 동상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5월 불교계는 서울 효창공원의 원효대사 동상이 무관심 속에 심각한 훼손 상태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문제의 원효대사 동상은 관리주체조차 모호한 상태였다.

건립단체 해체 후 방치

훼손 논란이 일었던 효창공원 원효대사 동상은 1969년 박정희 정부 산하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종필)에서 건립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을 비롯해 유관순 열사 동상, 김유신 동상 등을 만든 이 단체는 70년대 초 해체됐다.

2011년 5월 불교계 언론의 보도 당시 효창공원 원효대사 동상은 녹이 슬고 새들의 분비물로 덮여 있는 등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용산구청과 서울시 측이 서로 관리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회피했고, 그 사이 동상은 흉물스럽게 방치됐다. 불교계 안팎에 “동상을 보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대한항공’ 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나서 5000만원의 보수비를 지원해 세척부터 녹 제거, 도색 및 코팅 등을 진행했다.

지자체 책임 미루기 행태 ‘여전’

그로부터 약 5년 7개월의 세월이 지난 구랍 26일, 다시 찾은 효창공원 원효대사 동상 주변은 비둘기 등의 분비물로 지저분했다. 동상 훼손이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 책임이 없다는 두 지자체의 입장은 여전했다.

박정희 정권서 세운 동상
지자체 ‘관리 나몰라’ 무관심
보수 책임공방 6년째 그대로
“2011년 사태 재발 가능” 우려

동상 관리에 대한 잇따른 지적이 나오자 2010년 ‘서울특별시 동상 · 기념비 ·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는 자신들의 책임이 시유지에 국한된다고 발뺌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 공공용지 내 동상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연 1회 상태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건립주체 해체 시에는 해당 기관장이 이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효장공원 원효대사 동상은 2011년 방치 논란 끝에 민간기업이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그후 6년여 동안 관리주체조차 없는 상태다. 사진 원 안은 새들의 분비물로 더럽혀진 부분.

서울시 내 동상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관계자는 “이 조례 1조에는 대상의 위치를 ‘서울시 공유재산인 공공용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시유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효창공원은 국유지”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용산구청이 현재 효창공원을 관리하고 있어 동상까지 관리하는 것이 맞다. 동상 현황파악 등 실무도 구청 측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운동가 및 민족선열 유해를 안장한 효창공원은 2013년 국립묘지 격상이 논의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근린공원으로 남아 용산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동상은 서울시 관할이라고 다시 책임을 떠넘겼다. 이 관계자는 “구청은 공원을 위탁관리할 뿐이고, 민간이 공원에 세운 동상 보존에 대한 책임은 시에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청이 원효 스님 동상 관리에 책정한 지난해 예산은 전무한 상황. 용산구청의 관리는 동상 청소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9월 원효 스님 동상과 같은 조형물을 둔 책임공방이 이어지자 이를 해소하고자 각 구청에 ‘공공조형물 관리 개선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지만, 용산구청을 비롯한 일부 구청은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청동 부식, 책임공방 재발 가능성

이 같은 상황에서 청동주조 전문가들은 주조물 특성상 10년 간격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011년에 발생한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종일 천종사 대표는 “2011년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보수의사를 밝혔지만 시와 구청이 서로 책임을 미뤄 무산됐다. 결국 여론이 안 좋아지자 부랴부랴 동상을 수리했다”며 “청동은 잘 관리하면 2~30년 이상 문제가 없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10년 내로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효창공원 원효 스님 동상 앞에서 매년 다례재를 열고 있는 원효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스님은 “신도들이 매주 청소는 하고 있지만 근본해결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에서 민족의 큰스승이라며 동상을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지자체간 책임문제가 지속되면 새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예산을 신청하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새해에 만나는 보우국사 명상여행

중흥사, 1~3월 템플스테이

‘역사해설 템플스테이’ ‘숲해설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호평을 받은 고양 중흥사가 새해부터 ‘태고보우국사’를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를 연다.

중흥사(주지 지홍)는 1~3월 첫째 · 넷째 주 토요일에 특별템플스테이 ‘태고보우국사와 함께하는 명상여행’을 실시한다.

태고보우국사(1301~1382)는 1341년부터 1346년까지 중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이 기간에 현 태고사 자리에 암자(태고암)를 짓고 기거하면서 장편선시 ‘태고암가(太古庵歌)’를 창작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신앙이 아닌 중흥사에 담긴 역사를 주제로 한다. 오전 태고보우국사의 부도와 부도비를 답사하고 거북바위서 좌선을 체험한다. 또 날씨가 추울 경우에는 태고사 답사 대신 중흥사에서 태고보우국사가 쓴 수행에 관한 글과 시 등을 읽으며 국사의 생애를 살펴본다.

태고보우국사 명상여행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또는 중흥사 홈페이지(www.jh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02)355-4488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진통 끝 ‘사실상 무산’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구랍 28일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 변경안을 부결했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으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땐 문화재위원회 허가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며 설치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의 이날 결정으로 사업이 어렵게 됐다. 추후 양양군이 사업계획을 전면 보완해 다시 신청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계종 환경위원회 ·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계시민사회단체들은 반색을 표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쪽방도우미회, “춥지만 외롭지 않아요”

本紙 보도 후 도원사 만오 스님
쪽방촌 사연에 1,000만원 후원

송구영신(送舊迎新). 그러나 영등포 쪽방촌을 지키는 자비보살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더욱 무겁다. 쪽방 문 앞마다 연탄을 켜켜이 쌓아두고,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내의 한 벌을 안겨드리고도 시름이 좀처럼 덜어지질 않는다.

하지만 쪽방촌도우미봉사회(이하 쪽방도우미회)의 이번 겨울은 마냥 쓸쓸하지만은 않다. 세상 곳곳서 전해지는 자비의 손길들 때문이다. 한 주 한 주 근근이 봉사하는 이들이 매주 목요일 어김없이 쪽방주민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내는 것을 보면, 한 가닥 광명의 빛줄기가 이들을 보듬는 것이 틀림없다.

2017년 새해를 앞두고 본지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본지가 쪽방도우미회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한 후 후원자들이 나타났다. **〈11월 9일 제1121호 참조〉**


그림 · 강병호

그 중에서도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은 쪽방도우미회에 직접 1,000만원을 후원해 다시 한 번 보시행을 펼쳤다. 만오 스님은 지난해 9월 불교계 국제구호 NGO 지구촌공생회에 2억6,000만원을 후원하고, 굿네이버스에 2억을 기탁해 귀감이 된 바 있다.

박부득 쪽방도우미회 팀장은 “후원품을 마련하느라 발을 동동 굴렀는데 올해는 만오 스님 덕분에 따뜻한 연말을 보냈다”며 “만오 스님의 후원금으로 동지 때 팥죽을 나눠줄 수 있었다. 남은 금액으로는 쪽방 어르신들을 위한 내의를 구입할 것”이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만오 스님은 “쪽방도우미회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장한 일을 하고 계신다. 힘들더라도 큰 행복 느끼시길 바란다”며 “2017년에는 쪽방 주민들도 더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길이 생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밖에 현물 보시도 이어졌다. 박 팀장은 “현대불교신문 보도 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도 쌀 50포대를, 지방 사찰서도 국수 1박스 등을 보내주셨다. 십시일반 도움들이 엄청난 힘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사)쪽방촌도우미봉사회는 영등포 쪽방촌서 18년 간 매주 목요일마다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현재 언제 헐릴지 모르는 가건물서 도시락을 만들며 어렵게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후원계좌=국민은행 384737-04-004793
예금주=(사)쪽방촌도우미봉사회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국박(國博) 소장 불교조각 보고서 발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최근 2013년부터 실시한 금동불상 조사사업의 결과가 담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보고 2〉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금동아미타삼존불상과 금동관음보살좌상 1구 등 4점의 사진, 3D 스캔 사진과 실측도면, 복장물의 기초 자료, 성분 분석 결과 등이 수록됐다.

보고서에 수록된 금동아미타불좌상, 금동관음보살입상, 금동대세지보살입상은 서로 양식적으로 유사하고 인상이 비슷해 그동안 일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세 점이 같은 공방에서 일괄로 조성된 삼존상임이 확인됐다.

보살상의 복장물을 조사한 결과 삼존불의 제작과 복장물 납입은 1333년에 이루어졌으며, 불상 제작의 주요 발원자는 장현(張鉉)과 처 선씨(宣氏)이고 복장물 납입에는 김진(金晉), 이겸(李謙) 등 고위 관료를 포함한 수백 명이었다. 노덕현 기자



謹賀新年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 대 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제2대 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광영 교정원장 성광
감찰원장 일도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 총본산 주지 정대 제주제2본산 주지 성수
부산분원 주지 보문 대전분원 주지 범행
고성분원 주지 일행 서울분원 주지 지원
대구분원 주지 일성 일본분원 주지 성도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 ☎ 02-453-5953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일본분원 일본국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6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 ☎ 042-525-5325

일 주 문



49기 출가학교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경내서 일반남녀 50명을 대상으로 49기 출가학교를 운영한다.



파라미타 정기총회

심산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은 1월 20일 오후 5시 서울 르메이에르 종로타워 5층 마루홀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수요 마음 쉼 명상교실

탄웅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1월 11일부터 8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경내서 '수요 마음 쉼 명상교실'을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후원금 전달

자명 영덕 기원정사 주지 스님은 구랍 27일 영덕군청을 방문해 관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후원금 320만원을 기탁했다.



교수불자회장 연임

심익섭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구랍 27일 열린 정기총회서 16대에 이어 17대 회장에 추대됐다.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년간.



공불련 임원연수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2월 11~12일 장성 백양사서 '2017(정유년) 신년법회 및 임원연수'를 봉행한다.

"성철 스님 일화로 배운 불교"

백련재단, 〈성철 스님~〉 독후감대회
전국서 70작품 접수, 대상 박경주 양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로 주최한 전국 청소년 독후감대회서 박경주 양이 대상을 수상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이 주최하고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가 주관한 '전국 청소년 독후감대회 시상식이 구랍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서 70여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결과 박경주(홈스쿨링) 양이 대상인 동국대총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경화(정광고) · 구민주(동대부여고) 학생이 각각 특별상과 최우수상에 선정됐으며, 박소현(안곡고) 외 8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성민 기자**

"법공양은 최고의 선근회향"

Interview

前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



30년 이어진 법보시 인연
〈화엄경〉 1만권 회향 발원
"저작권 무관, 맘껏 배우길"

"100년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의 티끌이요, 하루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입니다. 법으로 닦은 단 하루의 마음이 천년 동안 중생의 복덕을 쌓게 합니다. 그 일의 시작이 법공양입니다. 이 중요한 일에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하길 바랍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善因善果 惡因惡果)인데 법공양의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구랍 22일 前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사진〉은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서 〈대방광불화엄경〉 81권 가운데 정행품과 현수품이 담긴 강설집 제14권 3000권을 법보시했다. 이후 28일 범어사 염화실에서 만난 무비 스님은 "법공양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맑게 하는 운동이기에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이었다. 스님은 법공양 운동을 전폭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부처님 말씀을 담은 자신의 책에는 저작권이란 말을 빼도 된다고 강조했다.

"화엄경에는 보시 바라밀을 강조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화엄경을 공부할수록 법공양에 대한 결심이 확고해집니다. 오래 전부터 해온 법공양 운동을 더욱 펼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제 책과 자료를 복사해도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무비 스님의 법공양 운동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범어사에서 처음 법공양을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A4 용지에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말씀을 적어 나눠주기도 하고, 도처에 둬 누구나 가지고 가서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오늘날 번듯한 책으로 법공양을 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비 스님의 법공양은 비단 책뿐 만이 아니다. 법회와 강설을 녹취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카페 염화실에는 스님의 경전 강의 녹취부터 시작해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지장경〉 〈유마경〉 등 대부분의 경전 강의를 보고 공부할 수 있다.

스님은 법공양에 대해 불법(佛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불사라 말했다. 그런 의미로 스님은 쉬지 않고 법공양을 진행 중이다. 현재 스님은 2014년 4월 〈세주묘엄품〉을 시작으로 현재 화엄경 총 81권 가운데 51권까지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을 발간했다. 아울러 새롭게 책을 발간할 때마다 스님은 사부대중에게 820권을 법보시하고 있다. 또 범어사의 '1000일 화엄대법회'가 열리는 초하루마다 300권을 추가로 보시한다. 얼마 전 구미 남화사에서 열린 화엄법회에서는 총 1100권을 법공양했다.

"저의 법공양은 계속될 겁니다. 2018년 10월에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가장 애착이 있는 〈화엄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좋았기에 볼 때마다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비 스님은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완역을 마칠 때 1만권을 대중에게 나누겠다는 뜻을 전했다. 총 81권인 〈화엄경〉을 모두 1만권으로 법공양하는 것이니 돈으로 환산해도 6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한국사회에 법공양 운동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대만에 〈성엄법사 108 자재어〉는 전 세계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달됐습니다. 총 10만권이 넘었다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왔지요. 저도 발심을 하게 되고 환희심이 생깁니다. 법공양은 최고의 선근회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나눠주고 법을 받아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한편, 무비 스님은 1943년 영덕에서 출생했다. 1958년 출가해 덕흥사, 불국사, 범어사를 거쳐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10여 년 선원 생활을 하고 1976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했다. 이후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 문수선원 문수경전연구회에서 화엄경을 강의하며 법공양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새 법당서 호국불교 되새기길…"

군종교구, 30사단 92여단 호국쌍용사 낙성



시설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드러났던 군법당이 새롭게 건립돼 불자장병들의 의지처로 거듭날 전망이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구랍 27일 경기도 양주 소재 육군 30사단 92여단서 호국쌍용사 신축법당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호국쌍용사는 1992년 오봉산 석굴암 초안 스님의 원력 아래 50평 규모의 전통양식 법당으로 창건됐다. 이후 25년간 법회를 봉행해왔으나 최근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상 하자가 확인 돼 지난 4월 신축법당 기공에 들어갔다. 새로 건립된 법당은 대웅전 45평, 요사채 36평 규모다. 최신 영상 · 음향시설을 갖췄으며 총 예산 11억 8천여만 원이 소요됐다.

이날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한 부처님이 출현하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곧 극락세계가 사바세계 안에 이뤄진다'는 〈무량수경〉 내용을 설한 뒤 "군장병들의 마음에 평화와 용기를 심어주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의지처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성도 30사단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장엄한 도량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스님과 지역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호국불교를 배우는 전법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 군종참모 혜문 군승은 장병들을 대표해 "부대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복덕과 지혜 구족하여 뜻하는 바 마음같이 원만히 이뤄져 늘 서광이 비치는 부대와 법당이 되도록 해주시옵오서"라고 발원문을 낭독했다.

호국쌍용사는 향후 편안한 전법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관과 외부 화장실을 오봉산 석굴암 도일 스님의 지원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낙성법회에는 고양시사암연합회장 대오 스님, 길상사 보산 스님, 정수사 지월 스님과 군 관계자, 불자장병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우수한 전법활동에 감사"

조계종 포교원, 우수도량에 물품 지원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구랍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서 '우수전법중심도량 선정사찰 포교물품 전달식'을 열고, 국제선센터 · 개운사 · 청계사 등 사찰 18곳에 노트북 · 빔프로젝트 등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노인복지기금 1500만원 쾌척

통천사 선지 스님, 신안복지재단에



적멸보궁 대구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대구불교사암연합회장)은 구랍 21일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신안복지재단 김은경 원장에게 노인의료 복지시설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선지 스님은 성도재일(1월 5일)에 전달할 장학금 200만원을 대구불교사암연합회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선지 스님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 및 어르신들은 우리의 한 가족"이라며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이웃들에게 큰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산타스님들의 특별한 나눔

마가 스님, 성탄절 백사마을서 자비나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을 비롯한 스님 20여 명과 자원봉사자들이 구랍 25일 성탄절을 맞아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서 '제2회 산타스님들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성탄절이지만 건강과 개인적인 형편으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자들은 어르신 100여 명에게 연탄과 떡국 등 선물을 전달하고, 음악공연을 펼쳤다. **노덕현 기자**

謹賀新年

대 한 불 교 원 효 종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종정 설제 정광

원로원장 창해 자문위원장 금봉 종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규정원장 성암 총무부원장 보원
상벌위원장 일륜
원로위원 혜초 수경 혜봉 성호 법진 서응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회의원 법진 자광 법원 현수 지광 향봉 수월 자성 일륜 무공 성죽 마명 청암
선거관리 위원장 석불 선거 관리위원 현수 무공 정운
종학원장 옥천 고시원장 자광 포교원장 선운
문화원장 효산 복지원장 범일 의전실장 석해 교육원장 행광
부산교구원장 석불 대구교구원장 석해 울산교구원장 지광 경남교구원장 월함
전북교구원장 경오 전남교구원장 마명 대전충남원장 자성 경북북부원장 성죽
제주교구원장 법원 강원교구원장 성암
(사)대한선불교원효종 이사장 청암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신년사

정유년 새해 새날 아침,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두손 모아 발원합니다.
혼란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로 인해 모두의 마음이
편치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마음가짐 하나로 모든것이 달라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진실을 찾는 다면
새해 새날 밝은 해처럼 둥글고 모남이 없이
화합과 상생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유년 새날 아침. 모든 불자님 가정에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축원드리며 원효종 종도
여러분의 무궁한 정진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주소 : 경주시 충현로 3길 4-1 TEL : 054)743-0700

바르트 "열반도 욕망인가" 법현 "그것은 차원 높은 서원"

신년특집 종교 간 대화

법현 스님 · 바르트 교수

현재 전 세계는 종교 간 갈등으로 인한 테러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 역시 훼불, 땅밟기 기도 등 일부 광신도들의 행위로 인한 종교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성공회대 채플 교수로 활동해 세간의 화제가 된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前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종교대화위원장)과 독일 루터교 원로 신학자인 한스 마틴 바르트 마르부르그(Marburg)대 명예교수는 구랍 만남을 갖고, 서로의 종교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주로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바르트 교수가 법현 스님에게 질문하고 이를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은 진행됐다. 특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상황에서 가진 만남이어서 더 의미가 컸다.

법현 스님과 바르트 교수는 약 4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대담 이후 법현 스님은 바르트 교수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영문 책자와 〈직지심체요절〉 영역본, 108염주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본지는 신년을 맞아 종교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님과 신학자의 대화를 정리했다. **정리=신성민 기자**



한스 바르트 교수

> 미래의 부처가 누구며
> 불교도 신비주의 있나
> 윤회 · 열반, 모순 아닌가



한국의 법현 스님과 독일 신학자 한스 바르트 교수가 종교 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장소를 옮겨가며 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대담 이후 법현 스님은 한스 바르트 교수에게 108염주와 한국불교를 소개한 영문 책자 등을 선물했다.



법현 스님

> 미륵과 메시아 語原 같아
> 모든 일 인과서 비롯된다
> 열반, 윤회를 끊었다는 뜻

바르트: 윤회와 열반은 모순이 아닌가?

법현: 윤회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써 존재하고픈 욕망이 작용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시 태어나 괴롭게 살아가기를 반복한다는 이론이다. 불교의 이론이라고 해서 따라야 할 진리인 것으로 오해한다. 열반(Nirvana)은 윤회의 고리를 끊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실제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모순이 아니냐' 고 묻는 것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윤회는 불교에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윤회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열반은 윤회를 끊었다는 뜻이다. 티베트의 환생설은 인도불교의 윤회설과 그 의미가 다르다.

바르트: 열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하는가?

법현: 초기불교(테라와다불교)에서는 명상의 주제를 우선 몸(身)과 몸으로 느끼는 느낌(受)을 대상으로 해서 몰입하게 되면 삼매(三昧)를 체험한다. 그 상태에서 마음(心)과 마음으로 인지하는 현상이나 법칙(法)을 살피면 그 속에 흐르는 법칙, 진실을 알게 된다. 즉 아는 지혜를 계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 4가지를 살필 것이라는 뜻에서 '4념처(四念處)' 라고 부른다. 경전에 의하면 4념처를 수행하면 반드시 열반에 이른다고 한다. 다른 곳으로 빠지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열반이라는 목표지점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는 뜻에서 '일승도(一乘道, Ekayanamagga)' 라고 부른다. 유식(唯識)불교에서는 마음의 작용 즉 의식의 흐름을 살펴서 때를 없애면 지혜를 얻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을 전식득지(轉識得智)라고 한다. 정토(淨土)불교에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지닌 덕성을 닮아 실천해서 부처님과 보살님과 같은 덕성체가 되려는 노력을 정근(精勤)이라고 하는데 주로 그 이름을 열심히 부른다. 여기에 참선의 의식을 결합시켜서 염불하는 이가 누군가를 마음에 새기며 염불하면 참선하는 효과와 같다고 하여 염불선(念佛禪)이라고도 한다. 붓다의 덕성을 그대로 따라서 붓다와 하나가 되는 것을 불수념(佛隨念, Buddhaanussati)이라고 하는데 염불이 바로 그와 같으므로 정통선이라고도 한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밀교 또는 금강승이라고 하는 현재 티베트, 몽골,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일부 하고 있는 진언(眞言, mantra, 呪文)수행이다. 중국불교에서는 인도의 사마타, 삼마디 위빠사나를 수나라 시기 천태지의 스님이 지(止)와 관(觀)이라는 이름으로 중국화한 참선이론이 있다. 조동종(曹洞宗)의 묵묵히 살피는 묵조선(默照禪)과 말씀을 주제로 명상하는 간화선(看話禪) 또는 화두참선(話頭參禪)이 당나라와 송나라를 거쳐서 원 · 명 · 청(元 · 明 · 淸) 시기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 가장 왕성한 수행법으로 자리하고 있다.

바르트: 붓다의 가르침은 욕망을 버리라고 한다는데 열반을 얻으려는 목표도 일종의 욕망이라고 생각된다.

법현: 당연한 물음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살아있으면,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것이 괴로움인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없애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끗하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를 설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바이블에서 말하는 천국이 진짜로 있다면 천국에 태어나려는 희망을 욕망이라고 표현해서야 되겠는가? 또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커다란 자비심을 욕망이라고 해도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더구나 본인이 그런 경지에 이르면 다른 이들에게도 그 방법을 일러줘서 같은 경지에 이르게 한다. 그것을 욕망보다 훨씬 차원 높은 '서원(誓願)' 이라고 한다.

바르트: 깨달음을 얻었다는 동북아 선사들이 읊은 시를 읽어보면 어떤 것은 교학을 시 형식으로 나타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서정시처럼 자연을 노래한 것도 있다. 그것이 깨달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법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느끼셨다. 저도 수행 과정에 있으니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깨달음의 시란 그런 것들이다. 이론, 즉 불교교학이나 신학을 깨닫고 나서 그를 표현하는 형식은 논리구조를 설명하거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자연이 바로 깨달음의 내용 아닐까? 불교 전통에서는 절대자의 창조와 섭리를 따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신학이 될 것이며 사실적으로는 보태거나 뺄 것 없는 자연 그대로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싶다.

바르트: 그런 면에서 나는 기독교를 개혁한 마르틴 루터의 신학과 신비주의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 불교의 신비주의란 어떤 것인가?

법현: 합리적 사고라는 것의 어려움과 사람의 부족함을 메우는 듯 한 절대자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끌리는 것 같다. 그러나 불교에는 신비주의가 없다. 고타마 싯타르타라는 사람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만들어진 것이 불교이다. 부처는 인도 고어로 '붓다(Buddha)' 이고 이 말은 '깨달은 이', '눈 뜬 이' 라는 뜻이다. 이곳에 올 때 길이 많이 막혔는데 원인은 교통사고였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고라고 부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하게 운전하거나 상황이 만들어져서 벌어지는 일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기적을 생각해보자. 지금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믿는 이들에게는 기적이지만 요즈음은 달과의 인력관계 속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일반인들은 신기하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알 만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따름이다.

바르트: 미래의 부처가 있다고 하는데 그는 누구인가?

법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되기 전 수행할 때의 이름을 보살이라고 한다. 깨달음을 보디(Bodhi)라고 하고 태어난 존재(중생)를 사트바(Sattva)라고 한다. 여러 생에 걸친 보디사트바의 과정을 걸친다고 한다. 오랜 세월 수행한다는 의미라고 본다. 그때 실천하는 것 가운데 '한량없는 마음(無量心)' 이라는 것이 있다. 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랑(慈 · metta), 연민(悲 · karuna), 기쁨(喜 · mudita), 평온(捨 · upekkha)' 이다. 그 가운데 사랑이 바로 미래의 부처님 이름이다. 빠알리어 멧따가 산스크리어로는 마이트레야다. 이 말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을 미륵(彌勒)이라고 한다.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의 '멧따(metta)' 와 메소포타미아의 '메티아(metia)', 팔레스타인의 '메시아(messiah)' 의 어원이 같다고 한다. 즉 사랑의 구세주, 재림주인 메시아와 미래의 부처님의 이름과 뜻이 같다는 말이다. 나는 이것을 모든 존재들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덕성으로 가진 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스 마르틴 바르트 교수는

1939년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에어랑겐, 하이델베르크, 로마 등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976년 에어랑겐대를 시작으로 1981년 마르부르크대에서 교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2008년부터 한국루터학회 해외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학자로서 창의적 글쓰기에 진력해 왔으며 루터 신학, 에큐메니컬 신학, 종교간 대화 등이 주요 연구 분야다.

법현 스님은

운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서봉 스님을 계사로 1985년 사미계를, 덕암 스님을 계사로 1991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중앙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을 마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하며 불법 홍포의 원력을 세웠다. 현재 열린선원 원장, 성공회대학교 채플강사,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초빙연구원을 맡고 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천산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춘담

율 원 장 :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중앙선원장 : 도일

■총무원

부 원 장 :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 법성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정덕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정일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수옥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상산
교육부원장 : 덕산
교육부장 : 태산
교육국장 : 진산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장 : 법진
포교국장 : 대수
기획원장 : 혜타
기획실장 : 대덕화

호계원장 : 천불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영암
규정국장 : 지산
호법부장 : 성산, 지호
호법국장 : 법성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수산
감찰2국장 : 금산
감찰3국장 : 인산

비구니 회장 : 지성
부장 : 혜승
교수사 : 덕산
총무 : 금산
부회장 : 혜산, 해원
재무 : 도은, 정해
교무 : 본각, 수정
교육 : 법신, 성담
문화 : 남산, 진화
포교 : 보명, 홍산
강원 : 각원, 현타
복지 : 화광
감찰 : 서호, 보현
불화 : 혜담, 인산
의식 : 련성, 지해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상산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 해인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충남종무원장 : 혜덕
경남종무원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북종무원장 : 덕운
부산종무원장 :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 지각
전북종무원장 : 법성
제주종무원장 : 청호
울산종무원장 :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 태산
편집기자 : 권소라 문화국장 : 용산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 호산
이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신도회사업본부

이창훈, 김생수, 김정한, 권오경
좋은상조 : 김호철
H&G : 이영호
사업부 : 대덕화

■전국신도회

남신도회장 : 설주성
여신도회장 : 김춘자
수석부회장 : 윤근
신도회장단 : 김생수
부산신도회장 : 허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 손정일
홍보처장 : 이근진
총무계장 : 유현석
기획대리 : 나윤하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예술문화협회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진산, 태산, 덕산, 혜성, 현조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한국교장 : 혜 인 부교장 : 손영진
총 장 : 홍창석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 정 교학처장 : 조영일 국제부교무과장 : 손 정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8 (논현동2-14 2층)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謹賀新年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A6

어떤 사람을 친근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과 같아져서 혹은 착해지기도 하고 착해지지 않기도 한다. (제경요집)

福

한국불교태고종

종 정 혜 초

승정원 원 장 남 파
부원장 법 장

원로회의 의 장 덕 화
수석부의장 지 족
차석부의장 금 용

중앙종회 의 장 설 운
수석부의장 법 담
차석부의장 시 각

호 법 원 원 장 지 현
부원장 상 묵

총무원 원 장 도 산
부원장 백 운
부원장 묵 원
총무부장 도 안
교무부장 도 진
재경부장 진 성
문화부장 청 암
규정부장 도 법
홍보부장 자 우

종 도 일 동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112)
전화 02)739-3450~4 팩스 02)739-3470



謹賀新年

대한불교천태종

중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변춘광
총무부장 김월도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지설혜
규정부장 이개문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원로간사 주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이문덕
종의회부의장 김무원
김형구

감사원
감사원장 김용암
감사위원 엄행주

종정사서실
사서실장 박덕수

중앙신도회장 김종규
참의원장 김학송
금강대학교 총장 한광수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전화 (043)423-7100 / 전송(043)420-7399 / www.cheontae.org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창종 70주년
진각100년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총 인 회 정

통리원장 회 성
종의회 의장 덕 일
현정원장 법 정
교육원장 덕 정
회당학원 이사장 증 광

총기 46년
불기 2561년

불교총지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효 강 대종사
통리원장 인 선

중앙종의회 의장	수 현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안 성	동해중학교 이사장	인 선
총무부장	우 인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 경
재무부장	원 당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 성
교정부장	법 일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사회부장	지 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 정

중앙종의회 의원 / 총지종 유지재단 / 전당건설 위원회 / 통리원 임직원
법장원 / 밀교 연구소 / (재)사회복지재단 /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총지종보 및 종보 통신원 / 각 교구 신정회 일동 /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 초록어린이집 · 잠원햇살어린이집 / 일원어린이집 ·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자성일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정유년 새벽을 깨우는 장닭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제40차 승려연수교육
•일시 : 불기2560(2016)년 10월19일~10월 21일 •장소 : 낙산묘각사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www.kwanum.kr T 02) 763-0054 F 02) 763-5851

(사)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양 지 은

총무원장 보공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광 포교원장 무공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 의 장 자운. 법용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종책자문위원장 종성 선관위원장 보아

총무부장 정운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보월 사회부장 보련 호법부장 정목
총무국장 보림 재무국장 보영 교무국장 무진 사회국장 보정 포교국장 보현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7790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A7

정성을 다해 훌륭한 스승 모시기를 부처님 섬기듯 하며, 성냄과 질투와 탐욕의 마음을 내지 말고
경의 가르침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마라. (반주삼매경)



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圓滿融通 人格完成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종 정 성관
총무원장 **진 호**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화 02)853-0531~2 팩스 02)853-0533
■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哲

元老院長 正 觀
總務院長 鏡 岩

호법원장 **지 철** 교육원장 **지 학** 종회의장 **법 진**

총무부장 **보 성** 역경부장 **혜 광** 재무부장 **묘 훈** 사회부장 **봉 산**
법화사상연구소 소장 **혜 광** 법화불교 교육대학 학장 **혜 광**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25 송화사 /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안길4 /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42-6660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석진 지공**
원로의장 **혜천**
총무원장 **경원**

원로의원 : **무찰. 봉암. 원각. 동봉. 덕봉. 혜성. 원각. 해월. 대륜**

재단이사회		중앙종회		종무위원		교구종무원장	
고 문	혜운	종회의장	법성	호계원장	석성	강원동부	보해
명예이사장	경원	종회부의장	고봉	교육원장	승원	경기남부	대각
이 사 장	일명	종회사무처장	도현	포교원장	보성	경기북부	도허
부이사장	경담	종회의원	석경	감사원장	법경	경북교구	법경
상임이사	혜광		도정	선거관리위원장	지언	경남교구	진공
이 사	법도화		자림	인권위원장	마덕	대구교구	고봉
	자비행		지흘	총무부장	원공	대전교구	경담
감 사	혜천		성운	교무부장	경담	부산교구	지언
			혜등	홍보부장	해동	울산교구	도현
			보은	재무부장	덕운	전북교구	지명
			무착			제주교구	제법
			일운			충남교구	호원
			혜일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1층 / 전화 02)991-8175,8904
전송 02)991-8176 **www.ilbung.org**

(사)대한불교 금강종

종정 **무학당 송천**
종정 예경실장 **청명**

총무원장 **법산당 영봉** 총무원장 사서실장 **정휴**
승정원장 **무상** 원로원장 **월서**

교육원장	정산	포교원장	덕산	감찰원장	정대
고시원장	혜신	참선원장	법일	복지원장	법영
문화원장	덕일	비구니원장	지명	홍법원장	서암
국제교류원장	정무	사정원장	혜광	보건원장	정일

중앙종회의장 **일타** 중앙종회부의장 **일각. 현우** 중앙종회사무총장 **정견**

서울특별시교구원장	반야지(서원암)	대전광역시교구원장	정 무(감로사)
대구,경북교구원장	정 일(광원사)	울산광역시교구원장	덕 일(도성암)
충청도교구원장	정 견(백련암)	경상남도교구원장	덕 산(광천사)
전라북도교구원장	월 서(삼불사)	전라남도교구원장	혜 신(남해사)

■ 총본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99-74 (일성사)
전 화 : 042)935-2279
■ 총무원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253번길 75, 101동 1002로(내동, 탑스빌A)
전 화 : 042)524-2149 / 팩스 : 042)526-2149
HP 010-5381-0779. 010-3550-5153

(사) 대한불교본조계종

원로위원 **혜산. 대호. 법우**

종 정 **회암** 사서실장 **중현(거석)**

총무원장 **융호** 수석부총무원장 **법전**
고시원장 **범산** 법규원장 **혜공** 중앙선원장 **보륜** 문화원장 **구달**
감사원장 **효현** 복지원장 **대경** 호법원장 **청암** 교육원장 **중무**
법사원장 **마생** 포교원장 **혜산** 감찰원장 **도문**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혜철. 반야. 현덕. 정주. 인덕. 대공. 천묵. 도일. 경담. 도일.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법향. 지환. 보호. 명진. 해련. 송현. 성무
명덕. 무심. 도인. 청공. 마월. 독견. 덕용. 덕보

총무부장 **도현** 재무부장 **정현** 교무부장 **경덕** 사회부장 **독성**
복지부장 **덕화** 문화부장 **자은** 조직부장 **무진** 규정부장 **성담**
조사부장 **광덕** 호법부장 **법장** 포교부장 **법묵** 교육부장 **법향**

서울교구원장 **무경** 경기교구원장 **진성** 대전교구원장 **법우** 강원교구원장 **정일**
부산교구원장 **도관** 대구교구원장 **중무** 경북교구원장 **무진** 충북교구원장 **동행**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남교구원장 **경덕** 전북교구원장 **보명** 전주교구원장 **보현**
제주교구원장 **효관**

종단고문변호사 **김창규. 황보윤**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 스님**

종 도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4번지 성라원 정안사 전화 02)3436-0797 팩스 02)732-0797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 봉**

중앙종회의장 **선각** 중앙종회의원 **지암**
중앙연수원장 **도광** 교구종회의원 **혜각** 비구니위원 **법광**
사정원장 **대성** 사정부원장 **주광**
비구니원장 **도견** 비구니부원장 **혜명** 13교구 동부종무원장 **용주**

총무부장 **법경** 문화부장 **무상** 사회부장 **혜련** 규정부장 **해법**
포교부장 **도영** 재무부장 **혜광** 감찰부장 **도경** 호법부장 **적광**
홍보부장 **지덕** 문화국장 **선광** 감찰국장 **법성** 홍보국장 **법행**
포교국장 **도현 법사** 교임단장 **혜안 법사**

입종을 환영합니다

【구비 서류】
- 사찰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반명함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1매 (사찰등록 하실분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분은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필히사본첨부
- 도첩은 본종단에서 수계를 받은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입종후 승려증 (법사 포교)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간부 추대장 발급

■ 총본산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연봉사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자비연민 베풀어 원융화합 사회 만듭시다

마음눈 뜨면 사람마다 진리의 주인공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새해에는 찬란한 광명이 어둠을 삼켜버리듯 사바세계(娑婆世界)에 가득한 아집과 독선, 갈등과 투쟁의 어둠이 사라지고 정의와 평등, 자유와 평화가 충만하여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마음의 눈을 뜨고 인간본성을 회복합시다. 마음의 눈을 뜨고 실상을 바로 보면 사람 사람마다 진리의 주인공입니다.

중국의 송나라 시대에 '소동파'는 당나라 · 송나라 8대 문장가에 속한 대학자였는데, 어느 날 세상의 문장과 재주, 식견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후로는 참선수행에 몰두했습니다.

하루는 노산 흥룡사에 상총(常聰) 선사라는 안목이 고준한 선지식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사께 예를 올리고 말하였습니다. "선사님의 법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에 상총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유정설법(有情說法)만 들으려 하고 무정설법(無情說法)은 들으려 하지 않는고?"

소동파는 선사의 물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과 정이 있는 유정물 뿐만 아니라, 산이나 바위나 나무 같은 무정물도 설법을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에 의심이 깊게 사무치게 되었는데, 친견하고 일어나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온 몸과 온 마음이 이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말 등에 앉아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소동파는 한 생각에 깊이 빠져서 문득 의심삼매에 든 것입니다.

'어떻게 무정물이 진리를 설할 수 있는가? 왜 나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가?' 그렇게 수십 리 먼 길을 말을 타고 돌아가다가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산골짜기에서 짚동 같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에 크게 깨달아 마음의 고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게송을 지었습니다.

溪聲自是廣長舌인데 山色豈非淸淨身이리오
夜來八萬四千偈를 他日如何擧似人하리오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가 팔만사천 지혜의 말씀인데 산색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한 몸이 아니겠는가! 밤이 옴에 팔만사천 법문을 다른 날에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서 보일꼬.

이후로 소동파는 남은 생을 마음의 고향에서 지혜와 자비로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근원이요,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민족입니다. 산하대지와 산천초목이 제각각 진리를 표현하고 그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조화 속에 주위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상호관계 속에 서로를 인정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생과 공존 속에 원숙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성찰하고 국리민복을 염원하며 국민을 하늘같이 섬길 때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국가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자기를 성찰하고 타인에게는 자비연민을 베풀어 원융화합의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붉은 해가 떠오르니 온 세상이 찬란한 화장세계(華藏世界)요, 나날이 설날이며 시시(時時)가 태평성대(太平盛世)로다.

우리 모두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정유년(丁酉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닭의 해입니다. 닭은 예로부터 여명을 밝히는 광명의 상징이자 불행을 쫓고 복을 부르는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어둠을 사르고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알고, 힘찬 울음소리로 만물을 깨우는 삶의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였고, 국민들은 마음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존과 공생보다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려는 국제정세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정유년 새해는 희망과 환희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국내 상황과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민심을 통해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이미 증명하였습니다. 어떤 국가의 시민들보다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 주었으며, 수많은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민족의 힘과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러한 용기의 힘으로 다시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임제 스님께서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곧 가장 진실하고 행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한다면 역사는 정유년을 희망과 행복의 해로 기록할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앞장 섭시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태고종도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각 가정과 사찰에 만사형통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국가를 비롯한 우리 종단도 무척이나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외 정세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종단의 혼란이 함께 겹친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나라도 희망과 변화의 새로운 정치질서를 꾀하고 있고 종단도 지난 후유증을 극복하고 정상화의 궤도를 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태고종도 여러분, 우리 태고종은 역동적인 종단입니다. 지난 종단에 불어 닥친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다져진 역량은 국가와 한국불교의 미래를 더 높이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종단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때 종단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신뢰의 바탕위에서 변화의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며, 국민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종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화합과 공경, 상생의 길만이 살 길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정유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힘찬 닭 울음소리로부터 새해가 시작되어 온 누리에 찬란한 광명과 희망이 퍼져 나갑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화합하고 공경하며 상생해 나가도록 합시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기아 그리고 테러의 공포가 상존해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 역시 매우 엄중한 시기이므로 이념의 대립과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지극히 염려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과 공경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버리고 이웃의 고통을 먼저 살피는 자리이타의 정신만이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을 이루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입니다. 화합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지혜를 발현해야 합니다. 정유년 새아침의 밝고 힘찬 기운이 온 누리를 덮었으니, 구류중생이 한 몸으로 환희하고 우주법계에 행복이 가득 차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신행으로 지혜로운 생활을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날은 언제나 좋은 날입니다.

누구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추억할 수 있고 다가올 날을 기약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수행정진으로 깨달음도 능히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순간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희망을 이야기하고 서원을 세워갑시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바른 신행으로 지혜로운 생활을 누리고 기쁜 마음으로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슬프게 했던 사상초유의 국정혼란 상황은 시대적 당체법문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국가적 위난이 있을 때마다 진호국가불사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동력으로 삼았던 저력이 있습니다.

이 환란 또한 자주성 강한 국민의 힘으로 하루 빨리 질서 있는 안정을 되찾으면서 바른 자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 나아가 한국불교의 새 시대를 위해서 자주정신을 굳건히 하며 정도를 실천합시다. 국내 정치와 경제상황이 안정되고 질서회복을 위해 밝은 지혜를 발휘하고 단결된 힘을 모읍시다.

청정법상 가르침, 온 세상에 나투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정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새벽 첫 장닭의 울음소리와 같이 세상을 깨우는 참회와 기도 정진을 합시다. 우리의 기도로 평화와 행복의 문을 엽시다. 혼란스러운 열하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실망과 분노로 전번(傳繁)되어 세상을 촛불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 변천의 과거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역경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가지의 모든 법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 갈파하시고 오직 마음의 근본을 다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과 혼란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 어리석은 욕구 충족을 위한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인은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남보다 우월하다는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겨납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청정법성의 가르침으로 갈등이 없는 맑은 세상, 평화로운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새해의 기원과 원력으로 행복의 문을 열어 갑시다.

새 마음의 각오로 새해를 맞이 합시다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정유 새해를 맞이하여 온 세상에 힘찬 닭 울음소리 상서롭고, 새 희망의 나라 건설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래 소리에 온 천지가 진동하네.

닭은 새벽을 알리고 빛을 부르는 상서로운 동물(瑞鳥)로 여겨왔을 뿐만 아니라 잡귀를 쫓고(逐鬼),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오덕(五德)을 가진 선견지명이 있어 미래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는 동물로 상징돼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되돌아보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명의 닭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관용과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가치의 정수를 지키지 못하며, 양심과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닭의 좋은 이미지를 본받고자 하였던 조상들의 뜻을 승화시켜서, 지난시절의 혼란과 격동의 묵은 감정이나 슬픔은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수행자들은 은근한 인내와 끈기로 무장하고, 닭 울음소리가 새벽을 알리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 즉 희생정신을 가진 정의 선언, 깨달음, 위인의 탄생을 알리는 의미도 담고 있음을 마음의 경구(警句)로 삼아서, 어느 한순간도 헛된 마구니의 장난에 끌리지 말고 쉼 없는 정진에 진력하기를 바랍니다.

청정한 믿음, 흔들림 없이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크게 깨닫고 능히 자비하며 시절을 따라 중생을 교화함이 부처님의 길이라.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이를 떠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구나.

하루하루를 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여 청정한 믿음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살라.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상의 길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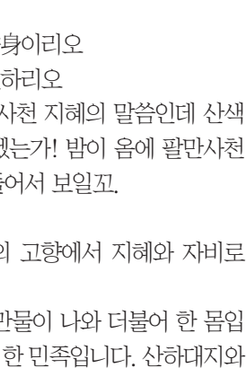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법을 알아 끝없는 미혹 번뇌의 무명 덩어리를 깨어 부수고 깨달음의 밝은 광명으로 자성(自性)의 등불을 켜라.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 세상이 바뀌는 법. 피나는 기도 정진 없이 내 몸이 바뀌랴. 천 길 낭떠러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라. 용기 있게 시작하는 이들만이 가피를 얻을 뿐이니 불국정토가 장엄하게 전개 되리라.

억울함을 참고 인연을 받아들이며, 아무 것도 구하지 말고 그대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진리대로 살아가라.

자기 허물 깨달아 심인 구현

회정 정사
진각종 총인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듯 새날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일(大日)의 밝은 광명이 정유년(丁酉年) 새날을 여니 눈 밝고 귀 열린 이 마음 밝혀서 법계법신(法界法身)의 형상 있는 그대로 보고 자성중생(自性衆生)의 음성 있는 그대로 들어 만다라정토 열어 갑시다.

사도(邪道)는 정도(正道)를 꺾을 수 없고, 사심(邪心)은 정심(正心)을 이길 수 없으며, 사욕(邪慾)은 대의(大義)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과학만능 물질시대에는 물질을 바로 쓰고 마음을 바로 써서 자기가 먼저 정화돼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환경이 순화되면서 국가사회도 정화됩니다.

진각대도(眞覺大道) 항상 열려 있으니 공도(公道)를 깨쳐 사도(邪道)를 멀리하고 자주정신 바르게 실천하여 자기 허물 깨달아 심인(心印)을 구현합시다.

밝은 영혼 일깨웁시다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듯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고 희망만이 충만한 정유년 밝은 새해 아침도 어김없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는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운다.'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여러분들은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 듯 스스로 밝은 영혼을 일깨워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사고라는 인간고의 해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정치,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도 역시 인간고의 하나인 인간의 이기적 갈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불자님들이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덕행으로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비행의 실천과 부처님의 지혜의 증득으로 중생제도의 서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무념무상의 세계 직관해야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스님



무념무상(無念無想). 새해 희망의 세계로 남산은 푸르고 한강은 유유히 흐른다.

불교의 사상은 중간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집착을 버리고 공평하게 현실을 철저히 보는 입장을 형용하는 것으로 양극단을 부정하고 지양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좌정관천(坐井觀天)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해는 무념무상의 세계를 직관해야 합니다.

소통으로 하나되는 한 해 되길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지난 한 해 우리는 혼돈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여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촛불들이 모여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 낸 한 해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서로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올해는 가족부터, 직장,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작은 실천부터 해나가도록 합시다.

'대학다운 대학'으로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조계종 종립 동국대는 2017년을 '대학다운 대학'으로 내실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해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교수진을 계속 영입하겠습니다.

자비의 씨를 뿌리는 해로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대승정 목탁 스님



저무는 해를 멀리하고 정유년 새해 작은 소망을 피력해 봅니다. 고통의 사바세계에 너다 나다 구별 없이 모든 중생 하나같이 초발심으로 돌아가 독선과 과대망상에서 벗어날 정신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할 새해입니다. 행걸(行乞)의 언덕은 높았고 행화(行化)의 지평은 광활하고 험난했지만 부처님의 45년 동안을 중생 속으로 나아가는 끝없는 대비행을 닮아 자비의 씨를 뿌리는 자랑스런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뇌를 식히니 시원하도다

(사)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중생들이여! 세상살이 고달프다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요. 나만이 행복하다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요. 이 도리를 왜 모르는가. 알면서도 그에 들지 못함은 끄달림속에 울고 웃기 때문이도다. 이 심법(心法)을 모두 속히 깨우치고 나면 참된 법 제법실상(諸法實相)이 보이나니 이를 봄은 부처님의 경지에 다달음이요. 불지지견 개시오입(佛之知見 開示悟入)코져 함이 일대사인연임을 알게 됨이니라.

정진으로 새해를 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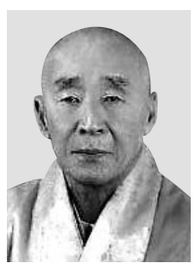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사람들은 불변하는 자기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처럼 쉼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같이 흐르는 마음을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쉼 없이 변하는 번뇌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닌 것을 알고, 중생들이 지닌 영원한 본성 즉 불성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정유년 선정과 물러서지 않는 정진으로 새해를 열어 갑시다.

삶의 현장은 살아있는 경전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생활현장을 떠난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의 제일 큰 위험은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재앙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몸으로 이루어 놓고 한마디 잘못된 말로 모든 것을 망쳐 버리고 맙니다. 정유년 겸손과 예절을 미덕으로 하여 정진한다면 인성은 절로 단정하고 엄숙해 질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선악 초월 가르침 따르길

(사)대한불교원융종 종정 성관 스님



태양은 분별없이 모든 곳을 비추어 줍니다.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나누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악을 초월하라는 큰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장하는 선악은 다분히 감정위주의 분별심이 작용하는 데서 올 뿐입니다. 즉 사바세계에서 말하는 선악은 대부분 아전인수 격인 독선과 자신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태양과 같이 분별하지 않는 자비심을 널리 펼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마음 속에 모든 자유가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맑고 화창하며, 어떠한 날은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칩니다. 자연의 이치가 이러하듯 우리 사바세계의 삶도 때로는 힘들기도, 평탄하기도, 좋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 하나를 제대로 잘 다스리면 여기에 모든 자유가 있고, 모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울이 자기 얼굴을 잘 볼 수 있게 하듯이 번뇌에 찌들은 마음을 깨끗이 정유년에 닦아야 하겠습니다.

곳곳이 불국토요 부처님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남정 스님



一本文是 眞性佛이요
眞佛說法 利衆生되리라
在在處處가 佛刹佛身이요
森羅萬象이 淸淨法身이로다

여기에 근본이 문장이 있으니 진실로 부처님 성품이요. 부처님께서 진실한 법 설하시니 사바의 모든 중생이 이익되리라.

곳곳이 불국토요, 부처님이시니. 삼라만상이 맑고 깨끗한 법신이로다.

대중 다함께 행복 누리자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태양처럼 정유년 새 해엔 우리 모두 긴 잠에서 깨어나 참 진리에 눈을 뜨고 자각해탈을 이루는 한 해가 됩시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자기 자신부터 바로 서고 나서 남을 제도해야 합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여 모든 대중이 다 함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요, 실천인 것입니다.

실천하는 참모습으로 돌아가자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스님



진리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진실한 것이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진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제각기 지니고 있는 알음알이로 차별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멋대로 개념지어 그 개념에 사로잡혀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것이다. 우리 승가와 불자들은 자정기의(自淨其意)를 실천하는 참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중생 삶 벗어나 자유를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정유년 새해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할 것을 기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정유년 오시는 길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들만 가지고 오시옵소서. 갈등으로 가득한 이 세계를 부처님의 자비로 어루만져 주시고 가르침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미움도 고움도 털어버리고 한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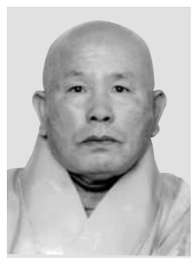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혜봉 스님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생각하고, 가난해도 편안히 머물러 도(道)를 지켜,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할 것을 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겨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팔정도 행하는 한 해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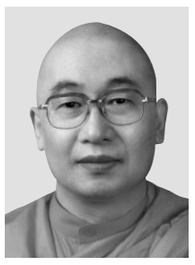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자기를 믿는 자는 남도 믿고(自信者人), 자기를 믿지 못하는 자는 남도 또한 믿지 못하고(自信不者人), 마음이 밝으면 있는 곳이 극락이고(心明之樂), 마음이 어두우면 있는 곳이 지옥이니라.(心暗之獄) 다가오는 정유년에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자기성찰(自己省察)과 함께 팔정도(八正道)를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면을 성찰합시다

세계승가회 회장 수완나 스님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삽니다. 이러한 사람은 작은 것에 집착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님은 언제 어디서나 욕망을 절제하고 유혹으로부터 자제할 줄 압니다. 그에게 분노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삶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여유롭습니다.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새해에는 보이는 것에 치우쳐 외면을 가꾸려하지 말고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찰에 정진하십시오.

스스로 돌아봅시다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부처님 법에 따라 마음을 닦고 정진하자 사람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그런데 비방하고 칭찬하는 것은 모두 명리 때문이다.

명리 추구에서 벗어나 부처님 법에 따라 마음을 닦고 정진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야 지혜의 태양이 뜬다

(사)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금강의 굳고 날카로운
반야의 지혜로써
번뇌의 숲을 끊으시고
지혜의 태양으로
첩첩의 어둠을 비추시며
通方正眼으로
강산이 평화롭고
백성이 편안하여라

솔선수범하는 것이 참불자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스님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가 하심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갈등을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 미망을 떨쳐버리고 진실된 나를 찾아가는,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청정한 마음 찾아 떠나세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처음을 알리는 마음, 처음 부처님을 향한 초발심을 항상 간직하는 마음만이 이 사바세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사바세계의 괴로움은 바로 우리들의 괴로움입니다. 사바세계가 웃으면 우리들도 웃습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을 찾으면 모두 함께 웃을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항상 하는 마음으로 여여한 삶을 영위해 나갑시다.

참된 불자로 거듭나길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정유년 새해는 몸으로 진실한 행을 실천하고, 입으로 진리의 참 뜻을 전하며, 마음으로 부처의 보리심을 일으켜 선악 시비 선후 본말의 인과 이치를 깨달아 우리의 복과 지혜를 키우는 한해가 되길 서원합니다. 물질위주의 삭막한 현실 속에서 탐진치에 물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청정한 삶을 살아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불자가 됩시다.

대화·타협으로 화합된 사회를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



매년 밝게 떠오르는 아침 해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분별,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밝아도 밝음을 보지 못하고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조금씩 양보하고 한발씩 물러나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모든 이가 하나로 뭉쳐 화합된 사회가 조성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성불의 금자탑 쌓아가자

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정유년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가 365일이나 되는 큰 선물을 받았으니 기쁜 마음 한량없어 날마다 좋은 날이요 가는 곳마다 곳곳이 극락이로다. 오늘은 오직 한 번뿐이며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같이 소중한 선물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매일 매일을 보람있게 살며 성불의 금자탑을 쌓아 갑시다.

욕망과 아집 버리고 희망으로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스님



정유년 새해에는 서로 베풀고 또한 하루에도 한량없이 찾아오는 망념에 사로잡혀 무시습숙(無始習熟)한 숙업의 선율은 여지없고 마음을 수시로 흔들어 놓아도 언제 어디로 갈 곳 하나 모르고 살아가는 뜬구름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허망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베풀면서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년이 가면 새년이 오는 법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팔십평생 만난 년이 잘했다는 년 별로없고 그저 그년이 그년일세. 흔년이 가면 새년이 오는 법 간 년 참 시끄러운 년일세. 병신년이 떨던 꼴값 지은 구업 어찌할꼬 육체는 무상하고 업보는 끝이 없나니 시비나 성패도 지나고 보면 다 허무한 것 오늘 내 행동은 순간 순간 행복과 불행을 만드나니 혼탁한 이시대에 미움과 탐욕을 버리고 시끄러운 년에 피운 촛불일랑 오는 년엔 자비광명되어 온누리를 밝혀 주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병아리 깨고 나오듯 중생 번성

(사)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부처님전 꿇어 앉아 천만배 기도하고 아는 것도 얻은 것도 없으니 무었을 닦고 깨달았다 하리오.

그믐날 한밤에 어리석고 몽매한 인성으로 꿈속에서 휘황을 보듯 크게 깨달음을 얻으니 정유년 암탉이 붉은 옷 곱게 차리고 많은 병아리들이 깨고 나오듯 중생은 번성하리라.

정유년 새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희망차고 행복한 새 인연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청정하고 단아한 공부자의 마음으로 올 정유년은 늘 화합되고 아름답게 살길 당부 드립니다. 세상 인연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얽히고 설켜 함께 만들어 낸 인드라망의 인연으로 우리의 삶이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길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인내하고 인연국토에서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꿈꾸는 불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차고 행복한 새 인연을 만들어 가는 불자님들이 되시길 축원올립니다.

지혜로운 자세로 본분을

대한불교선교종 종정 법운 스님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자세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자대비가 지금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해법임을 알아서 선악을 구분 짓지 말고 자비로운 생활을 합시다. 이처럼 생활해 나간다면 '자비무적'이라 어디 누가 있어 적이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인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힘든 때일수록 우리불자들은 본래의 자리에서 차분하고 지혜로운 자세로 자신의 본분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나갑시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心生卽種種法生 心滅卽種種法生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 세상에는 항시 새날이 있고 새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맞이하는 사람은 저마다 항시 새로운 각오와 함께 다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여 한곳에 두면 무슨 일이던지 다 처리할 수 있으리라. 정유년 한 해는 마음을 집중하여 한 가지 심중 소구소원을 꼭 이루시길 합장하나이다.

온정 나눠 희망찬 한 해를

(사)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혜정 스님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혼란한 시국으로 많은 불자님들께서 어려움을 격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바른 정신이 살아있어야 어떠한 어려움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 그러했듯 우리 불자님들은 욕심을 버리고 내 분수에 맞는 삶으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해나간다면 어려움은 반듯이 극복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 불자님들 모두 서로 베풀어 온정을 나누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길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悉無所着諸色相 皆無所作妄分別
能淨無畏常見佛 普賢誓願廣大心

모든 경계와 모습에 다 집착한 바가 없고, 망령된 분별도 모두 지은 바가 없으니, 두려움이 없고 깨끗하여 항상 부처를 볼 수가 있음은 보현보살의 서원한 마음이 넓고 크기 때문이니라! 정유년에는 힘 있는 큰 부자가 되고 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 곳곳마다 불사하기를 발원합니다.

洞山의 묵조화가 피길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심월 스님



洞心不忘默照求
坐了喫茶甘露香
默落照開然時節
丁酉春風洞山花

정신적으로 힘이 들수록, 물질적으로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종도 여러분! 본래의 자성을 깨뜨리십시오. 그 순간 부처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유년 동산(洞山)의 묵조화가 활짝 피기를 기원 드리며 각 사암의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탐욕의 근본을 과감히 자르라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나무는 끊어도 근본을 베지 않으면 뿌리가 있어서 다시 돌아나는 법 능히 탐하는 마음을 자르지 못하면 송아지가 어미젖을 그리워함과 같으니 끝내 어미마저 말라 죽게 되느니라.

바람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 메마른 세월에 큰 나무와 작은 나무들의 권력 다툼은 민초들에게 고통스러움만 줄 뿐이로다.

화합으로 상생의 길을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성철 스님



세상에는 각기 다른 주장과 이념의 차이가 괭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또 다른 불행을 부릅니다. 이제 반목(反目)과 시기(猜忌)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아집(我執)을 화합(和合)으로 만들어 가야할 때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원력을 세워 나간다면 아픔은 기쁨으로 승화될 것이며, 그늘진 곳에도 광명이 깃들고 차별 없는 사회,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相生)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밖에서 법을 찾지 말라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눈앞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조사(祖師)와 부처와 다르지 않거늘 그대들은 믿지 않고 밖에서 찾음이로다. 착각하지 말라. 밖에서 법을 찾을 수 없고 안에서도 또한 얻지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며 해탈을 구하는 것이 다 중생심이다. 만약 법다운 견해를 터득하려면 남에게 끄달리지 말라. 안과 밖을 행해서 찾게 되면 해탈을 얻어서 사물에 구애되지 않고 생사에서 벗어나 자재할 것이다.

모두 함께하면 곧 극락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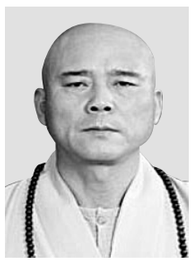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닭의 기운으로 힘차게 시작합시다. 새로이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며 모든 이들의 갈등과 대립, 경쟁심이 사라지기를 기원합시다. 깨닫고 보면 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권력과 부귀와 입신출세만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결국 그 끝은 암울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이기적 분별심을 벗어나 나와 이웃과 함께 한다면 모두 극락세계일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마음으로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



2016년은 우리 국민과 불자들에게 새로운 혁신의 물결 속에서 혼란과 불안이 거듭된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촛불은 연등처럼 우리 안의 공덕장엄을 환희 비춰,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백척간두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이 정유년을 시작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합장하며 당부 드립니다.

새해 광명에 恨 녹이자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눈부신 태양이 우주 만물을 비추니 추한 것도 더러운 것도 사라지고 미움도 원망도 모두 사라집니다. 나도 너요, 너 또한 나이니 너와 나의 분별이 없는 한 몸의 경계가 평화입니다. 밝아오는 새해 태양의 광명은 나와 너의 것이니 다함께 가슴속 한을 녹여서 분노를 삭이고 원망을 지워내 한량없는 기쁨으로 풍악을 울리며 다함께 춤을 춥시다. 다함께 성불합시다.

국태민안, 가정화목의 해로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스님



부처님 재세 시 아싸지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훌륭한 신행으로 그 당시엔 아직 부처님제자가 아닌 이교도의 수장이었던 사리불 존자와 친구인 목건련 존자, 수백 명의 이교도의 수행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서 불교의 교세가 획기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에 우리 모든 불자들은 모범적인 신행으로,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1% 자비로 따뜻한 마음내자

(사)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절문이근사(切問而近思)하면 인재기중의(仁在基中矣)니라. 묻기를 간절히 하고, 생각을 가까이 하면 수행자는 어진 것이, 그 가운데 있느니라. 불자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같이 소금같이 역할을 해야합니다. 소금 1%가 바다를 썩지않게 하듯이 여래의 정신을 가진 1%의 자비로 따뜻한 마음내어 세상을 밝히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른다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靜水流深
深水無聲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듯 고요함 속에 참 진리가 있는 것이다. 침묵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후에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다. 닭의 울음소리는 새벽을 알리는 울음 소리며, 새해에 일체 중생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인과법 바르게 실천하는 해로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파 스님



내가 지은 것은 지은대로 받는 불교의 인과법을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를 원망하고 남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부처님의 참뜻을 항상 생각하며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와 신념의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심청정이 곧 불법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정함 없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멸의 법이니 집착함을 놓으면 곧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니 모든 나쁜 짓을 짓지 말고 맑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로다.

생각 끊어지면 한 세상 쉬리라

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스님



진정으로 자기를 돌아보세요. 앞으로 법신을 찾고자 하면 법상을 떠나서 마음 씻으면 노력하고 살피며 노닐지 마세요. 뒤 생각 끊어지면 한 세상 쉬리라. 이 게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돈오 할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고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은 참고 하면 일체 모든 것을 새로운 각오로써 대처하고 단결하여 나아가면 오는 앞날에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만법 속에서 상생의 화합으로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스님



하늘에서는 진리의 우레가 일어나고 온 우주에 가득한 장애(障碍)가 사라집니다. 곳곳에서 둥글게 화합하니 통합의 길이 열리고 우리 모두 차별 없는 일미를 이루고 번뇌(煩惱)속에서 범부는 부처를 만나고 고난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됩니다. 누구도 진리를 벗어 날 수 없고 만법 속에서 상생의 화합으로 불국정토로 만들어 갑시다.

자성중생서원도 이루자

대한불교광명종 종정 불인 스님



정유년 새해 부처님의 가피가 가내에 두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해해탈 이란 완성된 인격 구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계정혜로 풀어서 작각 각행 각타 중생무변서원도로 원력을 세워 자성중생서원도에 이르기까지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며 지상극락 이룩합시다.

불교의 깨달음이 사회적 해탈

종교세계신문사 발행인 윤기순



물질 지상주의, 배금주의로 사회가 변화되어 인간은 본성을 상실하고 허공중에 빙빙도는 팔랑개비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구원이 아니라 해탈입니다. 인간의 번뇌와 망상으로 구속되어있는 것을 풀어서 본래 자리인 불(佛)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부터 이러한 물질 지상주의와 배금사상을 버리고 번뇌와 망상을 끊고 본래의 참다운 모습으로 회귀하여 해탈의 길을 성취합시다.

본분 잊지 말고 정진하자

(재)진각미란다 이사장 이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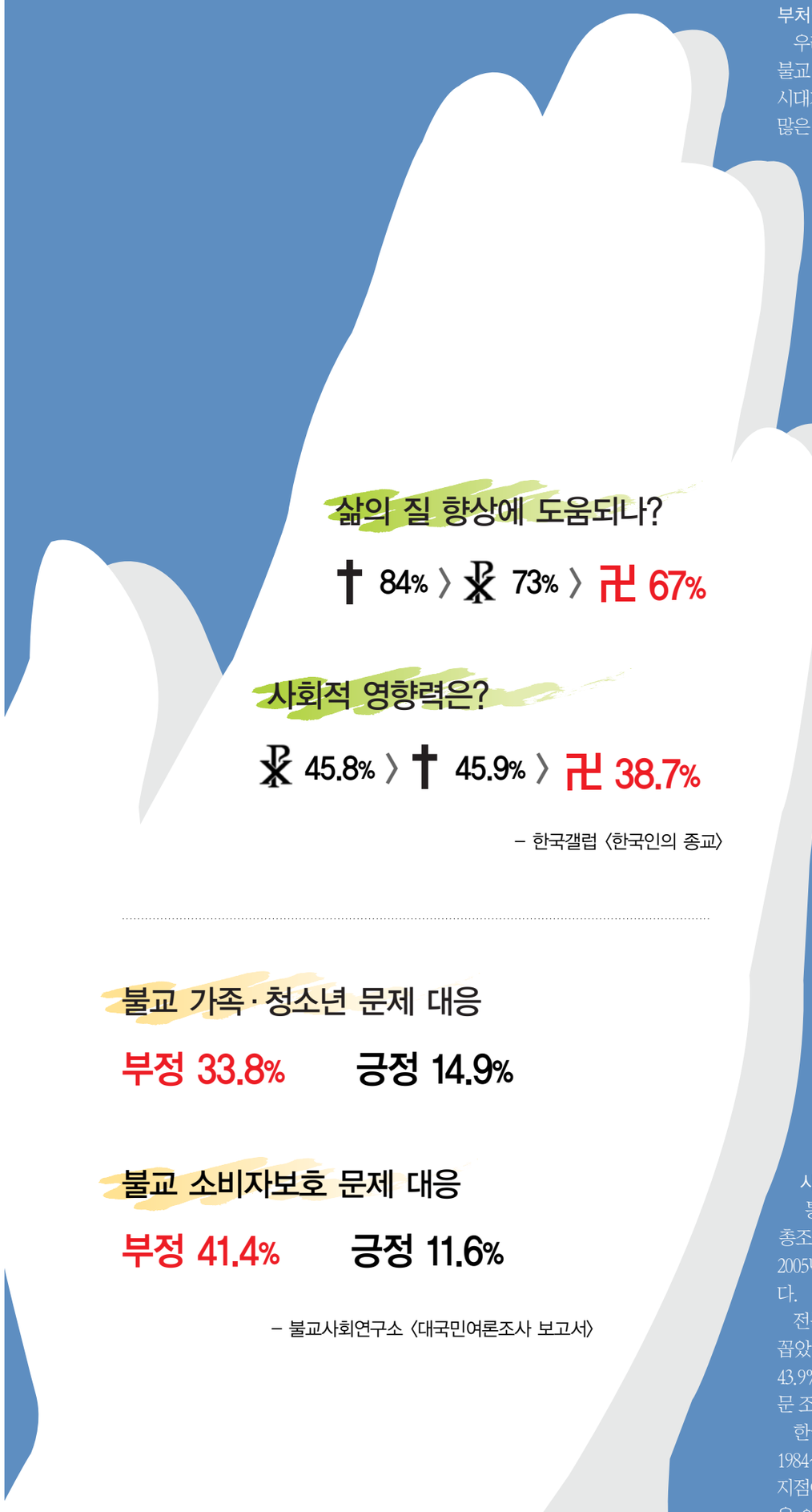
각종 병폐로 우리 사회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 우리불교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이어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병든 사회에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아플 때 나도 아파하는 대자대비의 마음만이 오로지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지혜롭게 불제로서 본분을 잊지 말고 정진합시다.

이젠 생활밀착형 불교

불교와 생활은 不二, 대중 속으로 들어가라



부처님 당시부터 생활불교

우리나라의 역사만큼이나 장구한 것이 바로 불교 역사지만 최근 그 위상은 예전과 다르다.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 불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문명이 끝없이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불교의 위치는 어디인가?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불교는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보다 교세면에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불교계 안팎에서는 불교가 사회구성원 개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불교는 태생부터 자리이타와 함께 하화중생을 위한 종교였다.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당시의 일화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아나율'은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다 눈병이 생겨 실명하게 되었다. 아나율이 옷을 기우려했으나 바늘에 실을 꿸 수 없었다. 아나율이 "세상에 복을 구하려는 사람은 나를 위해 실을 꿰어달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네 바늘을 가져오라"며 이렇게 말하셨다.

"이 세상에 복을 얻고자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베푸는 것과 가르치는 것, 억울함을 참는 것과 계를 내리는 것, 중생을 감싸고 보호함과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 이 여섯 가지 일에 만족함이 없이 항상 힘쓴다."

부처님은 자이나교도에게 시집을 가 곤경에 처한 위사카를 위해 직접 사위성으로 가셨고, 또 기원정사에서 말썽쟁이 아들을 가진 아나타핀디카를 위해 직접 자녀 교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대중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직접 모범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의 한국불교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생활 괴리, 탈종교화 직격탄

통계청이 구랍 19일 발표한 '2015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불교신자는 761만9000명으로 2005년 1058만8000명에서 약 297만명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탈종교화'를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종교가 있는 국민은 43.9%, 없는 국민은 56.1%로 무종교인이 종교부문 조사 이후 최초로 과반을 넘었다.

한국갤럽이 2015년 발간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에도 비종교인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지점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45%)가 가장 높은 이유로 꼽혔다.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등 다른 이유는 19% 이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특히 20대에서 55%에 달했으며 30대부터 50대까지는 40% 선이었다.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탈종교화 현상과 더불어 최근에는 종교사사화 현상까지 일어나며 제도권 종교 중심의 신앙생활이 개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에서는 '종교보다 개인적 수련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에는 불자가 33%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인은 25%, 가톨릭인은 29%였다.

또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신자들이 유독 많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불교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음'도 꼽혔다. 불교는 주요 종교 중 종교를 믿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률이 개신교 84%, 가톨릭 73%보다 낮은 67%를 기록했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제도권의 표준화된 불교로는 대중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며

부처님, "중생 위해 직접 교화나서
불교 일상생활 분야 활동 평가 낮아
"현대인 요구에 대응과제 남아"

"한국불교가 시대 흐름에 조금 더 개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은

그렇다면 불교가 대중의 다양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불교는 생명존중과 인권 등의 분야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평가받은 반면, 가족문제나 청소년 문제, 소비자보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불교사회연구소가 2015년 발표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다. 불교는 특히 생명존중, 인권 등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10개 내역 조사 중 가족·청소년 문제나 소비자 보호 등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문제의 경우 부정적 평가가 33.8%, 41.4%로 가장 높았다.(긍정 14.9%, 11.6%) 불교사회연구소 측은 "여기에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가톨릭 45.8%, 개신교 44.9%에 크게 못 미치는 38.7%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불교학계 원로들은 생활밀착형 불교만이 불교에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불교의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시대 징후를 읽어내는 성찰이 부족했고, 일반 대중들이 지닌 고통을 함께 하는 소통이 단절된 데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명예교수는 "모든 종교에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양면이 있다. 이상이 높더라도 현실을 외면하면 종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스스로의 고립을 벗어 던지고, 이제 사회와 함께해야 한다.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주 한국불교 실패 '반면교사'

대중의 요구를 외면한 결과는 이미 1970~80년대 미국이민 초기 불교신자들이 대거 기독교계로 개종한 사례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남가주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아시아 목회연구원은 1981년 한인 의식구조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남가주 한인 중 개신교 신자는 64.8%, 가톨릭 신자는 9.3%, 불교 신자는 5.3%였다.

워싱턴 연화정사 주지 성원 스님은 "1980년대 이민자 중 개신교와 가톨릭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46.1%였고, 그 중 절대 다수는 불교신자였다"며 "절대 다수의 불교신자들은 미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볼 수 있다. 한인 이민 1세들을 위한 미주 한국불교의 포교는 철저히 실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님에 따르면 1977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작하는 등 미주 한국 기독교계는 다양한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전개했다. 이와 달리 당시 미주 한국불교계에는 한인 이민1세 승려들과 재가지도자들을 체계적으로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 등이 전무했다.

스님은 "1997년 9월 21일 개원한 LA관음사의 로메리카 불교대학이 미국 전역에서 유일무이하게 재가포교사 양성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문을 닫은 상황"이라며 "탈종교화 현상이 거세더라도 상대적으로 사회와 소통을 잘한 미주 한국 기독교는 불교보다 더 영향력을 갖게 됐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등 교세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기복불교에 머물러 장·노년층만을 포교대상으로 간주하는 미주 한인사찰들과 다르게 미주 한인교회는 한글학교 개설로 젊은 층에 한국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다양한 사교·교육 프로그램을 장년층을 위해 운영한다. 또 각종 문화강좌들을 노년층을 위해 개설하고 있다"며 "한인 1.5세와 2세들이 다양한 활동을 위해 교회에 갈 수 밖에 없는 미주 한국종교 현실은 한국불교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부산지역에서 영어·음악 수업을 비롯해 학부모 교육 콘텐츠 개발, 주말가족농장 운영 등에 앞장서고 있는 심산 스님(흥법사 주지)도 "불교가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할 것을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키면서도 내부에서 뿌리 깊은 신행이 이어지는 불교가 되는 것이 불자 감소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라고 말했다. 노덕현·윤호섭 기자

謹賀新年
佛紀 2561年 丁酉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다.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주지 무여
문수선원.
불교대학.대학원
축서사바라밀 합창단
사부대중 일동
축서사 극락원
(수목장)자연과함께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장묘문화
■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번길
전화 054)672-7579

대한불교조계종
용 문
불교유물 전시관
주지 청안
사부대중 일동
예천용문사에는 국내 유일한 보물
대장전의윤장대와 목조삼존불이 있으며
대장전안에는 불교경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서 극락정토를 염하는 유일한
중요문화재이며 회전식 장경각이다.
성보박물관에는 탱화와 영정. 불상 등
많은 불교유물이 전시되어있다.
「사찰문화를 체험할수있는
템플스테이도 운영」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TEL 054)655-1010

영농법인 풍기정품인삼제조창
풍 삼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않고
만든 100ml×60포(한달분)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 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점 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
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청국장. 풍기홍삼편. 풍삼정홍삼환
홍삼먹은사과즙. 풍삼정쥬니어홍삼액
홍삼진액
■ TEL 054)636-2174
016-815-2174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주지 근일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TEL 054-633-3464

대한불교조계종
태화산
주지 도륜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안동시 태화동 서악길 67-14
TEL 054-852-9126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주 법산경일
이사장 이종헌
동산가족일동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TEL 02)732-1206 FAX 02)732-1207

지혜로운 여성 보살피는 사회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원장
이사장 노숙령(실상화)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1층 불교여성개발원육관
TEL 02)722-2101 FAX 02)722-2110

생활밀착형 '걸음마' … 희망은 있다

고민에 응답한 불교사례

현재 한국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대중의 삶에 밀접하게 접근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또한 높다. 분명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수준은 아니다. 곳곳에서 대중의 요구에 맞춰 여러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 삶에 불교계가 다가가 도움 주는 일들을 정리했다.

노덕현 ·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지난해 한마음과학원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부모 프로젝트'서 참가자들이 마음공부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장가 갈 수 있을까

장기간 지속된 경제불황으로 인해 혼인율은 나날이 감소하고, 만혼이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초혼 평균연령은 남성 33세, 여성 30.8세로 10년 전보다 2세가량 높아졌다. 무한경쟁사회서 생업에 치이며 이성을 만날 기회조차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결국 연애와 결혼을 바라지만 정작 어디서 누굴 만나야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졌다. 오죽하면 노래제목과 가사에 '장가 갈 수 있을까'라는 표현이 등장했을까.

이 같은 대중의 고민에 불교계는 '만남 템플스테이'를 기획했다. 2012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고양 흥국사가 함께 시작한 '산사의 싱글파티'가 대표적이다.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산사의 싱글파티는 총 20여 차례에 걸쳐 열렸다. 한 회에 남성과 여성 각각 10명이 참여한다.

반응은 뜨거웠다. '반드시 연애와 결혼에 성공하겠다'는 맹목적인 의도보다 젊은 미혼남녀들이 산사에서 건전한 만남을 할 수 있다는 데 호평이 쏟아졌다. 진솔한 인연 하나 맺기 어려운 현대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불자가 아닌 무종교인과 타종교인도 다수 참가하는 편이어서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1박2일간의 템플스테이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한 경우가 많았다. 정기적으로 만나 개인적인 속내를 털어놓거나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꾸준한 교류가 이어졌다.

이런 선사례는 최근 일선 사찰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구례 화엄사가 '싱글만남 템플스테이-싱글짝 커플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너와 나의 인드라망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맺기'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무언가를 하려 해도 혼자서 하기는 부담스럽고, 어색한 일도 많다. 그렇기에 공통 관심사를 가진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소모임 등에서 직장과는 다른 소속감을 얻기도 한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도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중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광명 금강정사 반려동물 천도재. 불교TV제공



거창의 (사)행복한마을 구성원들.

거창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미국 볼티모어 등에서 구성되고 있는 사회적 공동체 (사)행복한마을은 명상 · 생활 · 자족경제 · 사회적 기능을 아우른다. 절을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모여 살며, 함께 공양하고 자급자족 한다.

행복한마을은 경제적으로는 거창과 부산에 있는 채식점을 비롯해 천연염색업체, 명상센터 등을 운영하며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문화활동을 위한 해피코러스 합창단도 운영 중이다. 공동체에 걸맞게 개인생활공간이 주어지고, 앞으로 승려복지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또 구성원들이 매달 1만원씩 돈을 모아 쪽방촌이나 복지시설, 교도소 등에 후원하기도 한다. 구성원들은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 죽음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 든든하다. 함께 돕고 소통하는 생활이 곧 불교가 지향하는 삶"이라고 강조한다.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우리나라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의 증가다. 가구형태가 점차 소핵가족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농림축산부 2016년 현황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457만 가구에 달한다. 게다가 매년 10%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10년가량 정을 쌓아온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날 때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이런 고민에 도움을 주고자 불교계에서는 '반려동물 천도재'를 봉행한다. 무료부터 염가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 진행된다.

불교동물자비실천회 정광 스님은 반려동물의 주인들을 모아 한 장소에서 무료로 합동천도재를 봉행한다. 제상에는 고기 대신 사료와 과일, 개껌 등을 올리고, 스님은 1시간이 넘도록 경전을 독송한다. 여기에는 불자뿐만 아니라 무종교인도 다수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에 자리한 광명 금강정사도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2015년부터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일반 영가천도재와 다를 바 없이 생전에 반려동물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제상에 놓고, 경전을 독송한다. 또 반려동물과 얽힌 주인들의 애틋한 사연도 소개한다.

"엄마 먼저 마음공부 할게"

자본주의사회의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정서적 빈곤이 화두로 떠오른 요즘, 청소년 비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식들의 정신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에 한 사찰에서 개인공부를 목적으로 모인 엄마들이 아이들의 정서함양을 돕고자 먼저 마음공부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논의가 이어지자 사찰은 학부모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했다.

한마음선원은 2012년 학부모 프로젝트 '행복한 학부모를 위한 마음공부'를 기획, 연 1회 학부모 30여 명을 대상으로 자식을 대하는 부모로서의 마음공부를 교육하고 있다. 별도 제작한 교재와 함께 7주간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성장과정에 함께하는 부모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지혜롭게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각자 집에서 "엄마가 변했다"고 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덕분에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마음공부 심화과정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진다고. 게다가 몇몇 초등학교서 교육요청을 받아 학부모들에게 마음공부 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웃나라 불교계는

최초 유치원 · 라디오TV 등 사회 선도

대만불교는 중국 문화혁명 당시 남쪽으로 내려온 중국 스님들에 의해 형성됐고, 일제 치하와 건국, 그리고 미군정 등 우리나라와 근현대사가 비슷하지만 현재 불교 교세는 확연히 차이난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중의 '환희심'에 있다. 대만불교는 승가활동의 주요덕목 중에 대중의 환희심을 포함하고 있다. 승가의 철저한 지계와 교육, 투명한 운영 등과 함께 다양한 불교 전법에 환희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통해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교육기관의 출재가 합동교육과 출가를 들 수 있다. 대만 불광산사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학원에서 출재가가 함께 공부한다. '스님이 환속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다. 승가의 철저한 자세를 보며 환희심을 낸 재가불자들이 출가하는 경우가 90%에 달한다. 출가하지 않더라도 사회 각 분야에서 환희심을 바탕으로 전법사로 활동한다.

불광산사는 문화와 접목한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 출판, 방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개발해 1960년대부터 최초의 유치원, 최초의 라디오TV, 최초의 셔틀버스 운영을 비롯해 고아원과 양로원, 무료의료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각지에서 사회교육사업도 벌여 200여 분원과 함께 대만 불광대, 남화대, 미국 서래대 등 3개 대학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자제공덕회의 경우 자원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 문화, 국제구호, 골수기증, 환경보전 등에 앞장서고 있다.

장례 · 교육 앞세워 생활화

일본의 경우도 불교가 최대 종교로 사회 전반에 아직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화된 종교가 유입됐지만 아직 불교가 교세를 생생히 유지하는 원동력은 바로 생활형 종교로의 변모였다.

특히 장례만큼은 절에서 지낸다는 일본인 특유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일본사찰에는 사원 내 많은 묘지가 있으며 신도는 자기가 다니는 사원에 선조대대의 묘지를 갖고 있다. 신도의 집안제사는 절 또는 집에서 지내는데 어떤 방식에서라도 반드시 스님의 염불의식 절차가 수반된다. 일본 고유 신의 신봉사상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사찰에 불도로서 소속되는 '단카(檀家)'가 발달했다.

일본불교의 사회진출 중 종파의 구별 없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교육사업이다. 대학 · 중 · 고등학교 경영 외에도 아무리 작은 사찰도 유치원 · 보육원을 경영하고 있다. 이것이 영리를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불교를 생활 속에서 가르치며 사회지식과 불교를 밀접히 생활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일본사찰에서는 한국불교와 같이 매주 설법회가 열리지만 대부분이 강의로 진행된다. 또 유치원에서 청소년 · 청년 · 중년 · 노인팀이 구성돼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사원에 들러서 저녁예불을 마치고 가는 신앙의 방법도 행해지고 있다.

종립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불교를 배우고 있으며 부가적인 직업으로 교육직을 택하는 스님들도 많다.

대한불교 총화종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종정 전남정

부 종 정 이남은. 최만재 총무원장 김혜각

종회의장 백만우 종회부의장 정경옹 교 육 원 장 김법만 호계원장 이만오
감찰원장 김혜암 포 교 원 장 김기태 문 화 원 장 이지수 선 원 장 신본원 복지원장 김지산

사회부장 성조향 호법부장 박지광 재무부장 김지오 교무부장 윤해원 감찰부장 김정산
조사부장 김지현 문화부장 양혜원

서울북종무원장 이혜인 경기동,남종무원장 김법만 경기서종무원장 김혜암
대 전 종 무 원 장 김해송 울 산 종 무 원 장 백만우 강원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경남동종무원장 이광덕 경남서종무원장 김월광 부 산 종 무 원 장 박지광
전남,광주종무원장 김현산 제 주 종 무 원 장 김청해 강원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유 발 승 회 장 이지수 유 발 승 총 무 전지명

외 임원 및 종도 일동

신 년 사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부처님 가피가 온 세상에!

정유년(丁酉年)은 작계 쌍춘년 이랍니다. 새해에는 부처님 가피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입춘이 두번씩이나 있어서 천지조화가 예사롭지 않는 해라고 합니다. 저희 총화종 종단은 더욱 화합속에서 총화단결하여 종단발전과 종도들에 원하는 일들이 원만 성취되도록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거듭 간절(懇切)히 원을 드립시다. 종도 모두는 일심으로 국가 안녕과 종단을 위해 함께 기원하고 부처님 가피가 온 세상과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한해가 되도록 함께 기원합시다.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93번지 2층
전화 02)743-0066, 8338 / 팩스 02)743-8448
www.chonghwajong.or



"사회 소소한 현상에 답하라"

성진 스님 조계종 포교국장



"공공성·불자 주체성 확보가 관건"

명법 스님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대중의 괴로움부터 이해하자"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설법부터 일반 삶에 와 닿아야"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



"불교 외 교육의 장 확대해야"

고길석 불광교육원 학장

방법론 이전에 중생 고민 이해가 우선

한국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생활밀착형이지 못하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현상 전반에 대해 불교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최근 국정농단으로 불거진 탄핵문제나 촛불시위 등과 관련해 부처님 말씀으로 대중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탐·진·치를 버리라'는 아주 1차원적인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최측근이었던 아난존자가 어떤 자세로 부처님을 모셨는지를 따져보면 흔히 '문고리 3인방'이라는 문제에도 불교적 입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문제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존엄사법 논란 등 일반사회에 흔히 나타나는 일들에도 적극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가 절에서 기도를 올릴 때 단순히 좋은 대학 가길 기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옆에서 묵묵히 동행해주는 동반자라는 걸 일깨워주듯 말이죠.

대만 불광산사에서 '술집 여종업원을 위한 발원문' '군대 간 아들을 둔 어머니를 위한 발원문' 등을 보고 감명받은 일이 있습니다.

한국불교는 '세속적이다'는 이유로 어떤 현상에 입장을 나타내지 않지만 정작 수많은 불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겪으며 번뇌하고 괴로워합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세간이라고 세간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듯 고뇌하는 대중에 성실히 응답한다면 그 이후의 방법론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종교가 사람들에게 생활밀착형이 되기 위해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생활밀착형에만 집착해 불교적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되겠죠. 생활밀착형 종교는 사회적으로 공적인 가치를 지닐 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 여러 불교가 산재해 있지만 대부분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탈핵과 같은 전 세계적인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죠. 미국 1세대 선 수행자인 버니 글래스맨이 뉴욕에서 빵집을 운영하며 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거나 불교신행단체 '부디스트 인사이트'의 길거리 명상인 '스트릿 리트릿(street retreat)'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도권이 아닌 비제도권, 즉 풀뿌리로부터 전개됐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불교는 '기복'이 생활밀착형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자들이 '기도는 절에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죠. 이렇게 많은 걸 절에 맡기면서 스님과 재가자의 관계가 무주상보시가 아닌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로 변질돼 사찰 격을 떨어트렸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시끄러워 눈살 찌푸려진다고 하겠지만 정작 불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병석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병문안 간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간단한 기도문부터 마련해 불자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런 움직임은 개별사찰들로부터 전개돼야 합니다.

이고득락(離苦得樂)·발고여락(拔苦與樂)이라고 하죠.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주는 일, 즉 불교는 어느 시대든 민중의 괴로움을 해결해주는 쪽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아나타삔디까와 위사카 장자 등 부호불자들이 오늘날의 사회복지활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는 늘 앞장서 왔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불교는 전통적인 포교문화에 습합돼 벗어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본불교를 상업화라고 지적하지만 이는 대중의 요구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 일제강점기 50년을 겪은 대만불교가 발 빠르게 사회문제를 풀어나가 위상을 갖췄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결국 직면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나서는 것이 기존 신도를 넘어서서 저변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현재 한국불교가 생활밀착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중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겪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권 종교가 수많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중이 원하는 주제의 공모전을 열고, 해결책을 모색해 지원하는 형태로 말이죠. 여기에는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재가불자들이 늘어나 승가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생활 속 불교가 되기 위해 이념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불교는 다양한 전법과 설법 기술교육을 간과하여 우리들 생활의 이해 폭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슴에 와 닿으며, 의미가 있고 이득을 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교계 현실을 돌아보면 공감할 만한 설법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불교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설법을 청자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간환경과 현실사회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설법 내용에는 불교와 불교 외 가르침, 그리고 과학과 상식, 시청각 자료 등을 두루 포괄하는 것이 담겨야 하죠. 설법 방법으로도 대상에 맞는 맞춤형 설법, 함께하는 설법, 즉설법문, 문답형 법문, 보여주는 법문, 공감하는 법문, 찾아가는 설법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인에 맞게 생애주기별, 직능별 설법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불교계가 갖고 있는 이런 설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설법학 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활법문자료와 생활법문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나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포교방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1대1 전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1대1 상담과 신행지도 강화. 전법사의 생활밀착 교육 강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 불교의 실천활동 사례를 만들어 내고 시스템화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스님, 포교사, 핵심신도, 불자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불자 한명 한명이 소중하다는 의지를 갖고 정성을 다한다면 불교에도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 결정을 하고 행동합니다. 물질적 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이익까지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욕구가 있고, 이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불교는 개개인의 욕구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교계의 문제점을 돌아보면 가장 먼저 불교 가르침과 실천행이 생활과 괴리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지닌 여러 문제점에 대해 불교가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생활과의 밀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포교전략과제로 꼽힙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서 불교가 신뢰를 잃은 한 원인인 기복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활동을 전제로 교육 등의 분야에서 불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방안 중 하나로,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후 은퇴를 한 분들이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를 사찰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맞춘 강좌를 개설하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익힌 지식들을 펼 수 있게끔, 강단에 서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들도 불교가 생활밀착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합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계발하고, 지혜를 닦고 그것을 먼저 가정에 적용해야 합니다.그렇게 스스로를 다지고 수행과 봉사를 통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대상으로 넓혀가며 바라밀행,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덕현·윤호섭 기자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수행승이여!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라

붓다선 지도자 1급 자격증 수강안내

우리는 정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청정승가를 위해
고따마 태자가 샤카무니를 완성한 정통수행법 "붓다선"을
전법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수행자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 수강일정 : 4개월(매주 화요일 오후 2 ~ 5시. 1월 10일부터 강의 시작함)
- 수강과목 : 앗딴누수행(쌍깝빠. 와짜. 깜만따. 아지와. 아누맛자명상)
  : 싸마타수행(아나빠나싸띠. 와야마명상)
  : 위빳싸나수행(까야. 웨다나. 찟따. 담마명상)
  : 아리야쌋짜수행(둑카. 싸무다야. 니로다. 막가명상)
  : 위뭇띠수행(9차제정명상) ※수강료는 무료. 선착순 25명 모집
- 강의장소 : 견불선원(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40-1)
- 전 화 : 070-7717-2276

세계승가회

승왕 뿐냐싼또

총재 수밋다 회장 수완나 대장로 현지
비서장 싯달라 예경실장 설원
문화국장 도원 복지국장 능공
연수국장 태현 상담국장 초원
포교국장 여원 국협국장 아미따

세계승가회 붓다선 전법관 (www.worldsangha.org)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40-1 (태평동) 2층 (070-7717-2276)

謹賀新年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A15

고뇌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법구경)

福

丁酉年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동종** 전종도 일동

■ 총무원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5길 103(상계동) 도선사 / 전화 02)2091-0408

(사) 대한불교염불종

종 정 월담성인

종회의장 혜안 성묵
원로의장 무초 정락
총무원장 만공 호조



미국종무원장 용월 도황　경기종무원장 호암 대인　경북종무원장 성묵
포교원장 수미 길상　문화원장 정견　사서실장 조능
교육원장 조해　호법원장 조구

총무부장 조반　호법부장 조관　기획부장 조초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길 5 화엄사
전화 043)652-0331 팩스 043)653-0332

(사)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해광 대종사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성해　원로원장 효덕　교육원장 해인
포교원장 도선　예술문화원장 원욱　비구니원장 정철

각지역 종무원장 및 종회의원

**법인. 성문. 법진. 고암. 성광. 혜원. 시광. 현광. 광운.해초. 해원.
자은. 덕행. 자은. 덕행. 상락. 해일. 청정. 혜선. 명진.무명. 정봉.
묵현. 해광. 원각. 법연. 고암. 진국. 삼관. 농해. 수월.자명. 수경.
연담. 도헌. 성수. 진광. 도관. 진각. 우하. 대산. 진오.대현. 종진.
진허. 혜연. 정관. 화림. 승주. 도연. 연화. 도영. 지한.단운. 혜명.
여의주. 대덕화. 보리심. 천모성월. 길상화. 미서경**

적극적으로 입종을 환영하고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종도일동 ·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 총무부장 **법연** 010-7122-1369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 정 법호 서호

부종정 법두 수암

승정원장 법상 심곡
원로원장 법두 수암
총무원장 법웅 정관

포교원장 법봉　교육원장 해진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총무부장 원도　총무국장 무경
사회부장 정광　사회국장 월행　교육부장 심공

부산교구종무원장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에 입종하실 종도님을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 전 화 : 055)532-4414 / HP 010-3507-2837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혜승

부 종 정 인 봉

승정원장 향운　승 정 혜공,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산, 명재, 해불

총무원장 지민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천장
총무부원장 혜관
총무부장 성우　교무부장 정현
재무부장 중화　규정부장 해륜　사회부장 송광

사정원장 명산
포교원장 명재　포교부원장 보명
문화원장 지향　문화부원장 지학
수선원장 지화　수선부원장 성덕
기획원장 성각
교육원장 남륜

서울경기종무원장 보명　충남종무원장 지향
충북종무원장 지허　경남울산종무원장 해산
전라남북종무원장 명재　대구경북종무원장 어산

중앙종회
종회의원 명재 보명 일선 지향 성현 성각 일천 정연 어산 보광 지화 지연 자원 성우 성덕 혜인 근혜 천장 해불 묘현

종도일동

■ 총무원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773-66 / 전화 043)878-0109 / FAX 043)878-0103

(재)한국불교여래종

종 정 석만덕

부종정 석 법 수

원로원장 석능엄　종회의장 석월명
총무원장 석명안

포교부원장 석도혜　호법부원장 석성현　종찰부원장 석혜안
총무부장 석법성　재무부장 석혜광　교육부장 석법혜
복지부장 이순이　범패단장 석일공

여래실상연구원장 김용표(동국대명예교수)
인왕문도회장 성현　비구니회장 묘선　문도회간사 묘각

■ 총무원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금강휴게서 강건너)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지도자, 백척간두서도 전진 필요” … 세상 시름 싹 날린 禪僧의 사자후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지난해는 유난히 다사다난 했다. 북한의 핵실험, 한미 사드배치 갈등, 경주 대지진 등 큰 사건들로 넘쳐 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은 공항 상태가 됐다. 이는 결국 블랙홀이 돼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렀다. 경제도 더욱 힘들어졌다. 온통 악재들이 양수겹장으로 터지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제 다시 밝아온 2017년 정유년 새 아침에는 그 수습의 가닥이 잡힐까? 그리고 선지식들은 그 해법을 알고 계실까?

1956년 15세에 출가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선수행으로 일관한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은 스스로 참선 수행의 오묘한 이치를 체득, 1986년 제석사 옛 절터에 선원을 창건해 후학 양성에 매진 중이다. 특히 오등선원은 전국 제방 선원서 유일하게 한 철 100일 동안 용맹정진하는 수행처로 유명하다. 새해를 1주일 앞둔 구랍 26일 대원 스님이 주석하시는 오등선원을 찾아가 승풍 진작과 국가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김주일 부장

간화선 수행에 대해

▲나날이 갈수록 출가자수 감소와 탈종교 현상으로 한국불교도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한 수행 정진을 당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등선원은 전국서 드물게 100일 용맹정진을 하는 철저한 수행 도량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심에는 대원 큰스님의 승풍 진작을 향한 큰 원이 서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004년부터 근 12년 동안 이렇게 스파르타식 용맹 정진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신지요?

- 도솔천에 호명보살이 3·7일 용맹정진하고 난 뒤, 미륵 부처님보다 42겁이 뒤떨어진 수행력이 용맹정진을 통해서 42겁을 더 뛰어나 앞서게 되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려 이 중생처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가는데 쉬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과 쉬어가면서 놀면서 가는 사람 중 누가 먼저 서울에 도달하겠습니까? 정진하시는 스님들 중에는 상당한 경지를 맛본 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인정하지 않고, 확철대오하여 부처님과 조사 스님처럼 완벽한 대각이 이뤄질 때까지 꾸준히 정진합니다. 용맹 정진을 통해서만이 많은 진전과 성과가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즘 웬만한 교구본사 급 선원서도 안거 인원이 20명을 넘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등선원은 다른 선원보다 고강도 수행을 요하는데도 방부를 들이는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진짜배기 공부를 하고 싶은 수행자들의 열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배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려서 확철대오하여 계합하는데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은 철벽처럼 잡념이 스며들지 않게 큰 의심으로 철저하게 화두를 참구하셔야 됩니다. 순일무잡(純一無雜)한 의심이 독로해야 됩니다.

간화선은 닦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간화선은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리는데 의미가 있지요. 결국 선의 요체는 말하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간화선은 말로 함축된 일구를 던지는 것인데 이는 말 속의 의미를 바로 바라보는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면 지혜가 높아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진짜배기 공부이지요.

▲언젠가 법문하시면서 “수행자에겐 아무리 짧은 잠이라도 허송세월이며, 수마를 조복 받고 나면 오히려 공부가 쉬워지고 자신감도 생긴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수좌로서의 철저함이 묻어나는 가르침이신데, 이에 덧붙여 평소 후학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 수마도 눈을 부릅뜨고 끊으려 노력한다면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차리겠다는 그리고 깨닫겠다는 용맹스런 마음입니다. 백척간두의 천길 벼랑서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백과 하늘땅을 밟고 홀로 뛰어 오르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행과 용심처를 둘로 보지 마시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등선원에서는 수행자들을 수시로 점검하며 공부 상태도 일러주고 또한 많은 선원서 사라진 법거량 전통을 활성화시킨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법거량은 번거롭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저희가 당대의 선지식들에게서 가르침을 배울 때는 반드시 법거량을 통해 그동안의 공부를 점검 받았습니다. 법거량은 큰 의심과 분심을 촉발하게 되고,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등선원에서는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수행자엔 짧은 잠이라도 허송세월
오등선원 1백일 용맹정진 재결사 의미
“간화선은 바로 보고 알아차리는 것”
스승들에게 돈·명예 멀리하라 배워

▲조계종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은 공부 단계가 단시일 내에 직접 나타나지 않아 일반인들에게 어렵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위빠사나를 비롯해 기타 수행법이 일반인들에게 호응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선 강원랜드에서는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참선법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간화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관법(觀法)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육폐(六弊), 즉 간탐(慳貪)·파계(破戒)·진에(瞋恚)·해태(懈怠)·산란(散亂)·우치(愚癡) 및 오욕, 재욕, 색욕, 식욕 등의 병이 있는데, 이것을 번뇌망상(煩惱妄想)이라 합니다. 이 병이 가로놓여 대각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우니 먼저 이를 제거한 다음에 큰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는 공부, 즉 관법을 하는 것이 관법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쉬게 돼 편안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뛰쳐나와 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버리기가 참으로 어려워 대각의 깨달음으로 진전되기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고요하고 편안한데 머무른 이 마음을 버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써야 하는데 이것도 오랫동안 수련 관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각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근기 미약한 중생에게 응병여약(應病與藥)으로 방편선을 가르친 것입니다. 간화선은 관법과 달리 일구(一句)로 번뇌망상을 단박에 잘라서 본래 진면목을 바로 가르쳐 언하에 깨닫게 해 마치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無”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중생은 언어도단(言語道斷), 앞뒤 생각이 끊어지고 중생의 분별의식이 통하지 않는 데까지 도달하게 해서 조주 스님의 ‘無字’ 의지를 바로 통해 깨닫는 동시에 자신의 진면목을 요달(了達)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법으로는 단박에 앞뒤 생각이 딱 끊어지게 하고 깨달음의 차원까지 하려면 몇 생을 해도 어렵습니다. 관법은 많은 시간을 요하고 간화 화두선은 돈오돈수로 빨리 해결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시대, 빨리 이루고자 하는 이 시대에 간화선이 적합한 이유이지요.

▲큰 스님께서는 재가자를 위한 시민선원도 열어 재가자 수행 진작을 위해서도 힘쓰고 계신데, 그동안 성과와 효과는 어떤 것이고, 재가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요?

- 큰 성과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자신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가정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보다 높은 의식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공부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핵심은 수행을 통해 바로 자신의 진면목, 참나를 보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마치고 돌아간 재가자들이 감사의 인사를 많이 전합니다.

스승과의 수행담

▲대원 큰스님께서는 반세기동안 상원사, 동화사, 봉암사, 해인사, 불국사 등 제방선원서 정진하시며 평생 존경받는 수좌로서 살아오셨으며, 효봉·경봉·전강·향곡·성철·월산 스님 등 당대 내로라하는 선지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는데, 그 많은 향훈 중 지금까지도 가슴에 간직하고 계시는 가르침이 있으시다면요?

- 큰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돈, 여자, 명예를 멀리하고 열심히 정진해 확철대오하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처럼 행을 하여 자비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생들을 구하고 어리석고 미혹한 중생을 교화해 깨닫게 하는 것이 부처님께 시주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항상 마음 속에 간직하며, 후학들에게 역시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 악 산 금 산 사
근하신년
생명평화기원 금산사 5층석탑(보물제25호) 사리친견법회
● 사리 : 석가여래사리 5과, 정광여래사리 2과
● 기간 : 2017년 1월 29일(일) ~ 5월 3일(수)
● 장소 : 금산사 대적광전

석가여래사리

정광여래사리
조 실 태 공 월 주
회 주 금 산 도 영
주 지 자 산 성 우
신도회장 청광 김백호 외 사부대중 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전화 063)548-4440~2,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 www.geumsansa.org
이 메 일 : geumsansa@hanmail.net

새해새날 가내광명 온 누리에
강학과 수선, 문화와 복지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 지 경 우
사부대중 일동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4교구 승려노후 수행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
선운사 성 보 박 물 관
백 파 사 상 연 구 소
고창군 종 합 사 회 복 지 관
고창군 노 인 복 지 관
고창군 푸 드 마 켓
선 운 기 초 푸 드 뱅 크
고창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고창군 육아 종합지원센터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 http://www.seonunsa.org

▲어느 법회 때 청담 큰스님에 대한 존경과 가르침을 피력하신 일이 기억납니다. 출가사찰인 상주 남장사와 수행 성지인 문경 봉암사 등에서 몇 차례 친견하시며 가르침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말씀 좀 들려주시지요?

- 청담 큰스님에겐 친견 당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법력을 느꼈습니다. 절 삼배 올리고 앉으니 "이 문중은 수행자가 밥 먹을 자격이 있지, 살아도 수행하는 비구가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절대 대처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또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일대사를 잘 해결하고 중생을 제도해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하시면서 그러려면 우선 돈과 명예를 멀리해야 하고, 특히 시주물건 즉 삼보정재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용성 대종사와 고암 대종사의 법맥을 이으셨는데요, 두 대종사의 큰 가르침 중 지금도 가슴에 새겨진 것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 용성 조사님께서는 선 · 교 · 율 및 계 · 정 · 혜가 원만 구족하셨으며 직지인심, 견성성불하시고 대각교를 세우셨고,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힘쓰다 감옥에 가셔서도 중생을 위해 대자비심으로 부처님 경전을 번역하신 것이 가슴을 울립니다. 고암 큰스님께서는 용성 조사님의 법을 이으셨고 역시 직지인심, 견성성불하셔서 선과 교와 율, 자비를 실천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고암 큰스님께서는 목전서 바로 척척 해결하는 번쩍하는 지혜의 눈을 떠야만 된다고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큰스님의 학산이란 당호는 고암 대종사에게 전법게와 함께 받으신 걸로 아는데, 공부를 점검받고 인정 받은 과정에 대해서 생생히 좀 들려주세요.

- 1973년도 해인총림 방장 고암 조사님께 참배하니 방장스님께서 "아직도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화두 참구하는가? 아직 해결이 안 됐으면 내말을 들어보시게. 잣나무 꼭대기서 한 걸음 나아갔을 때를 당하여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하시는 말씀에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박장대소 했지요. 그러자 고암 스님께서 말하시길 "무슨 기특한 일이 있기에 그렇게 웃는가? 속히 일러라" 하시자 제가 답하길 "한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고암 조사님께서 다시 "아니다. 다시 말해보라" 하니 제가 삼배 올리고 기립차수해 말하기를 "설사 천언만구를 다이른다 해도 이 속에 있어서 상신실명(喪身失命)을 면치 못합니다" 하고 문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앉았지요. 고암 스님께서 다시 물으시길 "남



전 스님께서 고양이 목을 자를 때 그 당시 그대가 있었다면 남전 스님께 뭐라 했겠는가?"라고 하시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또 하문하시길 마조 원상에 대해서 말하셨습니다. "원상 안에 들어가도 삼십봉, 나가도 삼십봉이니 일러 보시게"라고요. 제가 깔고 앉은 좌복을 머리에 이고 서서 "이것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하고 되물으니 "아니야" 하시면서 스님께서 주장자로 저를 치려고 하시는 찰나에 좌복을 스님 머리 위에 던지고 문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들어와 앉으니 고암 스님께서 조주 스님이 신짝을 머리에 이고 나간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하기를 "옥씨성평토(玉氏成平土)하니 김씨건고루(金氏建高樓)입니다. 즉 옥씨가 땅을 평평하게 하고 김 씨가 평평하게 한 자리에 높은 누각을 지었습니다"하니 고암 스님께서 눈푸른 납자는 속이기 어렵다며 1700공안을 두루 묻기에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이에 오도송 일구를 가져오라 하셔서 즉시 오도송을 지어 바쳤습니다.

忽聞栢頭手放語 廓然銷覺疑團處
明月獨露淸風新 凜凜闊步毘盧頂

홀연히 잣나무 꼭대기서 손 놓고
한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
확연히 의심덩어리 녹아 깨달았네/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새로운데/
늠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로다

고암스님께서 이를 보시고 흔연히 입실을 허락한 뒤 학산(鶴山)이라는 법호와 다음의 전법게를 내리셨습니다.

佛祖傳心法 不識又不會
趙州茶一味 南泉月正明

불조가 전한 심법은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도 못함이라
조주의 차맛이 일미이리니
남전의 달이 정히 밝도다

▲올해 2017년이 봉암사 결사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불교신문사도 신년 특집 주제를 '결사 정신'으로 기획했습니다. 한국불교 승풍 진작을 위한 결사 정신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요.

- 봉암사 결사는 조계종을 새롭게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번 결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할 결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학림사에는 100일 용맹정진을 꾸준히 시행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리더의 조건은

▲지난해 해인총림 방장에 이어 올해 조계종 종정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셨는데, 그만큼 종단 내에서 수행력과 지도력을 인정받으셨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종단의 최고 지위인 대종사 법계도 품서하셨는데요. 지금 나라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지도력과 리더십 부재서 비롯된 것인데, 종교단체를 비롯해 각 분야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정치인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즉 몸을 닦고 집안을 정제한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인 공도부사 무주봉사 창조(政治人 公道不私 無住奉事 創造), 즉 정치인은 공평하고 바른 길을 사사로이 쓰지 말고, 집착, 욕심 없이 봉사하고 크게 창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돼서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또한 종교인과 성직자는 세속의 모든 사람에게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복과 덕과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각 분야 리더들이 꼭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지난해 10월 동화사 간화선 법회서 '지금 시대 상황과도 맞물린 '백척간두서 한걸음 나아가야 시방세계에 전체 몸이 몽땅 드러난다'고 말하신 걸로 아는데 불교계 원로로서 현 국가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에서는 폭력과 구속,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알아서 모든 질서와 화합을 이루고, 난국을 지혜롭게 무리 없이 해결하고 하나된 힘을 세계에 보이는 성숙한 높은 차원의 '의식'이 바탕되어야 합니다. 문명화 된 문화 국민은 양극화 투쟁서 벗어나 잘 알아서 화합의 지혜를 운용하고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정착시키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만 관철하기 위해 밖으로 피켓이나 플래카드를 들고 나가 양극화 투쟁시비를 표출하는 것은 사회가 더 혼란스럽고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숙하고 몽매한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닌 하등국민의 모습이고 결국 사회는 구속과 억압된 독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백척간두서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나아가면 바로 보는 지혜의 눈이 열려 모든 것이 해결되고 천하가 태평할 것입니다. 백성, 국민은 두 가지 시비에 치우치지 말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 수습의 길이 보이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납니다. 각자 나를 바로 보면 세상도 바로 보는 눈이 열려 속지 않고 멋진 화합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2017년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거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80프로 이상이 직선제를 원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 직선제 선거는 종교계, 특히 우리 한국 불교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미, 사미니에게까지 가서 절을 하고 한 표 부탁하는 선거운동 풍토가 생기면 종단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재정부담도 많아지므로 결국 망합니다. 저는 생각해봤는데 선원대표, 강원대표, 율원대표, 각 교구본사 대표, 종회 대표, 총무원 대표, 원로 대표가 훌륭한 덕망과 안목이 있으며 理 · 事를 갖춘 3인을 추천, 점검해 중앙종회와 원로회의서 한 사람을 추대하면 마지막에 종정 스님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총무원장 연령 하한선 규정, 즉 '61세 이상'이라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교 지도자는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정말 보기 드물게 국가적으로도 다사다난 했는데 올 정유년 불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덕담과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종단도 새롭게 발전해야 되고 불자나 온 국민이 의식을 드높이고 하나 된 힘을 응집하여, 새로운 문화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전하는 화합의 모습을 만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부대중이 각각 선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물을 배출하는 인재 불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사가 올 한 해 원만히 성취되기를 발원합니다.



■ 대원 스님은? 1942년 경북 상주서 출생했다. 1956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해 1958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2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6~1986년 당대 선지식인 효봉, 금오, 고암, 전강, 경봉, 성철 스님 등을 참방했으며, 40여년 간 정진 수행을 했다. 이어 대원 스님은 일제시대 한국 불교 중흥에 평생을 바친 용성(1864~1940) 스님과 조계종 3 · 4 · 6대 종정을 지낸 고암(1899~1988) 스님의 법맥을 전수받았다.

1986년에는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창건했으며, 1995년에는 오등선원을 개원하고 조실로 추대됐다. 2001년엔 오등시민선원 개원, 선(禪)의 대중화에 진력했다. 2010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다. 2014년에는 종단의 최고 지위인 대종사 법계를 품서했으며, 현재는 조계종 원로의원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로 주석하며 간화선 대중화에 진력 중이다.

■ 학림사 오등시민선원은?

충남 공주 계룡산에 위치한 학림사 오등선원은 100일 용맹정진으로 유명한 곳이다. 대원 스님이 지난 1986년 개원한 오등선원은 참선 대중화를 위해 2001년부터 재가자를 위한 시민선방도 문을 열었다. 이번 동안거 때도 재가자 100여명이 용맹 정진중이다.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1일참선, 3일 참선, 한 달 참선, 하안거와 동안거 수행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주말참선 프로그램은 전국서 찾아올 정도로 인기다. 주말 철야정진은 대원 스님의 특강으로 시작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진행된다. 45분 참선, 15분 포행 등의 형식을 5차례 반복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떤 인연

어떤 인연 하나 옮겨 와야겠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까마득한 전전생(前前生)의 급장선거 이야기다.

1학년 때는 급장 희망자 중 목소리가 가장 우렁차 담임선생님 선택으로 급장이 되었다. 2·3학년 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소감 발표도 한 후 급우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급장이었다. 그러나 4학년 때의 급장 선거에서는 몇 표 차이로 떨어지게 된다. 방앗간집의 종철이에게 학급대표인 급장 자리를 넘기게 된다. 사연은 간단치 않지만 줄여 옮기면 다음과 같다.

우리 반 여학생 중에 '길자'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또래에 비해 키가 크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다. 하얀 운동화를 즐겨 신을 만큼 집안 형편도 넉넉한 우체국장 집 아이였다. 그 아이는 덧니를 두 개나 달고 있었는데 심술단지인 나는 급장이면서도 품위를 잃고 칠판에 '쌍 뻐드렁니 드라큘라'라고 큰 글자로 써버렸다.

어느 날 체육시간에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는데 치켜 올라간 속옷 사이로 나의 볼록 솟아 있는 배꼽이 길자의 눈에 발각 되었던 것이다. 돌아온 교실의 칠판에 '똥배꼽, 똥고집, 똥반장은 물러나라'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 있었다. '길자 년'의 짓이었다. 하여, 쌍 뻐드렁니는 은밀하게 반란표를 모아 똥배꼽에게 처절한 아픔을 안겨준다. 덧니를 뻐드렁니로 그것도 쌍 뻐드렁니로 부른 게 애당초 잘못이었다.

편지봉투 안에는 5만원짜리 지폐 두 장이 담겨 있었고 편지 겉봉투에 쓰인 글씨도 할머니 필체로 설레는 호흡처럼 고르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으며 마음이 잠시 먹먹했지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짝사랑한 사람은 또래의 여학생이 아닌 예배당의 주일학교 여선생님과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 '문희'라는 여배우였는데요. 아무튼 어린 시절, 여자아이들 이름을 글에 옮길 땐 고운 말, 예쁜 말만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은경인지, 광숙인지, 길자인지, 또 다른 딸 아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2014년 2월 3일 블로그에 올린 글)

2016년 동지 다음 날에 사자암에는 눈발이 세찬 바람과 함께 날리고 있었다. 40대 초반의 부부가 찾아왔다. 그들은 가톨릭 신자라고 밝히며 찾아온 경위를 설명했다. 그들 부부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나의 글에 가끔씩 등장하는 쌍 뻐드렁니 길자의 딸과 사위였다.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2달이 되어 갑니다. 가톨릭에서도 49재를 지내고 있어 49재를 마친 후 차일피일 미루던 일을 오늘에야 사자암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로 동네 마트를 운영하며 힘겹게 저희 3남매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유일한 즐거움은 스님이 펴낸 책 속에서 초등학교 시절의 '길자'라는 이름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쌍 뻐드렁니라 놀리셨지만 어머니의 첫사랑은 스님이셨다며 수줍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니는 위암 수술 후 회복기에 사자암에 다녀갔었고 스님을 차마 만날 용기가 없어 먼발치에서 뒷모습만 보고 내려오셨답니다. 스님의 시(詩) '내 죽거든'은 어머님이 즐겨 외우는 어머니의 노래가 된 시입니다. 위암 수술한 곳이 재발해 병원에 입원하실 것을 권유해도 어머님은 '내 죽거든'을 저희들에게 읽어달라며 시에 담긴 내용처럼 어머니의 사후(死後)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한동안 가슴이 짜릿짜릿 아파왔다. '길자 년'이 '길자 님'으로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다. 쌍 뻐드렁니가 떠난 그 길, 똥배꼽도 머잖아 떠나가겠지만.

쌍 뻐드렁니에게 던진 口業과 因果
인생 말미, 선근 인연으로 남았네

"갑오년(2014) 정월 초이튿날, 사자암의 대웅전 불전함에는 하얀 편지봉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수줍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용주님, 향봉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소꿉장난 시절의 이용주로 부르고 싶네요. 유년시절부터 할머니 나이에 이르기까지 좋은 짝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온, 차마 이름은 밝힐 수 없으나 스님의 글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초등학교 시절의 같은 반 친구입니다. 백 번, 천 번쯤 용기를 내어 찾아왔으나 먼발치서 스님을 봤을 뿐,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우렁찬 목소리만 가슴에 담고 돌아갑니다.'

염화미소가 가리킨 바는 없다



지안 스님의 〈선화禪話의 향기〉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연꽃을 드니 빙그레 웃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가섭존자 사이에 있었던 일화에서 나온 말 중 염화미소(拈花微笑)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부처님이 모여 있는 대중 앞에서 설법을 하시려다 말씀을 하시지 않고 연꽃을 한 송이 들어 보이셨다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던 대중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유독 가섭이 홀로 빙그레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섭의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본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내게 바른 법을 꿰뚫어 보는 눈, 열반의 현묘한 마음, 겉모습을 벗어난 진실한 모습, 미묘한 법문이 있다.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교설 밖으로 별도로 전하니 이것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吾有正法眼藏 涅槃妙心 實相無相 微妙法門 不立文字 敎外別傳 付囑摩訶 訶迦葉)

이 말은 경전 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종(禪宗)의 사서(史書)인 〈연등회요(聯燈會要)〉 1권에 수록되어 있다. 물론 경전의 이름을 띠고 있는 문헌에도 나오는 곳이 한 곳 있다. 〈대범천왕문불결의경〉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초회부촉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범천왕문불결의경〉은 중국에서 찬술된 경으로 역자와 번역한 때가 밝혀져 있지 않다.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여 의심을 해결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경명이지만 내용면에서 중국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선종사서를 대표하는 〈경덕전등록〉이 나온 후인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이다. 그 이유로는 선종사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덕전등록〉 이전에는 염화미소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 또한 정법안장이나 열반묘심이라는 말도 〈전등록〉에서 처음 쓰인 말이다. 이런 점에서 〈대범천왕문불결의경〉을 〈전등록〉 이후에 만들어진 위경(僞經)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이야기를 〈전등록〉 이후에 나온 선종사서나 어록 등에 자주 소개하면서 '다자탑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座)' '곽시쌍부(槨示雙趺)'와 함께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 하여 이를 선(禪)의 기원으로, 조사선(祖師禪)에서 애용하는 화두(話頭)를 삼아 '불립문자 교외별전'이라는 선의 기치를 내세우는 대표적인 공안으로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선종에서는 전법의 상징이 되는 조사법통(祖師法統)의 근거로 삼아 왔다.

부처님이 꽃을 든 이유를 가섭은 무언가 알아차렸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이 염화미소 이야기는 이른바 이심전심(以心傳心)을 상징하는 설화다.

그러나 이심전심을 근본으로 하는 선종의 본분도리(本分道理)에 있어서는 법을 전하고 받고 한다는 말마저 부정해 버린다. 사실 선의 근본 종지에 입각해서 볼 때는 '염화미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간화선의 완성자로 평가받는 대혜종고(大慧宗 p 1089~1163)는 "만약에 심법을 전했다고 한다면 세상일이 삼실처럼 얽혀 복잡해질 것이다"고 하였다.(若言付心法 天下事如麻)

"부처님이 연꽃을 든 것과 가섭이 빙그레 웃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안목이나 인식의 도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부처님이 심법을 전하고 가섭이 받았다거나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심오하고 불가사의하게 교감을 했다는 식으로 분별하면 삼실처럼 얽혀 복잡한 조작이 일어나 염화미소의 진정한 참뜻을 왜곡하게 할 뿐이다."

〈연등회요〉에 나오는 말이다.

또 다른 어록에는 "이 일이 만약 말로써 설명된다면 대장경 전체에 설해진 부처님 말씀이 있지 않은가? 어찌 반드시 꽃을 들어 보이고 빙그레 웃는 염화미소로써 정법안장을 전하겠는가? 그대가 바로 알려면 입을 닫고 그 자리에서 알아차려야지 앞뒤로 요모조모 생각을 하지 말라. 머뭇거리며 분별하는 순간 귀신 소굴에 떨어질 것"이라 한다.

〈연등회요〉에는 이런 말도 나온다.

"염화미소는 밥알에 붙은 모래와 같고 달마가 전했다는 마음은 이마에 꽂힌 화살과 같다."(拈花微笑 飯裏着沙 少室傳心 腦門中箭)

이처럼 공안을 처리하는 조사선의 관점에서는 염화미소가 가리키는 그 무엇이 없다는 것이다. 인식상의 착각을 활용하여 모든 관념을 뽑아내는 철거도구와 같다는 것이다.

어느 곳에도 머물지 말라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① 욕망에 따른 고통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란 무엇인가? 삶은 믿음이며, 의지하는 것이며,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삶은 모두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몸(육신)과 추구하는 행복, 우리들이 일궈낸 모든 창조물들을 비롯하여 산과 강, 지구, 태양, 우주의 별들도 저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모두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살려고 먹는가 먹으려고 사는가 하는 티끌 수와 같은 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존재는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근본(根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줄기만을 알고 뿌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근본이고 뿌리인가?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생각하는 본성(本性), 본심(本心)인 이 마음이 근본입니다. 이 마음은 허공과 그 나이가 같아서 설령 육도(六道)를 끊임없이 윤회하며 각양각색의 형체로 태어나도, 그 마음만은 결코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정(妄情)을 일으켜 갖가지 업을 지어 그 과보(果報)를 받게 되는데, 실제로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은 이 본심을 벗어난 티끌 같은 의심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미혹한 망념의 과보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들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오래 보전하려고 하지만 좋아하는 것은 스스로 있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인하여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취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무너지며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자 하지만, 싫어하는 것도 스스로 있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스스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며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은 무너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취하고 버리려는 우리들의 욕망은 충족될 수 없으며,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른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애착이 큰 우리들의 육신이 외부의 충격이나 질병으로 인해 느끼는 아픔의 통증은, 육신이 허물어지는 느낌이 통증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 아픔의 고통이 싫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됨을 구하는 이는 구함이 없어야 합니다. 일체가 한마음이므로 실로 구할 것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취하지 말고 싫어하는 것도 버리지 않으며, 깨끗함과 더러움, 선과 악 등의 분별망념의 일체 이분법이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바로 알아서,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으면 고통과 의심, 생과 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153억 년 전 하나의 티끌이 빅뱅한 후, 점점 팽창하여 지금의 우주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에 존재하는 별과 태양 모든 사물들은 팽창하고 늘어난 티끌이 쌓이고 늘어난 모양인 것입니다. 티끌이 모여 쌓이면 생긴 것이고 쌓인 것이 흩어지면 멸한 것으로, 이것은 태어나고 죽는 생사가 아니고 티끌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작용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티끌의 작용에 대해서 무엇이 생긴 것이다 멸한 것이다 또는 있다 없다, 때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티끌과 같은 분별을 일으키는 원인은 작용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謹賀新年

佛紀 2561年 丁酉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 (능가경)

福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남현동)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조실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TEL 02)444-4321, 7215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 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천년고찰 봉원사
회 장 석선암
보유자 김구해
부회장 이기봉
총 무 조현성
교 무 김태호
재 무 조효광
사 회 이석천
사무장 엄혜담
봉원사 대중일동
관음회 화엄회 합창단 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전화 02)392-3007~8 전송 02)393-9450
www.bongw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약사기도도량
천년고찰 노고산 흥국사

주지 대오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Tel 02-381-7970~1 / Fax 02-381-7329
www.heungguksa.or.kr
템플스테이문의 : 02-381-7980

정 안 사
주지 정안
신도 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 466-6055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A19

비록 많이 들어 알아도 자기 체험이 없으면 장님이 등불을 들어 남을 밝혀 주면서
자기 앞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대장엄론경)



(사)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인 운남**
종회의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법신 노정** 교육원장 **법기 무여**
포교원장 **법천 덕일** 기획실장 **법장 원해** 고시원장 **벽산 혜암**

서울종무원장 **심우** 경기동부종무원장 **혜암** 경기서부종무원장 **경심**
강원종무원장 **영명** 충청종무원장 **혜능** 전라종무원장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북종무원장 **탄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일봉**

총무부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호법부장 **진각** 교육부장 **무진**
재무부장 **성각** 연화부장 **정혜** 문화부장 **공덕** 교무부장 **진문**

■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 총무원 : 경남 창원시 회원구 양덕1동 산 30-4번지 천연암 / 전화 055)253-1074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종 정 **대 화**
부종정 **법 용**
사 서 경 산

총무원장 **만 혁**
사 서 해 인

종회의장 **대 운**
부의장 **자 광**
지 명

원 로 원
원로원장 **대원**
원로의원 **대월. 관곤**
대봉. 보명

각 원 장
교육원장 **무공**
감찰원장 **대능**
연수원장 **대광**
포교원장 **성준**
문화원장 **보경**
의전원장 **두산**
염불원장 **광수**

총 무 원
총무부장 **법성**
교무부장 **자관**
재무부장 **성문**
감찰부장 **도일**
사회부장 **정오**
복지부장 **지연**
포교부장 **용담**
조직부장 **원광**

교 구 종 무 원
부산경남교구종무원장 **지명**
대전충남교구종무원장 **지천**
경북교구종무원장 **자광**
충북교구종무원장 **대월**
강원교구종무원장 **진묘**

종회의원
원각. 자관. 용담. 부용. 현문. 심공. 수혜. 해인.
대광. 법성. 지선. 진묘. 지명. 혜은. 혜원. 관공.
성문. 성인. 지호. 시원. 성준. 이지혜장.
권진광명. 신청련행. 김법륜해. 김한명화.

■ 총무원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불.법.승

(宗) 대한불교삼보종

단기4350(불기2561) 정유년
대한민국 불교통일 불국토운동

1世宗正 滅空大宗師 法主 正覺大宗師

副 宗 正 **회천** 元老院長 **금산** 元老副院 **정공**
總務院長 **법장** 護法院長 **호신** 宗會議長 **대행**

副 院 長 **법경** 文化院長 **법등** 教育院長 **홍인**
監察院長 **법도** 布教院長 **법륜**

宗會議員 **법융.법성.법공.해곤.계월.해봉.**(外 21名)
教區院長 **수산.법인.보산.불광.해원.용현.법융.지훈.**
법송.지원.도연.청광.정륵.수원.해국.(16교구)

總務部長 **평산** 教育部長 **도오** 規正部長 **도철** 護戒部長 **청파**
教務部長 **도찰** 布教部長 **혜수** 財務部長 **법진** 教化部長 **법보**
總務局長 **지일** 文化部長 **진각** 布教局長 **도원** 弘報局長 **강천**
電算室長 **진행** 企劃局長 **청붕** 司書局長 **도율** 社會局長 **도능**
法務部법사단장 **법성** 藝術局長 **보인** 事務長 **목련해**

■ 삼보조계종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99번길4 / 전화 055)338-0089. 080-333-9009

(사) 대한불교승가종

종 정 **월인 습득**

원로원장 **혜공** 재무원장 **무착** 종회의장 **혜륜**
포교원장 **도안** 총무원장 **법수** 총무부장 **도일**

원로위원 **법일**
범음범패 교육원장 **법수** 승가종총본산 승가사 주지 **선견**
승가종 법사대학장 **원해** 월인문도회 문장 **법종**
비구니 범음교육원장 **법관**

서울종무원장 **정행** 부산종무원장 **봉선** 대구경북종무원장 **지운**
대전종무원장 **법지** 울산종무원장 **도성** 경남종무원장 **월곡**
강원종무원장 **부르나** 전남종무원장 **선궁**

장병위문 수계법회(2016년 4월16일 육군훈련소 합동수계법회) **동참 스님**

정광 선웅 도광 묘전 묘경 법등 법성 법관 법전 무구 선호 선봉
도성 도안 효득 선경 무찰 불전 선오 자용 지명 보우 법지 법종

■ 종정 주석사찰 서래암 : 부산 금정구 안뜰로7번길 43-1
전화 051)552-8554. 556-0278. 팩스 051)556-8551
■ 총본산 승가사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 전화 055)754-1942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종 정 **혜봉**
원로위원 **고산. 경호. 대명. 보현**

총 무 원 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보성**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 앙 종 회 의 장 **보장** 부 의 장 **수운. 호경**
중 앙 종 회 의 원 **서봉. 삼자. 혜언. 혜광. 수진. 법우. 지선. 혜가.**
혜공. 연각. 지인. 보련. 이타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사정부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혜일** 부 원 장 **보단**
중 앙 교 육 원 장 **공덕** 교육부장 **무진** 중앙선원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 원 장 **무봉**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봉**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인천교구종무원장 **혜언**
경 남 종 무 원 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교구종무원장 **혜공**

중 앙 법 사 단 장 **무진** 법 사 단 부 단 장 **혜등** 법 사 단 총 무 **혜련**
비 구 니 회 회 장 **법인** (사)해동자비원장 **덕광** 국 제 교 화 원 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사)해동자비원부산지사장 **장양숙**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사) 대한불교일승종

종 정 **능허 혜정** 사서실장 **정환**
기획부종정 **혜득** 승정부종정 **혜인**

원로원장 **정법** 원로부원장 **법일**
원로의원 **범공. 원봉. 용법. 인환. 혜암. 선재. 대허. 무장. 불광. 묘암. 남강. 혜인. 묘정. 연화.**
일성. 운봉. 혜월. 각화

중앙종의회의장 **길상** 중앙종회부의장 **봉덕**
중앙종회의원 **청감. 월암. 법보. 일조. 정도. 만공. 정관. 정개. 건공. 경덕. 탄공. 흠공. 시공.**
대원. 리공. 원공. 도공. 정공. 홍공. 자운. 명공. 연각. 소공. 서공. 덕원

총무원장 **혜정**

호계원장 **길상** 기획원장 **경보** 종책원장 **월암** 교육원장 **봉덕** 포교원장 **법성**
승보원장 **혜성** 규정원장 **동화** 승정원장 **탄공** 비구니회회장 **정휴** 승정부원장 **법정**
포교부원장 **도성** 승보부원장 **정수** 기획부원장 **거암** 교육부원장 **정휴**

총무부장 **지윤** 재무부장 **자운** 포교부장 **정명** 기획부장 **무량** 호법부장 **정환**
규정부장 **정함** 종무부장 **성일** 승보부장 **성조** 승정부장 **혜광**

강원교구종무원장 **법일** 대구경북교구종무원장 **탄공** 경남교구종무원장 **여관**
대전충청교구종무원장 **법광**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효정** 부산교구종무원장 **법담**
울산교구종무원장 **법선** 재일본교구종무원장 **곡우**

■ 총무원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6번길 14-6 / 전화 031)562-2751
홈페이지 www.ilseung.or.kr / FAX 031)562-2752

“부산 사상, 불자인재 큰 동량 만들겠다”

사상구불교연합회, 구랍 26일 장학금 전달식 개최

40여 회원 스님, 십시일반 모아
인재불사 및 지역민 위한 나눔
장학생 “꿈을 향해 나아갈 것”
열악한 사상구에 자비보살행 천명



사상구불교연합회는 구랍 26일 부산 운수사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인재불사에 더욱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부산 사상구 지역 스님들이 불교 인재 불사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행을 펼치고 있다.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유정)는 구랍 26일 운수사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은 연말을 맞아 미래 주역들이 불교인재 동량으로 성장해 줄 것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회장 유정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성문 스님 및 회원 스님들, 학부모 및 학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유정 스님은 학생들을 격려하며 더욱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유정 스님은 “여러분 스스로 탁마하고 정진해 꿈을 성취할 수 있길 바란다. 오늘 이 행사가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회원 스님들도 함께 마음 내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상갑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장도 재가 신도를 대표해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발원했다.

또한 한 해 동안 지역에 정신적 기둥으로 활동한 스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올렸다. 이 회장은 “한 해 동안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는데, 사상구 내에서 스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해주시고 도와 주셔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며 “스님들께서 정성으로 모은 장학금이 학생들의 성장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여한 20여명의 중 ·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은 스님들의 나눔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형민(해동고 1) 학생 외 4명은 “학교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스님께 장학금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이 마음을 잘 간직해 앞으로 더욱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불교 활동도 잘 이어갈 것이다”고 답했다.

김나영(주례여중 1) 학생은 “반야정사에서 신행 활동하고 계신 어머니가 기도 해주시고 활동해 주셔서 이렇게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다”며 “꿈이 정신과 의사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꿈을 이루고 싶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날 사상구불교연합회는 총회를 개최하고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을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성문 스님은 “회장 유정 스님께서 활동을 너무나 잘하셔서 어깨가 무겁다. 인재불사는 저희 연합회의 전통으로, 앞으로도 잘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사회 포교를 위해 나눔 바자회, 불우이웃 돕기, 경승 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상구불교연합회는 매달 장학생을 선정,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회원 스님들은 장학금 후원을 위해 1년 동안 자비로 십시일반 회비를 모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일 찻집을 개최해 사상구 불자들이 나눔에 함께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있어 자비 실천 지역으로 이끌고 있다.

이밖에도 논산 훈련소 군포교 활동, 경로잔치, 부산불교연합회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불교 문화재 발굴 및 양성, 경승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국가안녕 · 상생 화합하는 정유년 되길”

구랍 27일 ‘대구 · 경북 불교지도자 밤’ 열려



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구 · 경북 불교 지도자의 밤’이 구랍 27일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자리는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 최근 국가적 혼란과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등과 관련 국가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진행됐다.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송구영신의 때를 맞이해 불자들은 상생과 화합의 단초를 마련해야한다”며 “사회안녕을 위해 불자들이 앞장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수행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지성 스님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실천하고 기도하는 불자가 되어 나라가 편안하고 대구시민과 도민이 편안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효광 스님은 올 한 해 불교계서 활약한 스님 및 불자들을 위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이 포교대상을, 관오사 박종명 신도회장이 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대학교 불교학생회 3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금산사 · 전북금연센터, ‘금연 템플’ 협약

금연캠프 참가자 대상 체험형 템플스테이 제공



김제 금산사와 원광대학교병원 전북금연지원센터가 구랍 26일 템플스테이를 통한 금연지원서비스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양 기관은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상호협조와 전북지역 흡연율 감소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금연지원센터의 금연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템플스테이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산사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2박3일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돕는다.

금산사 관계자는 “사찰의 주요한 수행법인 108배와, 걷기명상, 촛불명상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심신 이완과 습관을 바꿔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재 전북금연지원센터장은 “산사서 진행되는 금연 캠프는 흡연 중독자들의 심신 안정에 효과가 커 금연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병원 전북금연지원센터는 금연 성공이 어려운 중증 · 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캠프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하구불교聯, “어르신, 새해도 건강하세요”

구랍 27일 떡국떡 나눔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우)는 구랍 27일 무료급식소에서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 건강과 행복을 발원했다.〈사진〉 아울러 회원 사찰서 십시일반 모은 쌀 250kg을 떡국떡으로 제작해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나누고 힘찬 새해를 당부했다.

혜우 스님은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길 바란다. 많이 오시면 더 많이 준비하고 건강을 챙겨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병원을 소개하며 아픈 어르신들의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전했다. 스님은 “업무 협약을 맺은 병원이 있다. 병원비 절약도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픈 곳이 있으면 사하구 어느 사찰이든 방문해 부탁하면 신속하게 도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공덕원, 지장보살님 나투다

구랍 28일 점안법회 봉행

부산 공덕원(주지 능후)이 구랍 28일 법당에서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지장기도 도량인 공덕원은 이번 점안 법회를 통해 더욱 기도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주지 능후 스님은 “지장보살님과의 인연으로 이번 생에 더 큰 가피를 얻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도도량으로 역할을 다하고 포교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전했다.

법회 법주로 양산 미타암 주지 명천 스님과 신도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백제 때 창건된 군산 보천사 ‘전통사찰’ 지정

문체부 자문위, 구랍 26일 지정
군산 소재 전통사찰 총 7곳


구랍 26일 전통사찰로 지정된 군산 보천사 전경.

군산시 서수면에 위치한 조계종 보천사(주지 의종)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보천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지정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랍 26일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거나, 한국 고유의 불교 · 문화 · 예술과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의의를 가진 사찰을 말한다.

이로써 군산시에 소재한 전통사찰은 총 7곳이 됐다.

보천사는 백제 무왕 2년(602년) 신라 고승 혜공대사에 의해 700여 평에 이르는 큰 규모로 창건됐다.

그 후 고려시대 공민왕 2년(1352년)에 나옹대사가 보천사를 중창했고, 조선시대에는 고승 취계당대사가 중수하며 군산의 3대 사찰 중 하나로 법맥을 이어왔다. 이처럼 유서 깊은 사찰이었으나 1924년 일제에 의해 폐사된 아픔을 가졌다. 당시 일본인들은 장비를 동원해 보천사의 여러 건물을 해체,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옮겨 갔다고 한다. 불상은 부산서 반송돼 지금은 익산 웅포면 숭림사에 있는 나한전에 모셔져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깊은 역사를 간직한 보천사의 전통사찰 지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곳 사찰이 한국 불교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존 계승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大韓佛教傳統曹溪宗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본 종은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教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하고 있으며 釋迦牟尼佛을 教祖로 太古普愚國師를 宗祖로 하여 韓國佛教中興祖 鏡虛禪師로 부터 法脈을 이어받은 滿空禪師, 飽山禪師, 牛角道一禪師의 傳法을 傳受하여 宗旨宗風을 세운 傳統宗團입니다.



전법대화상 : 우각당 도 일 대 선 사
종 정 : 혜강당 석능인대종사 (석가여래부촉법 제77대)

원로최고의원 : 각암. 지산
원 로 의 원 : 범아 보각 덕암 지원

원로의장 : 법장 종회의장 : 도안 총무원장 : 대웅 중앙연수원장 : 동담
사정원장 : 귀천 승정원장 : 덕암 법계고시위원장 : 혜암 중앙선원장 : 혜광
승가대학장 : 무척 교육원장 : 무아 포교원장 : 효천 율원원장 : 두현
호계원장 : 혜명 염불원장 : 상호 문화원장 : 연제

총무부장 : 도법 재무부장 : 보현 교육부장 : 응수 호법부장 : 보관
사회부장 : 법연 규정부장 : 혜관 비구니부장 : 길상 문화부장 : 지혜
사서실장 : 지관 문도총무 : 청아 사무국장 : 적광

경기교구종무원장 : 불산 인천교구종무원장 : 일경(신광식) 경남교구종무원장 : 무척
충북교구종무원장 : 길상 충남교구종무원장 : 지원 대구교구종무원장 : 법천
경북교구종무원장 : 석강 부산교구종무원장 : 심공 울산교구종무원장 : 무정
총본산행자교육원장 : 성도 미주교무종무원장 : 혜성

전국신도회 회장 : 김용규법사
전국포교선원 : 안양선원. 시흥선원. 천안선원. 부평선원. 주안선원. 의정부선원. 화성선원. 공항선원. 산본선원. 심곡선원. 성남선원. 권선선원. 연무선원. 계산선원. 연수선원. 백운선원. 신천선원. 부천선원

최근입종승려 및 포교사 : 불산. 석담. 혜공. 성원. 길산. 해인. 연담. 향산. 무성. 박승정. 오유정. 박병갑. 오현국. 임종국. 김진우. 정태호. 정철수. 조해숙. 김순애. 신주용. 우흥렬. 윤평중. 현종률. 김흥찬. 방선영. 서현식. 박석재. 홍성영. 나인정. 신명수. 이도경. 김상용. 기지영. 신재식. 원순례. 한병환. 박찬희.

총 본 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번지 각황사 ☎ 053)325-0400. 010-7283-0089. 팩스 053)325-4848
전국신도회 |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7번길 17 205호 ☎ 031)498-5123. 팩스 031)498-4040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A21

중생의 목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음식을 베풀면 이 두 가지 인연으로 그 수명은 길어진다네. (금강명최승왕경)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광주포교당

성 거 사



주 지 혜 공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TEL 062)676-1080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489-22번지
TEL 062)951-3562

빛고을 재가불자들의
아름다운 자비나눔 공동체

(사)자비신행회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5-1
TEL 062-234-0090

지장도량

미 륵 사

주 지 혜 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 자 타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전화 062)222-1145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주 지 시 각

운영위원장 정법심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 74-11
전화 062)652-4920

대한불교조계종

법 림 사

대해노인복지센터

주지 무 진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번지
TEL 062)234-2207

대한불교 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TEL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만 경 사

주 지 증 현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산49-4
TEL 062)263-3180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설]
연화유치원,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448-2번지
TEL 062)227-7295
유치원 227-0173

한국불교태고종

법 륜 사

주 지 월 인

신도일동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작법기능보유자

대한불교조계종

정 안 사

주 지 동 초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분토길 90
전화 062)265-0801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본부장 현 지

환아후원계좌
광주은행 019-107-334866
예금주 사)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밥차후원계좌
농협 617-01-146875
예금주 생명나눔실천회

■ 정기후원 문의
062)234-6602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20 3층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 지 법 공

신도일동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전화 : 061)554-2634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주 경주

주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전화 : 062)261-1529

대한불교現조계종

용 문 사

총본사 용문사

■ 부설
장학회 운영
노인가정요양원 복지센터 운영

주지 성 종

■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70-16
전화 : 062)531-3888

“인생엔 때론 위로가 아니라 답이 필요”



내 안에 삶의 나침반이 있다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 5천원



나를 누르는 일과 사회,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때론 구속이기도 한 친구와 애인,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등등. 이런 복잡한 삶의 여정엔 장황한 위로보다 때론 단순한 답이 필요할 때가 있다. 군법사이자 인터넷 수행 공간 ‘목탁소리’의 지도법사인 법상 스님이 이번에는 인생 곳곳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들고 찾아왔다.

“우울하다”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괴롭다” “판단하지 마라” “기쁘다” “하지만 너무 과하지 마라” “사랑한다” “오히려 바라지 말고 구속하지 마라” 이것들은 어쩌면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사십, 오십이 넘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스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변곡점 하나하나에 마치 포스트잇을 붙이듯 이런 꼬리표를 붙여 가며 마음을 알고, 다루고, 나누라고 이야기한다.

법상 스님이 이렇게 ‘답’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누구나 자기 안에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찾아헤매는 진리는 멀리도, 다른 데 있지도 않다. 그걸 아는 순간 각자 앞에 놓인 ‘역경을 통해 배울’ 수도, 현재 무엇이 있든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어차피 한 번 풀고 가야 할 내 삶의 몫이라면 바로 지금 여기서 툭툭 털고 나아가는 힘이 필요하다.

받아들임, 놓음, 알아차림,
내맡김, 나눔 등 갖추길 당부

100여 컷 그림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명상 에세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스님은 무작정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충고한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 마라. 우린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다”라고 스님은 이런 ‘답’을 내놓으며 우리가 삶 속에서 취해야 할 다섯 가지 실천법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받아들임’ ‘놓아 버림’ ‘알아차림’ ‘내맡김’ 그리고 ‘나눔’이다. 수용하고, 놓아 버린 채, 그대로를 구경꾼이 되어 바라보고, 삶을 내 식대로 판단하지 말며, 다만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하여 이 지구별을 여행하는 여행자의 신분으로 각자 자신의 삶을 눈부시게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제 스스로 그저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삶을 다만 바라볼 뿐 ‘나’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벌어지는 일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 인연 따라 내 앞에 온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해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무기력해지라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그 어떤 사심도, 집착도, 미움도 없이 내 삶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평등하게 수용하고 바라봐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한쪽에 짧은 시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글이 먼저 등장하고, 이후에 본문이 시작된다. 시간이 없다면 카탈로그를 넘기듯 짧은 글들을 하나씩만, 또는 반복해서 읽어도 좋다. 그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오랫동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약해 온 용정운 씨는 이 책에 모두 100여 컷의 그림을 제공해 좀 더 싱싱한 생동감을 입혔다. 봄날 같이 따스한 글과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림들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싱그러움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은 이 책의 보너스다. **김주일 기자**

선비들의 정신수양과 지혜 깃든 ‘樓亭詩’ 210편



정자에 올라 세상을 굽어보니

임연태 지음
인북스 펴냄
1만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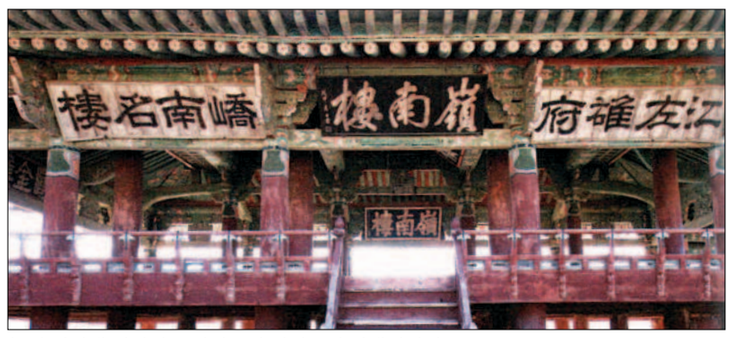
천년세월 관통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누정시

무위자연과 유유자적 철학
담긴 명상 치유 문학

누정 22곳 현판에 걸린
누정시 210여편 소개

풍광이 수려한 곳마다 아름답게 서 있는 정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음풍농월과 선비들의 풍류다. 문학과 예술의 발상지로서 안성마춤인 이유다. 특히 누각과 정자의 안팎에는 시(詩)가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다. 자연을 벗 삼아 무욕의 삶을 펼친 선비들의 대쪽 같은 기개와 시대 정신의 체취가 고스란히 서려 있다. 그래서 누정시(樓亭詩)라는 장르가 탄생했다. 이는 정자와 누각의 풍정을 소재로 한 시문이나, 누정의 아름다움 속에 세상 사는 지혜를 읊은 문인 선비들의 시다.

이 책은 전국에 남아 있는 누정시의 숨결을 역사와 문학적 관점서 살펴, 한국 정신문화의 굳건한 기둥 역할을 한 선비 정신과 고전 문학의 향기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누(樓) 하나의 망가짐과 세워짐으로 한 고을의 슬픔과 기쁨을 알 수 있고, 그것으로 한 시대 도(道)의 오르내림을 알 수 있다’고 한 하륜(河崙, 1347~1416)의 말처럼, 누정시의 감상과 이해를 통해 흥망성쇠를 조감할 수 있다.



누각 정면에 걸려있는 영남루의 현판들이 이색적이다.

이 책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한국의 대표적인 누각과 정자 22곳을 찾아, 누정을 소재로 한 시와 누정의 현판에 걸린 누정시 210여 편을 소개한다. 작품의 창작 배경과 문학적 의의, 시를 쓴 인물에 얽힌 영욕의 역사도 조명해 선비 문인들의 풍류와 기개, 예술적 향기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누정이 자리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 제 1부는 바닷가에 소재한 누정들, 제 2부는 계류에 자리한 정자, 제 3부는 강변가 정자, 제 4부는 궁궐과 사찰에 소재한 누각, 제 5부는 평야와 산정에 소재한 정자들로 구성했다.

이 책은 선비들이 남긴 시문(詩文) 뿐 아니라 각 누정마다 창건자와 시대적 배경, 지리적 환경, 주변의 풍광과 인물에 얽힌 일화들을 상세히 기술해 역사 문학 기행이라는 특성에 충실한 책을 꾸미고자 했다. 누정시를 남긴 시인 묵객은 신라 시대의 최치원을 비롯하여 고려의 이규보, 문익점, 이색, 정몽주 등과 조선 시대의 하륜, 이이, 정철, 이산해, 김시습, 김병연, 서거정 등 역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로 이름을 떨친 선비들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권력의 정점서 세상을 호령한 이들이 굴곡진 삶을 겪고 나서 누정을 짓고 강학에 전념해 재기를 다지거나 마음을 추스르며 귀거래사를 읊었음을 상기할 때, 누정시는 지혜를 모색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초야에 은일해 자연과 교감하며 무위자연과 안분지족을 추구한 이들이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며 관조와 달관의 경지를 담은 누정시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가치가 있다.

누정시야말로 우리 문학계가 특별한 관심으로 학술적 연구를 통해 정리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고전문학 분야이다. 하지만 누정문학에 대한 문학적 관심과 학술적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조차 일천하기 그지없다. 학회나 대학은 물론이고 많은 지역의 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우려를 조금 씻어준다. 국문학도 출신인 저자의 학술적 탐구와 시인다운 시적 감성이 어우러져 튼실한 역사기행서를 읽는 기분이 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클릭! 이 책

명상으로 정화된 마음 죽어서도 가져갈 유일한 재산

마음경영

위오기 지음 | 공주대출판부 펴냄 | 2만원



“강의를 듣게 되면서 알아차림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고, 자애 명상과 관용 명상을 실시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협성대 정규진〉

공주대 경영학과 위오기 교수는 열린사이버대학 컨소시움 교양강좌를 운영하면서 대학정규학점 강좌인 〈명상과 마음경영〉을 개설해 대학생들을 비롯해 일반인들도 수강할 수 있게 했다. 처음에는 경영학 교수가 왜 명상 강좌를 하냐고 의아해 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의 팬이 됐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 변화를 느꼈고 그것이 일상의 삶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그가 펴낸 〈마음경영〉은 강의 교재로 쓰던 내용을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 함께 따라 할 수 있게 재구성했다. 저자는 “내 인생서 사마타와 위빠사나 이 두 가지 바른 명상법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며 “세상에는 죽어서 못 갖고 가는 재산과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 두 가지가 있는데 명상의 결과로 정화된 마음만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기에 명상 대중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실제로 위 교수는 20년 가까이 파아욱센터를 비롯해 고엔카센터, 참매센터 및 보리수 선원서 수행했고, 호두마을과 보리수 선원서 명상 지도를 해온 명상 전문가이다.

이번 책에는 명상 준비단계부터 물질과 마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일상생활서 어떻게 알아차림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13가지 수행법을 통해 바른 수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전의 음성 파일 내용을 문자로 모두 옮겨서 누구나 책을 보고 명상을 따라할 수 있게 보완 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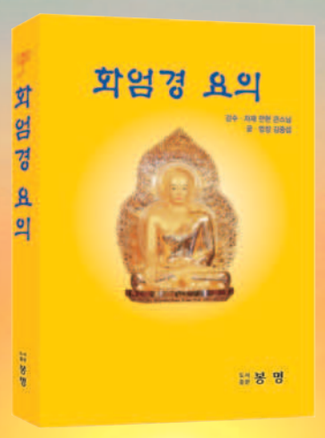
저자는 “저의 명상 체험으로 말하자면 우선 몸의 나쁜 병들이 거의 다 없어졌으며, 엄청난 몸과 마음의 고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사라지길 반복하면서 그것들의 덩어리가 와해되고 무너지며 무수한 지혜가 생겨나 탐진치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됐다”며 “이전에는 세상 모든 고민을 짊어진 사람처럼 고민에 빠져있던 제가 요즈음에는 전혀 고민 없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책은 총 1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록에는 ‘명상실습 보고서’와 ‘수강생 소감문 모음’도 넣어 실생활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일 기자

한권으로 완성된 ‘화엄경 요의’

- 드디어 2600년 동안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장엄한 부처님세계의 비밀이 드러나다.
- 대승경전의 꽃인 《화엄경》의 핵(核)을 파헤치다.
- 영원한 행복의 길을 제시한 부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
- 부처님의 절대성과 화엄세계관을 비롯한 《화엄경》의 진수(眞髓)를 현대물리학적으로 논증하다.
- 연화장세계를 정점으로 우리 우주를 넘어서 온 우주법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화엄경 요의’가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

- 부처님은 ‘비로소 최초로 불신(佛身)을 갖춘 최초불(始成正覺)’이시다.
- 부처님은 우주법계를 포섭하시는 우주 주(The Lord of the universe) 절대자이시다.
- 《화엄경》에서 보이는 부처님의 우주적위신력은 진실이다.
-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내어 보살도를 성만, 무아를 완성하여 불신(佛身)을 갖춘 ‘붓다가 되라’는 것이 ‘화엄경의 요의’다.

근간서적
세계종교를 신불교 영산불교의 우주적 관점에서 본 비교종교학

감수 · 자재 만현 큰스님
글 · 법장 김중섭

불서총판 운주사 TEL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대형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430쪽 | 특별가 25,000원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A23

작은 죄라고 해서 막아서 지키지 않으면 모두 지옥의 원인이 되나니 비유하자면
작은 불씨가 산과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도다. (제법집요경)



대한불교 광명종

종 주 광덕
종 정 불인

총무원장 현 진

종도일동

`/- „ ", "ǂ»

• 매월(음) 1일 초하루법회
• 매월(음) 8일 약사재일
• 매월(음) 15일 보름법회
• 매월(음) 18일 지장재일
• 매월(음) 24일 관음재일

■ 총본산 :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2길 388 내남산 미타사
전화 054)430-4057 / 팩스 054)430-3238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원로위원 법성. 혜암

교육원장 동담 백천
감찰원장 동암 원효
고시원장 도진 동영
포교원장 동우 영산
사회원장 덕진 도광
복지원장 동춘 태산
기획실장 대비
사서실장 동판
총무부장 동봉
종회의장 대공 동곡
사무국장 동근

종회의원 일동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3통, 사진(3×4), 이력서3통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화 055)336-0108, 335-0178 팩스 336-7070
핸드폰 011-595-6522 / 010-8939-6522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대한불교 종단총연합회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사부대중 일동

■ 연합회 및 종단 사무처 : 전화 033)671-7751~3 팩스 033)671-7754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전 종도 일동



● **종단 입종 안내**
– 대 상 : 사찰 및 종도 (승려, 법사, 포교사)
– 문 의 : 총무원 051-514-8766 / 직 통 010-4983-1494

■ 총무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61, 천광정사
전화 : 051-514-8766 / 010-4983-1494

(사)대한불교 선화조계종

종단의 발전과 사찰의 불사를 도와주시며
함께 뜻을 같이 하실 종도 및 사찰을 모십니다

종정 : 혜인 법정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법당사진, 수계증, 간부스님 추대장 및 위촉장
● 총 본 산 : 용선사(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2길 98-5)
● 입종문의 : ☎ 054)856-9555. 010-8571-0236

(사)대한불교 선화조계종 총무원장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승가회

총재 무공

회원일동

■ 주 소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길 신해사
■ 전 화 : 055)855-1772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A24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숫타니파타)



社團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 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비상 대광

원로원장 정봉　　부 원 장 범왕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대원
연수원장 청암　　부 원 장 범수
감찰원장 영암　　부 원 장 이현
포교원장 도암　　부 원 장 혜성
호법원장 법경　　부 원 장 대원
교육원장 도연　　부 원 장 연화
불교예술원원장 도연　　부 원 장 소현
비구니회장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소원 대경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 학 장 대광

총무부장 성원　규정부장 이현　교육부장 소원
재무부장 도하　사회부장 범수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부산교구종무원장 도이　전남교구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도각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충남교구종무원장　진주하동산청지회장 영암
경 북 종 무 원 장 혜정　대 원 종 법 사 단 장 수안
신풍사신도회회장 이정민(청암)　대원종신도회회장 신우연
대원종전국신도회총무 김임숙

중앙종회의장 법조　부 의 장 도이
중앙종회의원 대광 소원 도하 법조 도이 법경 범수
혜인 혜조 법수 혜성 혜정 도각 영암
지현 도연 연화 도언 이현 성원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스님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김해시 진영읍 진남로15-6(구 주소 진영읍좌곤리2-18번지) 대한불교 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종정 정허 신풍
총무원 055)346-29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10-8548-86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禪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 경

종 도 일 동

■ 총무원 : 부산시 사하구 대티로 63번길 75-1 도경사
■ 전 화 : 051)206-3488

公益法人 大韓佛教 華嚴宗

總務院長 華 應　　中央宗會議長 大 烋
宗務處長 梁威燦

大本山 藥 師 寺 (약사추모관운영)
신 도 일 동

仁 川 佛 教 新 聞
發 行 人 華 應

財團法人 華 嚴 僧 伽 奬 學 財 團
公益法人 大 韓 佛 教 華 嚴 宗 奬 學 會
理 事 長 韓 相 湖 (華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EL 032)429-4441 / FAX 032)429-4445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EL 02)730-0798 / FAX 02)730-0799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 溪 宗

종 정 홍 산 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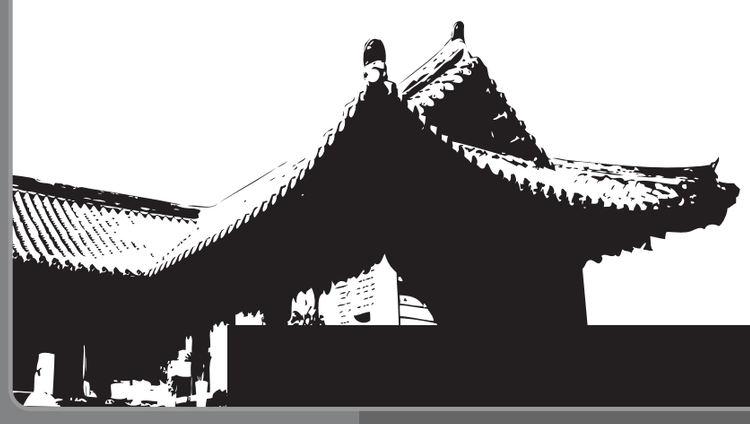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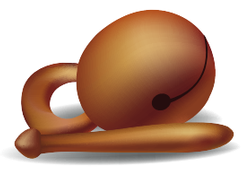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설법은 여래의 거룩한 말씀이니 가르침대로 공덕을 닦아서 대접이 좋고 나쁨에 집착 하지 말지니, 집착을 끊어야 법을 얻으리라.

– 발피보살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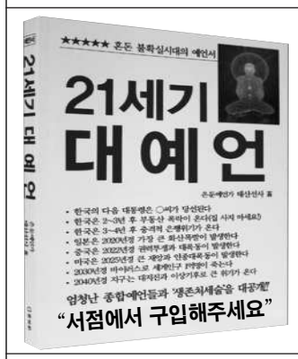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 점안식,
시다림, 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사찰 화분장 분재공원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선설치 후지불
- 100평 기준 70기 유치
- 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www.화분장.kr
010-8458-3310
대표 율평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법당철거전문.개금.단청.
탱화.중.대형불상.공예
탱화 제작 수리
(사찰부동산중개전문)
구리시 아천동 산 4-1
010-9177-7842

? 고민 해결의 지 침 서
당신의 어떠한
고민도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010-7732-3267
농협 302-1030-1238-01 배종영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칡 판매
스님이 직접 캔
칡을 판매합니다
경북 예천군 유천면 하천길 21-73
우체국 012-104-02-185640 김재홍
010-5585-0459

천수작법 바라지 하실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010-2168-2800

비구 스님 모십니다
010-5221-5893

산속에서 조용히 사실 분을 모십니다
부부원함, 농사땅 2천평, 컨테이너박스 4개
(경북 청송)
010-4842-7228

문두루 기도비법?
원하는 것을 이루게되는 기도이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006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걸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포교원 인수 하실 분
– 비구, 비구니스님
– 초기경전 강의 및 수행지도 가능하신 분
– 사천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에게 상응할 수 있는 학식과 지식을 갖추신 분
– 반드시 보문정사 주지스님과 면담 후 결정됨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7-8번지 2층 보문정사 포교원
연락처 : 총무 010-5654-214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기도치료법 一名 염력요법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 최초의 전문기도 치료사는 부처님과 예수님이었습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직업으로 삼아도 될것입니다.
● 70대 중반인 본인은 현재 충분한 용돈을 벌어서 걱정없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 (정보석)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해 드립니다.)
동영상 CD (외장하드)를 함께 드리며 화상강의도 가능합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著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2017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9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8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9기 수강생부터는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도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7년 3월 14일 ~ 9월 26일까지
②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7년 3월 14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언제나 보시하기를 즐기고 견고히 맑은
계행을 지니며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면 온 갖 소원이 이루어지리.

- 제법집요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속의 땅넓은 사찰◀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혁신공단예정지 부근)
- 총부지 4,000여평 ※일부 주거지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전망
- 가액 : 6억 8천만원

▶ 토굴◀
- 위치 : 경북 청도
- 총부지 : 280여평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방7개)
- 가액 : 1억 4,500만원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예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인법당. 요사채 94㎡, 토지 443㎡
- 마을 사찰. 운영 잘되고 위치 좋음. 주차 가능함
- 양도가액 : 1억1천만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비밀보장. 방문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
◎ 부지 : 80평 ◎ 부지 : 2200평
◎ 법당 : 40평 ◎ 법당 : 60평, 외전각
◎ 요사 : 60평 ◎ 요사 : 100평
◎ 양도 : 6억 8천 ◎ 양도 : 3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장유폭포 부근
- 토지: 14,780평, 주차장 완비
- 건물: 건평 80여평, 법당 요사채 등
- 불모산 사찰, 정남향 최고 위치
- 양도 : 몽땅 6억 5천만원

010-2595-7752 전무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사찰(급)안내

- 안성사찰 양도
- 토지 1,000㎡,법당65㎡ .요사채100㎡
- 뒷편국유지. 산쪽사찰
- 스님건강상 양도. 교통 편리함
- 가액 : 2억3천만(융자6500만)

010-7347-1010(사찰전문)

서울에서 접수. 상담.안내가능합니다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인천시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지하철역 5분거리 주택밀집지역
- 토지 총 682㎡ (약 200평)
- 목조법당 75㎡ (약 22평), 요사채 9㎡ (약 28평)
- 가액 : 6억

010-3426-9393(포교원전문)

070-8154-9393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금정산 외국어대 뒷산
- 토지 : 600여평 점유, 창건 80년
- 건물 : 법당 10여평, 요사채(건축물대장)
- 산신기도 사찰, 해발 300m 동남향
- 양도 : 몽땅 2억 9천만원

010-9906-3631 혜관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포 교 원 임 대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건물 : 2층 건물중 2층 (옥상 사용 가능)
- 대도로변 위치 포교하기 좋은곳 주차장 있음
- 가액 : 보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시설 A급 몸만 오시면 됨

010-9908-8017

납골당 사찰 안내 (납골당 허가 완료)

- 위치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소재 사찰
- 토지 2,930평, 건물,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약사전, 산신각 등
- 봉안당 현대식 3층 건물 5,000기 봉안가능 안치단 등 내부시설 완비
- 가액 : 15억

010-4389-181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남항
- 남항동 대로변
- 평수 : 3층건물 중 2층 38평
- 가액 : 보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집기일체 600만원 (절충가)

010-7314-873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금액은 1000만원

010-9902-3969

사찰안내 또는 전세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586
- 부지 400평
- 목조 법당 25평
- 요사콘크리트 슬라브 50평
- 심야 보일러, 田 다소
- 가액 : 3억 5천만원(양도) 6,000만원(전세)

010-5780-1415
033-762-2494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공양간 외 부속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급 2억 8천 (부득이한 사정으로)

010-4628-569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소재
- 독채 벽돌조 32평, 등기필 사찰(개인소유)
- 대지는 도지료 1년 35만원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1, 방2, 세면장
- 2차선 큰길변 남향
- 가액 : 4천 8백만원

010-7295-1259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1동, 칠성각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약 40평 1동
- 가액 : 3억 2천만원 (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257평
- 법당 : 2층 건물 2층법당 25평, 1층 30평.1층 대형방 2칸, 화장실, 샤워장, 해수관음 다보탑, 삼성각 신축
- 요사채 : 공양간, 창고9평, 화장실 2칸, 방2칸
- 전망 : 앞바다 300m 내려다 보임, 뒷산
- 가액 : 4억5천(은행1억5천 대출가능)

010-7169-98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사 찰 전 세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595-3
- 대지 184평, 법당전체 60평 사용함
- 사용가능 총 평수 약 500평
- 삼존불 약사여래불 목불 전체다임 주차장완비 황토옛날가옥 100년 넘음 몸만오시면 됨 전체 완벽하게 다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010-6674-1356
010-4496-6060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길 26 부근
- 평수 30평에 방3개 단독주택
- 시설 : 삼존불, 신중후불, 탱화 등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150만원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9252-076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 생극면
- 대지 513평, 법당 외 4동
- 계획관리 전망좋음
- 가액 : 1억 7천

010-6341-3477

대지건물(다용도)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614번지
- 건축물 40평, 부소건물 15평, 대지 456평, 한적하고 좋은 조건
- 국유림 산아래 남향 도로 지방도
- 대형차 진입 주소를 공개하니 현장 확인 후 전화주시면 제가 양도 하겠음

010-8899-8899

여항산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943 외 5필지 부동산 현황
- 개) 토지 : 654평(종교용지, 답, 임) 나) 건물 : (대웅전 23평, 신영각 3.4평, 요사 27평 등)
- 가액 : 15억

010-6667-4753
010-3852-2576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사찰(급)안내

- 위치 : 밀양시 단장면
- 854평, 산신각, 요사채
- 방 14개, 경치최고
- 사찰 겸 고시원, 건강원 최적지
- 가액 : 7억

010-6763-88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200평, 건평40평, 법당, 요사채, 방3개
- 친견실, 공양간, 샤워화장실2개 밖에 남녀화장실, 산신각, 용왕 연못 등 시설일체 방문요망
- 가액 : 2억 5천 8백만원
- 급 양도

010-5427-3699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스님들의 고민 !!!
30년의 전통 전국유일의 불교신협
보현사신협이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찰매매 잔금 대출
불사자금 대출
기타 대출상담

自利利他(자리이타)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보현사신협 문의 : (053)428-1133

육임 직접 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 강의시간 : 1년 과정(매주 5시간 강의)
-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 60만원
  월령도
  주역, 명리, 성명학 - 40만원
-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연정사 운암 합장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 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①

박태수(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 나를 넘어선 세상과의 온전한 만남

'마음 다스리기' '마음챙김법' '올바른 명상 수행법'. 불교적 명상이 현대인들에게 마음치유법으로 각광받으며, 명상법을 설명한 수많은 책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론으로 배우는 명상은 현대인들의 갈증을 좀처럼 해소시키지 못했다. 이에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은 자신이 몸소 명상을 실천하며 터득한 방법과 소감을 술회하며, '직접 체험을 통한 명상 상담사례' 등을 격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필자가 상담전문가로 활동한 지 어언 30여년이 됐다. 상담의 대상인 내담자를 만나면서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만날 수 있었다. 내담자를 보면서 상담자인 나를 보았다. 청소년, 중년, 노년기의 다양한 삶에서 겪는 이들의 아픔을 만나면서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하는 깨달음도 일어났다. 인간의 문제를 다루다보니 자연 내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며, 누군가의 인생문제를 제대로 돕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활동을 하면서 행하고 있는 명상수행은 나라고 하는 개인을 넘어 초개인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식의 확대로 이어졌다.

명상은 상담과 함께 내 인생의 안내자다. 알다시피 상담은 내담자가 그의 삶의 과정에서 겪는 심리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때, 그 분야의 전문가인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반면에 명상은 개인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으로써 평화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 상담은 개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요, 명상은 개인의 삶을 스스로 바라보고 통찰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다. 차츰 나이가 들면서 상담활동보다 명상활동이 더 많아졌다. 타인을 도와주는 상담활동의 기회가 적어지면서 자신을 위한 명상시간이 더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명상은 자신을 위한 활동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위한 만남으로 확대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2006년 1월 1일 새벽, 인도 비하르 요가대학에서의 아침명상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명상상태로 들어가자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면서 문득 '내 나이가 벌써 60이구나' 라는 생각이 일어났고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살 나이를 가지고 나오지. 그 나이가 60이야"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 순간 '내 나이를 다 살았구나. 앞으로는 남의 나이를 살게 되겠네. 남의 나이로 살면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도둑의 심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잠시 뒤 '그럼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났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정년 이후 나를 위해 명상센터를 짓겠다고 사 놓은 땅을 관계의 확장인 사회에 내놓기로 하고 사단법인 제주국제명상센터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인간의 삶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Janet Surrey(1991)는 그의 '관계문화 이론' 에서 "명상은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명상은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대화과정에서 명상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감정, 생각, 기억을 말하는 동안 그 말을 듣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등 순간순간의 현상에 주의를 기울인다. 명상하는 사람은 이러한 순간의 지각을 상대를 돕는데 사용한다. 이것은 상대의 살아있는 실재, 즉 상대의 말이나 목소리, 감정, 신체언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자기' (self-in-connection)에 대한 통찰은 상대의 자기실현을 증진시킨다. 상대가 지나치거나 부끄럽지 않게 하고, 수용과 함께 현재에 존재하기를 돕는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순간의 진실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는 관계적인 이미지나 자기를 한정시키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자기와 타인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 집착했다면 그 관념에서 벗어나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명상은 관계과정에서 나의 성장과 타인의 변화를 도울 수 있다. 개인은 혼자 변하지 않는다. 상대와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순간을 온전히 만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명상은 명상하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상대를 변화시키는 관계의 확대, 즉 세상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한다. 명상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 그렇다면 명상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나와 세상의 관계가 확대될 수 있는가?

나와 세상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 라는 에고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허심(虛心)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남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 매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나 지식, 가치, 종교, 경험 등 현상학적으로 상대를 만난다. 이러한 자신의 삶의 경험들로 상대를 만나다보니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한다. 상대의 어려움을 나의 주관적 판단으로 해석하여 조언을 하거나 배려를 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허심의 상태, 즉 에고가 없는 상태로 상대를 만나게 되면 매순간 상대의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다. 마치 풋볼 선수가 한 순간도 공을 놓치지 않고 시야에 넣어 두고 있는 것처럼, 권투선수가 상대의 움직임을 매순간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명상가는 상대의 몸과 마음의 현상을 놓치지 않고 만날 수 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연속적이고, 한 순간의 알아차림이 다음 순간의 알아차림으로 연결되며, 직전의 알아차림의 순간은 다음 순간의 알아차림의 순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마룻바닥의 널빤지 사이에 틈이 없을 때 먼지나 모래가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없듯이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으니 그 사이로 잡념이 끼어들지 않는다.



명상, 나·타인 동시 변화시켜
虛心 상태서 '나' 란 에고 내려놓고
상대 존재 '있는 그대로' 만나야

가령 상대가 전화 받지 않으면
'나를 피하나?' 란 생각 피하고
'전화 안 받는' 현실만 볼 것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 생각은 힘든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내가 경험했던 과거로 가거나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어떠한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은 현재를 방해한다. 예를 들면, 조금 전 만났던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생각이 일어날 것이다. '나를 피하려는 것일까? 배터리가 다 되었나? 전화기를 잃어버렸나? 샤워 중인가?' 어떠한 생각과 판단도 정확하지 않고 생각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가장 정확한 판단은 '전화를 받지 않는구나' 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단정할 때 마음은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서 멈추게 된다. 세상은 실제대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생각대로 본다. 우리는 실제와는 다르게 보면서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충돌이 일어난다. 어떤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른 사람이 보면서 똑같은 현상을 보았다고 한다. 명상은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로 향하면서 걱정과 근심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머물게 한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하면서도 마음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을 한다면 지금을 만날 수 없다. 〈육조단경(六祖壇經)〉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 순간에는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도 없다. 지금 이 순간은 절대적인 평화이다. 여기엔 영원한 기쁨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에 있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 가 있으므로 현재의 기쁨을 놓친다. 그 원인은 우리가 현재를 만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를 만날 수 있는 힘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 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밉다, 곱다, 좋다, 싫다' 라고 하는 특별한 마음을 짓지 않고 보는 것이다. 마음을 짓지 않고 바라보는 힘이 없으니 현재를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짓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힘, 주시력을 길러야 한다. 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는 경험하는 자기와 주시적자기가 있다. 경험하는 자기는 행동할 때 작용하는 자기다. 주시적자기는 경험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다. 주시적자기가 잘 발달된 사람은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행동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 대상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은 주시의식과 체험의식, 즉 주시적자기와 체험적자기로 분리되어 이들 간의 탈동일시가 일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 가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에 반응한다. 그러나 명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상태를 주시하는 자기주시의 힘이 있어서 '주시하는 나' 와 '주시되는 나' 로 분리가 일어난다. 주시적자기와 체험적자기가 분리됨으로써 자기경험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탈동일시가 일어나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탈동일시가 지속되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주시력이 향상되어 '자기라고 하는 에고' 가 사라지고 개인 안에 있는 큰 자아(Self)가 나타남으로써 세상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

이처럼 명상을 하게 되면 나를 안내하는 주인의식이 확대되어 나라고 하는 개인의 한계를 넘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되 지금 여기에 대한 알아차림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나는 비어있게 되고 세상은 편안하게 다가온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6년 한 해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2017년은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되 나를 넘어 세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확대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어떨까?

박태수 이사장은



1988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대학생생활연구소 상담부장, 교수 등을 역임했다. 1999년에는 제주붓다중앙클럽 총회장, 한국초월영성상담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제주대 명예교수와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으로 있다.

법인설립허가번호 : 제2012-43호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특허청 업무표장특허등록 제 42-0005657호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비상종단개혁회의장 겸 총무원장 장 운 운 산

본 종단은 2012년 관계기관에 법인설립 이후
지난 2016년 3월부터 구랍 11월 24일까지 종단 3대개혁(종단통일의제가사 및 법계품수, 총무원개원) 불사를 원만히 회향 "청정 비구종단과 종지종풍을 새롭게 개혁하고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종무행정을 새대에 걸맞게 유신 부처님 진리를 널리 홍포하고 특히 복지, 의료분야에서 폭넓은 다양한 법인 신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종단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 본 법인 총무원에서는 2017년 1월 9일 총본산 수암사에서 다음 아래와 같이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신년하례법회

■ 일시 : 2017년 1월 19일(목요일) 14시 ~
■ 장소 :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수암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45길 95
■ 전화 : H.P 010-5432-0108 TEL 02)939-3414

※ 사회복지, 장애복지, 의료재단 지부 모집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720-8270 FAX 02)720-8271 http://jogyejong.or.kr / E-mail:jonggyo119@hanmail.net
총본산 :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천년고찰 수암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45길 95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 당 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 경남 합천구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전화 055)932-7308

Universal Buddha Land (U.B.L.)

위파사나 수행도량

성 불 암

주 지 옥 당

지도법사 반야시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복단 2리 433- 1 | 전화 053)614-7644

관 음 성 지

휴 휴 암

사부대중일동



■ 주소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 TEL 033)671-0093~5 FAX 033)671-0525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기원사**

사부대중일동

한국불교꽃예술연구원
보림꽃예술중앙회

꽃꽂이 강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 02)918-0034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재단법인 진각미란다

보편적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재범없는 '미란다 불교 민영 교도소'

이사장 **이용도**

사부대중일동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30길 5 진각빌딩 2층
(아현동 346-33)

전 화 : ☎ 02)363-8105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1129호 현대불교
2017년 1월 1일(12월 4일) 일요일 / 불기 2561년

망상은 망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면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파서 오는 사람은 아픈 걸로 재료를 삼아서 공부하고, 가난해서 오는 사람은 가난을 재료로 공부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서로 이렇게 엇각이 나는 사람은 그걸로 재료를 삼아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천차만별로 여러분은 갖은 각색의 재료를 다 가지고 오시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오시는 대로 공부하시면서 또 집안에서 용도에 따라서 생기는 재료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재료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실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럴 때 바로, 하나하나 탑이 쌓아 올라져 갈 때 나중에는 물리가 탁 터지면 봉우리 하나 척 올려놓는 격이라. 봉우리 하나 척 올려놓는 게 돈오라 한다면 쌓아 올라가는 게 점수야.

그러니 모두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착오가 없이 건강하게, 거기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했을 때 벌써 마음이 편안해져. 왜냐하면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공장에 데모가 나고 이런다면 그거 편안하겠소? 그런데 아주 잔잔히 일을 잘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소. 몸 건강해지니 좋지,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가니 좋지, 돈이 달아나가지 않으니 좋지.

항상 우리가 웃고 울고 이런 게 없이 스스로서 그 마음을 당당하게 둘 수 있는, 여여하게 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게 바로 자유인이라. 말로만 자유인이 되는 길이라고 해 놓고 실천이 안된다면 그것은 허망한 거다 이거야. 내일 천당에 가려고 믿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거의 부처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현실의 여러분 부처들이 생각을 해서 법신이 되고 화신이 되고, 여러분이 갖은 각색으로 다 되는 거니까. 아플 때는 의사가 되고, 좋은 데로 못 갈 때는 바로 지장이 되고 명이 짧을 때는 칠성이 되고, 물에 가서 고생을 할 때는 용신이 되고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지신이 되고, 모두 여러분 한 분이 천차만별로 화할 수가 있는데 그 도리를 모른다면 여기 갖다 놓고 빌고 저기 갖다 놓고 빌고 귀신 단지, 귀신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들 해서 몸 건강하게 고치고 자기가 자력으로서 고쳐 나가면서 가정을 튼튼하게 해 나가면서, 또는 남도 한생각을 내서 건져 줄 수도 있고…. 내가 건져 줬다고 으시대는 그런 마음 없이 말이야. 그리고 한번 지켜보면 그것이 바로 실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니까. 무당이 굿하는 것도 한번 실험하기 위해서 '안 돼! 너흰 그렇게 해선 안 돼.' 하면 하다가도 다 헤어져 버려. 그렇게 무서운 도리야, 이 도리가. 자비한 도리요, 법이야,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고상하고 마음이 당당하면 어딜 가서도 당당한 거고 겁이 나질 않아요. 어느 점쟁이가, 무꾸리쟁이가 아주 용하다고 그래서 우리 신도 하나가 공부하기 위해서 거길 갔대요. 그랬더니 말을 영 못하고 "아후, 선생님! 선생님이 날 좀 가르쳐 줘요." 오히려 그러더라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 가지고선 아, 뭘 가르쳐 달라느냐고, 내 점 보러 왔으니까 봐 달라고 그러니까 못 봐 주겠다는 거지. 여기에서 말이 안 나온다 이거야, 지레 눌려서. 그러니까 그런 타의에서 오는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세균성이나 이런 문제 등등 모든 것들도, 바깥에서 오는 것도 커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한마음의 도리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믿으면서 불상에다 뭐를 해 달라고 비는 게 우리 불교가 아니다 이거야. 이 불교라는 것은 끝 간 데 없는 진리예요. 이거는 너무나 광대무변한 법이다 이거야. 그러니 그렇게 빌러 다니는 것만이 불교인 줄 알지 말라 이거지. 어느 한군데 치우쳐진 국한된 종교가 아니다 이거야, 불교는. 그래서 예수교인이나 가톨릭교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했죠. "당신,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소?" 그러니까 있대. "그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대. 그게 불교다 이거야. 그러니 당신네들도 불교 아닌 사람이 없는데 당신네들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서 당신네 전부라고 그러지 말라 이거야. "당신도 불교고 당신도 불교고 풀 한 포기도 전부 불교 아닌 게 없다. 그게 잘못된 거라면 항의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항의 하나도 안 하데요.

우리가 지금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두 지수화풍을 먹고 살죠? 지수화풍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도 할 수 없죠. 지수화풍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붙어서 딛고 다니지도 못해요.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날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안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해라. 내가 이 세상에 난 것도 감사히 생각해라 이거야, 허망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났으니까 고생도 하고 아파도 보고 별짓 다 해 보고 별것 다 보고 별생각 다 해 보고, 그러기 때문에 내 차원이 높아져요, 그걸 전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다음 세상에 다시금 내가 나올 때는 정말이지 자기가 자유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정을 높이기 위하고 우리의 과정을 익히기 위해서, 무르익혀서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야. 고생하는 거를 갖다가 허물치 말라 이거야. 왜냐하면 고생하는 것도 그것이 외려 덕이다 이거야.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알게 되고, 죽어 가는 사람을 알게 되고 아픈 사람의 괴로움을 알게 되고, 가난한 사람의 경험을 알게 되고, 모든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극한 그 마음속에서 용솟음치는 그 용광로는 모든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의욕과 그런 능력과 그런 것이 부여된다 이거예요. 잠시 잠깐,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살 거를 그런 것이 언짢다고, 그런 것이 괴롭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몸뚱이는 가을 잎과 같아요.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낙엽이 져서 떨어지죠. 떨어졌다고 해서 뿌리마저 죽나요? 그렇듯이 인간의 뿌리는 영원한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내 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차원을 올리고 내릴 수 있으며 그 만사만생의 경험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으리까. 죽어 가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살아나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굶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자기가 그런 경험을 안 해 보고야 어찌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뜻을 알겠습니까? 오히려 복된 사람이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사는 사람도 한세상, 부자로 사는 사람도 한세상이다 이거야. 그런데 자기 몸뚱이도 버리고 가는 거를, 무엇을 바라겠소? 이렇게 살고 한 세상 가는 거나 저렇게 살고 가는 사람이나 똑같지만 그 고생하고 괴로움을 겪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 한 사람은 경험을 많이 얻어서 남을 지배할 수 있고 남을 리드할 수 있고 고생하는 사람에게 밥을 줄 수가 있고, 고생하는 사람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고 병고에 휘달리는 사람을 마음으로라도 뜨겁게 생각하고 눈물 흘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다음에 대통령으로도 태어날 수 있어. 대통령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경험을 다 쌓아 본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나와서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석존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너는 석가가 돼라! 그런 재목이 되는구나.' 이런 거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거든. 오늘 없는 내일은 없거든. 그러니 누구한테 따귀를 맞는다 하더라도 남의 탓을 하지 말라 이거지. 만약

☞ A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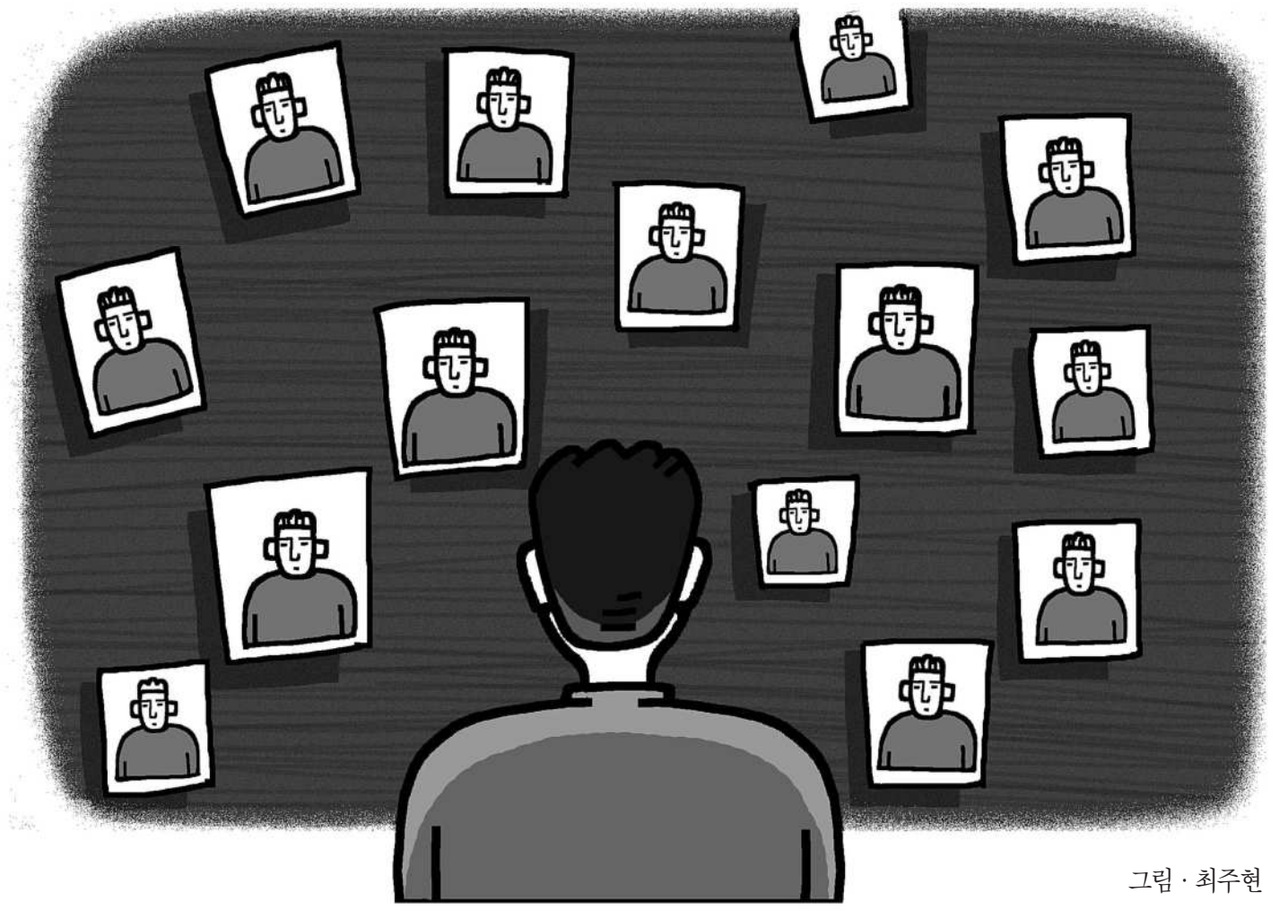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대한불교선교종

종 정 진성 법운
이사장 호월 화엄

총무원장 원경 삼주

전 종도 일동

입종을 환영합니다

불조의 혜명을 잇고 초대법왕 일붕존자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를 선도해 나아가고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본 종단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대덕스님들을 환영합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법당사진, 수계증 간부스님 추대장 및 위촉장
■ 입종문의 : 총무원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사)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 총무원 : 대전 중구 대흥로 88 다솜타워 7층 전관 / 전화 042)242-1080 / 팩스 042)252-1081

이 세상에 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세요, 모두.

☞ A29면에서 계속

에 언덕이 없더라면 소가 가다가 그 언덕에 비빌 수가 없거든. 내가 만약에 그 언덕이라면, 언덕이 있으니까 소가 비볐지 언덕이 없고 평전인데 어떻게 소가 비비고 갈 수 있나.

그렇듯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참 어려운 고비를, 어려운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많이 있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에 그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탓으로 또 그렇게 받을 거고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나한테 잘못한 것도 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그걸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건 그것대로 자기가 한 대로 하는 거니까. 아주 영원한 컴퓨터에 탁탁 입력이 돼 들어가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상관할 거 없다 이거야.

그러니 내가 있는 탓이다 이거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탓으로 돌려라 이거야. 그래야 모든 게 풍족해지고 물리가 터지고 세상만사를 다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포용력이, 두 팔을 벌리면 이 우주 천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생기게 돼.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늙어 죽어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시 나오게 되면 그때 대통령으로서 출마한다고. 그러니 있고 없는 거, 이런 거? 그 쓰라림을 당하는 거, 잠시 잠깐이야. 눈 깜짝할 새야. 그런데 왜 괜히…, 골이 비었나? 걱정 근심하고 괴롭게 살게. 골 비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허허허, 얘기해 드렸으니까 인제 아시겠죠?

질문자2(남) 예,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뱃속까지 다 얘기가 나왔잖아! 하하하.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알라신교나 남묘호랑개교나 티베트 불교나 보통 한국에서 믿는 불교나 가톨릭교, 기독교나 막론해 놓고, 부처님께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거든. 역대 조사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고. 왜냐하면 깨달음에 통달을 하면 바로 부처님의 골수라,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자리라. 그래서 모두 똑바로 가르쳐 주셨는데 근래는 도대체 중들이나 기독교인 가톨릭교인 그런 사람들이 전부 돈 중독이 들렸어.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가리지 않아. 신도 몇몇 이렇게 세어 가지고 팔아먹는 세상이야. 또 불교도 봐! 그냥 무슨 일이 하나 있으면 주욱 놓고, 거기 전부 놓고 빌게끔 만들어 놨거든.

어느 스님은 벽에다가 그냥 위패를 쫘악 해 놓고 불을 켜 놓고, 벽에다가 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집도 그냥 무지하게 크게 하고 벽마다 쭉 붙여 놨단 말입니다. 그저 큰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거든. 있을 수가 없지, 그거. 아까 얘기했듯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투면서 그걸 잘하려고 해 놔도 그 물질이 얼마나 가겠소? 내 몸뚱이도 얼마 안 가는데 그거 해서 붙여 놓은 게 얼마나 가겠느냐고. 그런데 오히려 위패를 해서 붙여 놓았지. 한 찰나에 미국을 오고 한 찰나에 한국을 나가고 한 찰나에 우주 바깥을 벗어나서 돌아야 하는데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게 되겠어? 뭐가 돼, 그게? 항아리 속에 넣고서 그냥 뚜껑 딱 덮어 놓으면 구더기밖에 더 슬어? 안 그럴까요? 이치로 따진다면. 내가 잘못된 말 했으면 누구라도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절에 사람이 있으면 부처가 있고 그 절에 사람이 없으면 부처가 없느니라. 그 절에 가서 꼬락서니를 보면 부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이나 모든 식물이나 이런 것도 떡잎부터 알아본다잖아. 또 질문할 사람 없어요?

질문자3(남) 자력 신앙으로서 주인공을 믿고 물러서지 말라는 큰스님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요, 오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오신통에 또 하나, 누진통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오신통에다가 누진통을 합하면 육신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또 하나로 보는 건지요. 그 다음에 그 오신통에서 무엇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스님 예. 그럼 그렇게 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몸뚱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오신통을 하면 육신통이 아주 제법 맞춰진 거죠. 구미다데(組立)가 딱 된 거죠. 이런 소리밖에는 할 수 없네. 하하. 그래서 우리가 '오신통' 하면 벌써 이 심안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전체 탐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스님, 여기 여기 구경 좀 갑시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 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보고 왔으면 스님네들도 다 보고 오셨어요?" "다 보고 왔지." "아이, 그럼 스님, 그 어디 어디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고 온 대로." 그러면 얘길 주욱 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다녀온 줄 알죠. 다녀왔죠. 한 찰나에 다녀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순간에. 그러나 그것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보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어떻게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아는 것도 보는 건데, 이것도 한쪽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달나라에 갔다 하면 전체를 보죠. 그러나 보는 것도 도가 아니라 했어요.

요거 인제 천안통을 말했고, 또 한 가지, 신족통이 있다 이럽니다. 신족통. 이 몸, 모습 없는 그 마음의 모습, 즉 말하자면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또 얼른 쉽게 말해서 타심통. "남의 속을 뻔히 다 알아도 그건 도가 아니니라." 요 세 가지 했죠? 그리고 숙명통, "과거를 전부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이 세상을 두루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이 다섯 가지 다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지금 이게 통이라고 합시다. 이 인간의 혹성, 혹성이에요, 이게. 그 혹성에서 바깥으로 벗어나야 혹성을 굴릴 수가 있거든. 이게 도예요.

(산회가가 끝나고)

모든 불은 하얀 눈으로 온 누리를 덮고
골짝마다 물 녹아 흘러내리는데
높은 산봉우리에는 칡뿌리 두루 뻗어 나고
눈 위에 칡꽃이 만발했네
칡꽃에 오고 가는 말이 없이
사랑의 씨를 서로서로 뿌리며 거두네
우리 모두가 한마음에 전달되니
우리는 앞으로 여여하게 떳떳하게 살리라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스님께 삼배….

큰스님 아니, 삼배 필요 없어. 그냥 앉아서 해. 감사합니다. 이 절하는 건요, 이 손을 한데 모으는 거는 마음을 한데 모으자는 뜻이요, 절하는 거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절입니다. 자기 주인공에, 주처에 자기가 절해서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를 익혀서 고개가 숙게 만드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절하는 게 아니요, 저 형상한테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귤들 잡수시죠.

신도(여) 스님, 노래 잘하신다 소리 들었는데. (대중 웃음)

큰스님 지금 노래했잖아. 지금 내가 노래하고 끝마쳤잖아. 여기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가수로 유명하던 분들이 이렇게 나와 앉으셨거든요. (대중 웃음)

여러분이 공부해서, 현실의 의식은 자(子)요, 무심의 의식은 바로 영원한 자기의 그 부(父)라. 그래서 부와 자가 상봉을 하면 여여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합류화시켜서 중도로서 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여한 자유인의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천이라고 할까 부활이라고 할까. 살아서 못하면 죽어도 없어. 허허허.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이 말씀하시기를 "눈 뜨고 푹 3년만 자거라." 이랬어. 그리고 또 "눈 뜨고 바로 성불을 해야지 눈 감고 어디를 본다 어디를 본다 하는 건 전부 허깨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눈 뜨고 여여하게 그대로 참선이 돼야 하고, 눈 뜨고 일하면서 행선이 돼야 하고, 그냥 앉았을 때는 좌선이 돼야 한다. 마음이 편안해야 좌선인 거지, 마음이 편안치 못하고 어떻게 좌선이 될 수 있겠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서서도 좌선이요, 일하면서도 좌선이요, 모두가 좌선이라. 망상은 망상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망상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용광로에 넣듯 다 한꺼번에 한데 한군데다 넣으면 그것이 바로 용광로에 넣는 과정, 즉 말하자면 이 공부를 하는 데 과정, 무심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살아서 열반을 하는 거지, 죽는 게 열반이 아니다 이거죠.

눈 뜨고 여여하게 그대로 참선이 돼야 하고
눈 뜨고 일하면서 행선이 돼야 하고
그냥 앉았을 때는 좌선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L.A.에 가서 개원식을 하는데 한 200명 300명, 전부 치면 그렇겠죠. 공부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였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 사람네들이 공부를 어떻게 잘하고 가는지 그건 뭐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게 만날 싸우고 그러던 집이 화목해지고 그렇게 착해질 수가 없었어. 이탈을 하고 그러던 아들들이 공부 잘하고 속 안 썩이니까 그렇게 좋아서 눈물들을 흘리는 거야.

그래서 값비싼 눈물을 흘려야지 값싼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냥 갈 수는 없다. 이 도리를 알고 가야 한다. 이거는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다 제치고 진리야. 우리는 진리를 공부하는 거야, 지금. 이름이 소용없어. 말이 무슨 소용 있나. 우리가 지금 이론과 지식과 학식, 상식 이런 거 가지고서 이 공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놔버리고 난 후에 이 나를, 부와 자가 상봉을 한 그 반면에 우리는 둘이 아닌 도리를 배우면서 그 상식과 지식을 거기에 부합해서 쓰는 거지. 이 도리, 알을 낳고도 병아리 못 까는 건 소용없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허허허, 내가 말해 놓고도, 허허 참…. 어서 잡수세요, 잡숫고 이젠 늦었으니까 가셔야 돼요. 가는 것도 없이 가고 오는 것도 없이 오셔야 참 좋습니다, 세상 살기.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이고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이야. 이 세상에 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세요, 모두. (시자 스님에게) 나 혼자만 심심하게 앉아 있으라는 말 마라. (대중 웃음) 얼른얼른들 모두 잡숫고들 가세요. 늦었으니까 이제, 주무셔야 또 내일….

신도(여) 저희들이 항상 금요 정진 12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큰스님 아이, 오늘 가, 어서. (대중 웃음) 댁들이 앉아 있으면 그냥…. 이거 봐! 일분일초라도 올바로 앉아 있으면 그게 참선이지만, 괜히 시간 보내고 몇 시간씩 좌선하는 건 좌선이 아니야. 옛날에 그런 예가 있잖아. 좌선을 앉아서 꾸부러뜨리고 하고 있으니까 스승이 참 답답해 죽겠거든. 그래서 너 앉아 있걸랑은 아주 앉아 있어야지 이 진리가 끊어지지 않지, 만약에 밥을 먹으려고 일어나거나 똥을 누려고, 오줌을 누려고 일어나면 진리는 끊어진다 이랬거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앉고 서고 먹고 싸고, 웃고 즐기고 울고 하는 게 전부 참선이야. 생활 떠나서 무슨 종교가 있어?

난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 기독교로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거기 강당에서도 바로 네 주처를 먼저 알아라 이거야. 그럼으로써 상봉의 길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상봉의 길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기 영혼도 못 건져. 어려워. 그냥 뭐 말로만 왔다 갔다 그러면 그게 어디 제자라고 할 수 있으며 불제자라고 할 수 있나.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잘 알아서들 하세요. 자유야. 다 안 와도 그만이고, 다 와도 그만이고. 그것은 자기네들 위해서 자기네가 하라는 거지, 내가 뭐 하러 춤추고 다니겠어.

어서들 잡숴요. 어서들 잡숫고 잡숫지 못한 게 있으면 들고 가요. 주머니 넣고 가요. 그래. 댁도 주머니에 넣고, 자! (대중 웃음)

사회자 스님께서 일어나셔야 신도들도 일어나겠는데요.

큰스님 그래, 나 일어날게.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위 법문은 1990년 12월 7일 뉴욕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謹賀新年

佛紀 2561年 丁酉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오온(육신,감각,지각,의지,분별)의 집착은 그 뿌리를 갈망에 두고 있느니라. (잡아함경)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마이산 쌍봉사
주 지 보 경
사부대중일동

■ 전북 진안군 마이산로 37-21
☎ 063) 432-0880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능가산 내소사
사부대중일동

■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 063)583-7281
홈페이지 : http://www.naesosa.org/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월명산 동국사
주 지 종 걸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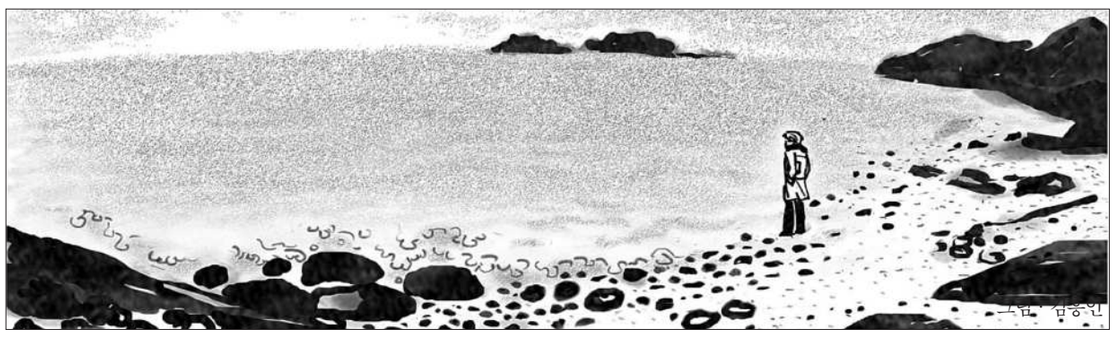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 063)462-5366
홈페이지 : http://www.dongguksa.or.kr/

신년 수상

한 꺼풀 어둠 벗는 새해 맞이하자



한승원
소설가



새 달력의 첫 장을 열었다. 불기 2561년, 서기 2017년이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더해지면 모든 것이 성장한다. 그렇지만 세월이 간다고 모든 것이 다 성장하고, 새해를 맞이했다고 무조건 새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절차탁마 하듯이 살아야 성장하고 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성장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고, 고차원적으로는 우리 눈앞을 가리는 어둠을 한 꺼풀 한 꺼풀 걷어내는 것이다. 그 어둠은 탐욕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답답한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

한 종교학자는 기독교의 성경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에서 '회개하라'를 '고정관념을 버려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선불교적인 해석하고 비슷하다. 고정관념을 버리면 새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나는 토굴 앞 바다의 모래밭과 조약돌밭에서 절차탁마를 읽는다.

"나는 이끼 낄 새가 없는 그의 그윽하면서도 강단진 삶을 압니다/ 썰물이 지고 있을 때에 여닫이바다의 물새알처럼 알락달락한 조약돌밭에 가면/ 침묵한 채 사유하는 물안개 같은 그의 숨결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밀물이 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가면 절차탁마하며 찰브락찰브락 속살거리는/ 금강석처럼 반짝거리는 시어들을 만지작거릴 수 있습니다 그는/ 천고의 시간에다가 빛과 바람과 소금과 신명을 섞으며 새가 되어 비상하는 꿈을 꿉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인들, 다닥다닥 한 데 어우러져 안으로/ 안으로만 모아지는 창세기의 빛 같은 내밀한 고독을 반추하고 사랑하면서/ 자기의 시공을 꿋꿋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시 '조약돌' 전문이다. 시라는 것은 고정관념 벗어나기이고 영혼이 새로이 거듭나고 깨어나는 기록인 것이다. 초의 스님의 삶을 읽어보면 나날이 깨어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초의 스님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눈앞을 가리는 꽃나무를 쳐내니 먼데 산이 보이네."

이것은 무릎을 치게 하는 선시(禪詩)의 한 대목이다. '꽃나무'는 우리들의 의식을 흐리게 하는 환혹의 세계이고, '먼데 산'은 진리이다. '꽃나무를 쳐낸다'는 것은 탐욕과 환혹과 오만의 세계가 그치게 한다(止)는 것이고 '먼데 산이 보인다'는 것은 개안 혹은 각성(觀)의 경계이다. 위의 시는 참선의 지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초지보살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초지보살의 경계는 우주적인 소통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친화적인 삶으로부터 시작된다.

시 · 소설 쓰는 건 나의 三世를 갖추기 위해
세월 간다고 성장하고 깨달음 얻지 못한다
항상 절차탁마해야 한 꺼풀 변화할 수 있어

도를 닦듯이 사는 자는 뜰 앞의 철쭉나무나 동백나무나 감나무나 강아지풀이나 환산덩굴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하고, 그것들을 내 속에 끌어들여 담아놓기도 해야 한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론가 가고 없고 문득 감나무 한 그루로 서서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바라보고, 바다를 내려다보아야 한다. 나는 어디로 가고 없고 한 마리 갈매기로 바다 위를 선회해야 한다. 나는 어디로 가고 없고 한 무더기 파도가 되어 출렁거리고 철썩거려야 하는 것이다.

바다로 나간다. 바다 앞에 서면 먼 바다에서 달려온 파도를 만나게 된다. 파도를 보면 늘 이 생각을 한다. 바다를 현상적으로 보면 파도만 보이지만 본질을 보면 물이 보인다.

한 늙은이가 바닷가의 가는 모래밭에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다라를 그리고 있다. 지나가던 자가 다가가서 지켜본다. 만다라를 완성시킨 늙은이는 몸을 일으키고 한동안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자기 발바닥으로 북북 지우고 뭉갠다. 지켜보던 자가 왜 그러느냐고, 아깝지 않느냐고 항의하듯 말했지만 늙은이는 말없이 가버린다. 지나가던 자는 그 만다라를 머리에 떠올리며 그 자리에 서 있다. 오래지 않아 밀물이 밀려들었고, 파도가 만다라를 북북 뭉개버린 늙은이의 발자국들을 지우고 있다.

바다는 죽음 없는 신의 얼굴, 영원한 시간의 몸짓이다. 죽음 있는 내가 죽음 없는 바다를 보듬고 살면서 시를 쓰고 소설을 쓴다. 그것은 나 나름의 만다라를 그리는 것이다.

무한한 시간의 모래 위에 유한한 시간인 내가 만다라를 그리는 것은 무엇일까. 밀물이 밀려오면 지워질 그 만다라는 시간에 먹히지 않고 시간을 먹고 싶은 나의 탐욕일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시간이 있는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과거 현재 미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이 시간이다. 시간은 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시간은 과거 · 현재 · 미래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파괴하는 신인 것이다.

내가 시를 쓰고 소설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갖추려는 것이다. 나에게 과거와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다면 나는 오래지 않아 시간에게 파괴될 터이다. 나는 시간에게 파괴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글을 쓰는 것이다.

나는 늘 나에게 말한다.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T.S 엘리엇은 시 〈J.S 푸르프록의 연가〉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유리창에 등을 비비대며/ 거리를 미끄러져가는 노란 안개에도/ 확실히 시간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만날 얼굴들을 대하기 위하여 한 얼굴을 꾸미는 데에도/ 시간은 있으리라, 시간은 있으리라/ 살해와 창조에도 시간은 있으리라."

나도 엘리엇을 따라 노래한다.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밭둑 논둑의 잡초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즐겨 사용하다가/ 혈액암으로 죽은 이웃집 노인을 조문하고 난 오후,/ 운동복을 입고 바닷가로 속보운동을 나가면서 중얼거린다,/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후배들과의 송년회를 위하여 올라탄 광주행 버스 안에서/ 초혼된 짝사랑 원혼들의 넋처럼 첫눈 소담스럽게 덮어 쓴/ 소나무 숲을 내다보면서 중얼거린다,/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북풍한설에 우는 풍경소리를 들으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며 보건체조를 하고,/ 저녁밥을 먹으러 엇차엇차 달려가면서 중얼거린다,/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가 은행 자동지급기에서/ 가난한 통장에 들어온 원고료와 인세 몇 푼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부정맥약, 천식 약, 거담 감기약, 항 알레르기약,// 전립선 비대증 약의 처방전을 끊고, 약국에서/ 약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중얼거린다,/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나는 늙바탕에 들어 있다. 바람 부는 날 빨랫줄의 집게에 집힌 흰 손수건처럼 펄럭펄럭 너울너울 춤추며 살아갈 (마음 가는 대로 살지만 법도에 어그러짐 없는 七十而 從心所欲 不踰矩) 자유를 얻은 이튿날, 내 생의 이면지에 붓글씨로 '이별 연습하는 시간'이라 쓴 바 있다. 세상의 굽이굽이를 더듬어보고 쓸어보고 주물러보고 속살을 응시하고 다가가서 냄새 맡아보고 안아보고 밟아보고 입 맞추고 핥고 빨아보는 이별 연습이다. 나는 수평선 너머로 너는 지평선 저쪽으로 훨훨 가뭇없이 사라져가야 하는 영영 이별 연습이다.

80세를 눈앞에 둔 나는 문득 우울증에 빠져들곤 한다. 노인 우울증은 영혼과 육체의 폐경으로 인한 정서불안과 절대고독일 터인데, 그것을 나는 여신 사랑하기와 시와 소설 사랑하기로 극복하고 해소하곤 한다. 오래 살고 싶었던 것도 탐욕일 수 있다. 나에게는 그 탐욕이 가장 큰 어둠일지도 모른다.

아, 새해에는 한 꺼풀 더 어둠을 벗어 던져야 한다. 해탈이다.

社說

한국불교, 결사 정신으로 다시 뛰자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15 인구총조사 종교인구 부문은 불교계를 충격으로 몰고 갔다. 정부가 종교인구를 정식으로 조사한 이래, 불교는 처음으로 개신교에게 추월돼 2위 종교로 추락했다. 여기에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종교인이 처음으로 종교인 수를 넘어섰다. 표본조사 방식에 문제 제기는 있지만, 탈종교화에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분명 종교 인구는 감소세이고, 고령화가 심한 불교는 인구 확장성에 있어서 그 예후가 좋지 않다.

이 시점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이 이야기한 봉암사 결사 일화가 떠오른다. '부처님 법대로' 살았던 봉암사 결사 참여 스님들은 재(齋)를 권하지 않았다. 오로지 〈반야심경〉 3독만을 해줄 따름이었다. 실망한 재주(齋主)들은 "스님, 이러시면 굶어죽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당시 결사를 이끈 성철 스님은 "산에 솔이 있고, 물이 있으니 굶어죽을 일이 없습니다"라며 재를 거절했다. 하지만, 봉암사에 사는 스님들이 도인이라는 소문이 삽시간 퍼졌고, 신도들이 재를 올려달라고 몰려들었다.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바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은 수행자로서 재가불자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고려 후기 보조 지눌 국사의 정혜결사도 요세 스님의 백련 결사도 그랬듯이 한국불교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자성의 움직임은 결사였다. 이 같은 결사들은 모두 부처님 법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며 수행정진했다.

한국 사회는 이제 탈종교사회다. 이 시점에서 한국불교에 요구되는 것은 변화다. 변화에 바탕에서는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자'는 결사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2017 정유년, 한국불교가 결사 정신으로 다시 뛰길 바란다.

원효대사 동상 방치는 국민모독

서슬퍼런 유신정권 시절인 1966년 광복절 때의 일이었다. 서울신문에 '애국선열들의 조상건립 운동'을 알리는 안내문이 등장했다. 이름하여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의 결성이었다. 당시 권력 최고 실세였던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총재를 맡으니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1968년 충무공 동상부터 덕수궁의 세종대왕 동상, 장충단 공원에 사명대사 동상이 세워졌고 1969년 이후에 세워진 것이 효창공원의 원효대사 동상이었다. 이와 함께 사직공원 이율곡 동상, 신사임당 동상, 시청광장 김유신 동상, 남대문 유관순 동상 등 애국선열조상건립위가 총 15기가 세워졌다. 이 단체의 활동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민족중흥'의 시대였으니 그 만큼 애국선열들의 존재가 긴요했기 때문이다.

50년이 지난 지금, 이 당시 세워진 동상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애물단지가 된 모양이다. 2011년 민족의 스승을 기린다며 세워진 효창공원 원효대사 동상이 녹이 슬고, 오물에 뒤덮혀 방치된 사실이 불교계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방치 원인은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각 지자체가 관리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벌이는 책임전가는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이 근본원인이 6년이 지난 지금도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

원효 스님 탄생 1400년을 맞은 2017년,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원효 스님이 펼친 화쟁과 회통의 사상이 필요하다. 갈등을 치유한 '민족의 스승'을 기리는 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는 1960년대 동상 건립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원효대사 동상을 방치하는 것은 불교뿐만이 아닌 국민 모독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기2561년 단기4350년 2017년 丁酉年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하시길 두손 모읍니다

禪의 향기가 그득한 …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본찰
미륵산 용화사
종정 석 연화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지차골길 30 (용암리)
• 전 화 : 033) 761-7008, 766-2556
• FAX : 033) 766-2557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서울사무소 02) 766-6800
창원 용화사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4 (봉곡동, 성우프라자 9층)
• 전 화 : 055) 277-2270

(사)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이사장 석 연화
■ 임 원 진
회 장 법붕 부 회 장 법성 부총재 고명, 법혜
원로원장 도선
원로위원 은곡, 효진, 원덕, 도현, 법원, 혜일, 경덕, 혜일, 해일, 소운, 혜상, 오연, 영암, 자운, 무영, 지성, 대경, 무각, 혜국, 해주, 해운, 혜광, 관연, 반야
■ 참여종단
대한불교동산조계종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세계불교평화종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총화종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대한불교화엄조계종 대한호국불교조계종 대한불교연화조계종 해동호국불교조계종 대한불교연화종 대한불교법상종 한국불교정토종 한국불교화엄종 한국불교전법조계종 대한불교본조계종 대한불교삼보조계종 한국육조선원 호국불교선미륵종 대한불교삼승종 대한불교대승법상종 (사)대한불교원융종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사)한국불교현조계종 (사)대선불교연합조계종 (사)한국불교극락조계종 (무순)
■ 참여단체
나라사랑국민연합 세계예술교류협회 한국민속예술연구원 전국의용소방연합회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한국풍수지리학회 세계평화유지군월남참전유공자회 세계족심도협회 911재난방송 경기예봉국악단 (무순)
•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501
• 전 화 : 02) 766-2556 / FAX : 033) 766-2557

세계불교 승왕청
세계승왕 석 연화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지차골길 30 (용암리)
• 전 화 : 02)766-2556
• FAX : 033)766-2557

진귀 수인(手印) 수행법



수인 수행법은?

80화엄경 제 17품 초발심공덕품에서 법혜보살의 게송중에 〈부처님의 복과 지혜가 무변함과 같아서 수인(手印)을 따라 집착함이 없음이로다〉에 근원한 수행법으로 불가사의하게 지은 집착덩어리를 자연스레 부수어 소멸되는 고멸도성제로 나아가게 하며 이러한 귀한 인연으로 스스로 사대가 강건해짐을 체득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해탈문을 찾는 불가사의한 수행법입니다.

▶문의전화 1899-9532

깨달음 산문은?

기존의 각종 기도법 및 수행법과 불교의식을 일체 하지 않는 곳이며,
오직.....
80화엄경을 현대식 버전으로 재번역한 깨달음 경전으로 독경, 사경, 법경수행을 함과 동시 독창적인 진귀 수인수행법으로 고통 해탈의 문을 여는 순수 수행 단체입니다.

2017년 무료공개강좌 일정

〈2017년〉

1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은 마음의 흔들림부터
일시 :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오후2시

2차 공개강좌 : 주제 : 집착 그리고 분노
일시 : 2017년 2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3차 공개강좌 : 주제 : 정견과 사견의 전도몽상
일시 :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4차 공개강좌 : 주제 : 붓다의 충격?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5차 공개강좌 : 주제 : 이뭣꼬?의 정체성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3시

6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 경전은 어떤것인가?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3시

7차 공개강좌 : 주제 : 범부의 고뇌와 희망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8차 공개강좌 : 주제 : 수행자의 고뇌와 희망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3시

9차 공개강좌 : 주제 : 일승기신론과 대승기신론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3시

10차 공개강좌 : 주제 : 고통과 병통은 괜히 오지 않는다
일시 :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2시

11차 공개강좌 : 주제 : 길없는 길속의 내비
일시 :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12차 공개강좌 : 주제 : 희망은 있다
일시 :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후2시

- 신청접수 : 각 회차별 무료예약 (선착순33명 제한)
- 문 의 : 1899-9532
- 강 사 : 깨달음산문 - 방장 진귀

※ 공개강좌 예약신청 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강좌부터는 예약신청 및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깨달음 山門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원효 스님이 남긴 사상
현대인에게 미친 영향은 B8



2007년 10월 19일 봉암사에서 열린 '봉암사 결사 60주년 법회'의 모습. 결사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변화의 원력이 담긴 몸부림이다. 현대불교자료사진

'결사', 한국불교 변화시킬 원력의 몸부림

다시 결사를 말하다

2017년은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동시에 봉암사 결사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이하는 움직임은 이미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리 불교 학술 단체들이 제일 앞을 달리고 있다. 그런데, 봉암사 결사 70주년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 크게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2016년 9월, 그동안('그동안'은 사반세기, 즉 25년이었다) 붙들고 있었던 결사 주제의 논문 7편을 묶어서 책을 펴냈다. 그 결과물이 〈결사, 근현대 한국불교의 몸부림〉이다.

책 속에 이미 봉암사 결사에 대한 긴 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봉암사 결사의 윤리적 성격과 그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10년 전 2007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주최의 6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이었다.

그 글은 무엇보다 결사의 청규(淸規)라고 할 수 있는 '공주규약'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었다. 나는 봉암사 결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윤리적 측면이라고 보았다. 결사의 주창자인 퇴옹(退翁,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라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는 제안과 다짐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제안 중에서 의미 깊은 것은 노동의 문제였다. 노동은 중국 선종에서부터 총림의 일상생활의 핵심으로 중시되었다. 백장(百丈) 스님의 말씀처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것은 오랫동안 수행자들 삶의 원칙이 되었다. 그러한 전통은 봉암사 결사 이전에도 맥맥히 이어져 왔다.

보조지눌의 정혜결사도 그랬고, 학명(鶴鳴)의 내장사 결사나 용성(龍城)의 망월사 결사에서도 그랬다. 모두 노동을 했다. 선을 하면서 노동을 했고, 노동을 통해 선을 닦았다. 노동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다. 수행자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봉사하겠다는 다짐이다.

부처님 법에 따르면서 노동을 하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선을 닦았다. 그런 봉암사 결사도 이제 70년이 되었다. 60주년 당시에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났다. 과연, 우리는 지금 부처님 법대로 살고 있을까? 기억하기 위해서는 되돌아보고 의미를 찾아야 한다.

결사는, 결사를 묻는 것이다

그런데 봉암사 결사는 옛날의 결사일 수 만은 없다. 결사는 현재도 행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자성과 쇄신 결사'다. 내 책 〈결사, 근현대 한국불교의 몸부림〉 서평회 자리에서도 그랬다. "'자성과 쇄신 결사'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하지 않는가"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랬다. 지금 행해지는 결사를 외면하고, 옛날에 있었던 결사만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다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또 있었다. 지난 11월 19일의 일이었다. 보조사상연구원 이사회를 마치고 점심 공양을 하는 자리에서다. 우리 불교사 연구의 권위자인 C교수님께서 내 책 이야기를 끄집어 냈다.

"김호성 교수, 이번에 나온 책을 보니까,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서도 있던데, '자성과 쇄신 결사'는 결사가 아닌데 왜 그것까지 이야기했어요?"

의문형으로 끝나도 질문이 아니다. 비판이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나로서도 대답을 하긴 해야겠지만 말이다. '자성과 쇄신 결사' 자체가 대답해야 한다. 실제로 아마도 '자성과 쇄신 결사'만큼 이러한 질문에 시달려온 결사는 없을 것이다. 왜 C교수는 '자성과 쇄신 결사'가 결사가 아니라고 말한 것일까?

나 역시도 내 책 제3부, '도전 받는 결사' 속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를 다루고 있었다. 아마도 지금까지 '자성과 쇄신 결사'를 다룬 유일한 논문이 아닐까 싶다. 만약 '자성과 쇄신 결사'가 C교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것이 결사가 아닌가라는 점을 다루기는 했어야 할 것이다. 어떤 점에서도 제외될 수 없다. 왜? 바로 '결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사를 '표방' 한다는 사실은 나름 중요하다. 반드시 '표방'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사가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표방' 하는 것은 중요하다.



봉암사 태고선원 서당의 전경. 봉암사 결사는 현대 한국불교의 현 모습을 만들었다.

보조 · 성철 스님 등이 결사한 이유는
"이대로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 때문
결사 근본은 "부처님 法은 무엇인가"
佛法대로 수행 · 운력했던 봉암사 결사
'부처님 법대로 살자' 보인 실천 도량

바로 계승의식 때문이다. 표방은 역사를 의식하고 자각하는 정신활동이다. '자성과 쇄신 결사'는 올해 70주년이 되는 봉암사 결사의 계승도 표방했고, 800년도 더 넘은 보조 스님의 정혜결사 역시 계승한다고 표방했다. 잘 계승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옛날을 물어야 하겠지만, '지금'도 역시 물어야 한다.

'자성과 쇄신 결사'에서 '지금'은 무엇인가? 언제인가? 조금 더 시간을 줄여보면, '자성과 쇄신 결사'를 선언했을 때이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나는 '담화문'이 바로 그것이라 보았다. 담화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고되고 힘들지라도 더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2년, 3년이면 완성할 불사(佛事)를 10년이 걸리더라도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혹 우리 내부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권력과 외부를 향한 의존을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자주권을 볼모로 순간의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해내야 합니다."

비록 형태적으로 보면, '종단 전체=결사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정신이다. 비록 결사가 아니라 한들, 이런 정신을 '표방'하고 있다면 그 역시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담화문'의 존재만으로도, '자성과 쇄신 결사'는 〈결사, 근현대 한국불교의 몸부림〉 속에서 자리할 만하다고 나는 판단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C교수가 제기한 것처럼, 그것이 결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그것보다는, 과연 지금도 '자성과 쇄신 결사'를 하는 사원(社員)들이 모두 이 정신을 잊지 않고, 그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는 것 아닐까. 달리 말하면, 결사의 사원이기도 한 조계종단의 모든 종도들이 '담화문'에 나타난 정신을 잘 지키고 있을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정신은 왜 차려야 하는 것일까

보조 스님은 왜 정혜결사를 했으며, 퇴옹 스님은 왜 봉암사 결사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냥 이대로는 불교가 안 되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2017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불교는 이대로만 쭉 가도 좋다", "괜찮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사는 무용(無用)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결사가 필요하다. 결사를 해야 한다. 불법의 생명선을 늘리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바로 결사다. 내 책의 제목은, 결사를 몸부림이라고 정의했다. 시적이면서 동시에 운동적인 제목이다. 비관적인 미래 전망 속에서, 그래도 한 번 이렇게라도 몸부림쳐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결사는 일어났다.

그러므로 결사운동은 호법(護法)운동이다. 어떻게 하면 법을 지킬 수 있을까? 나름으로 예리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에 처방을 제시하였다. 그 처방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것이 결사다. 그런데 내가 살펴본 많은 결사에서, 그 중심에는 하나의 고갱이(식물 등의 속심)가 있었다. 중심 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보다 정신이다. 그 정신, 결사의 정신은 윤리적으로 살겠다는 정신에 다름 아니다. 이때의 윤리는 청규(淸規)로도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욱 더 깊이 하나의 질문으로 나타난다. 부처님 법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던가? 그것을 챙기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선각자들의 몸부림이 결사다.

2017년은 봉암사 결사 70주년이면서, '자성과 쇄신 결사'에게는 거대한 도전이 밀려올 해라고 보인다. 과연, 조계종은 진정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를 결사로서 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시대의 아젠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진정한 결사였던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순간이 2017년에는 다가올 것이다. 물론, 단순한 아젠다가 아니라 결사이기를, 결사 이야기의 샘터가 되기를, 나는 염원한다.



김호성(동국대 교수)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BONG EUN SA

주지 원명

관도원
법법상
정덕지
지환탄
수상

선원장
총무국장
노전
교무국장
재무국장
사회국장
문화국장
포교국장
호법국장
교육국장
상담국장
주원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위기마다 변화 이끈 공동체 운동

한국불교 결사운동의 역사는?

결사(結社)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 불교에서 신앙 공동체 운동 형태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동진시대 혜원(慧遠. 334~416)이 여산 동림사에서 맺은 백련결사가 최초의 결사 운동이다.

동진 시기 불교계는 승단의 계율 문란과 권승들의 횡포로 불교의 권위는 바닥으로 치달았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결사라는 공동체 운동이다.

백련결사는 402년 혜원이 유유민 등 당시 지식인을 포함한 출재가 123명으로 시작한 결사로 이들은 무량수불(無量壽佛) 앞에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염불 수행을 했다. 염불 수행을 근간으로 하지만 그 배경은 참다운 불교 정신의 회복에 있었다.

국가 · 개인을 위한 결사들

한국불교사 안에서 결사의 시작은 통일신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왕즉불(王卽佛)' 사상이 있던 시대였던 만큼 국가를 위하거나 스스로의 수행을 위한 신행결사들이 있었다.

가장 유명한 것은 758년(경덕왕 17년) 발징 화상이 고성 건봉사에서 맺은 염불 만일결사다. 일설에 따르면 발징 화상은 염불 수행 29년만인 786년(원성왕 2년) 31명이 인로왕보살의 인도로 모두 육신등공(肉身騰空)해 왕생했다고 한다. 이 무렵에는 강원도 오대산에서 국가와 관련한 화엄사(華嚴社) 등의 결사가 조직되기도 했다. 9세기 초에는 신라의 불교 공인 과정에서 순교한 이차돈을 추모하기 위한 결사가 이뤄졌다.

고려시대 무인집권 이전에는 교종 계통의 수정사(水精社) 등의 결사가 있었다. 수정사는 1129년(인종 7년)에 법상종의 진억 스님이 주도한 결사로 참법과 아미타 신앙을 표방했다. 고려는 불교국가였던 만큼 수정사는 왕실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교단 개혁적 결사의 시작

개인적 신행에서 개혁적 성격으로 확장되는 결사는 12세기 이후 나타난다.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보조 지눌 국사(知訥, 1158~1210)의 정혜결사(定慧結社)와 천태종 요세 스님(了世, 1163~1245)의 백련결사(白蓮結社)이다.

지눌 국사의 정혜결사는 1188년 지금의 대구 팔공산 거조사에 머물면서 정혜사를 조직하고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을 발표했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모아 불교 쇄신운동에 들어갔다.

정혜결사의 사상적 근간은 '권수정혜결사문'에 담겨 있다. 결사문에는 "마땅히 명리(名利)를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함께 결사하여, 언제나 선정을 닦고 지혜를 가지런히 함에 힘쓰고, 예불하고 경을 읽으며 노동하고 운력하는 데 이르기까지 각기 소임을 나눠 일을 하자"고 기술돼 있다. 이는 근본을 지키며 불교를 변화시키겠다는 일성이었다.

요세 스님의 백련결사는 참회행과 미타정토신앙을 강조했고, 농민, 천민층을 포함한 피지배층의 호응은 매우 높았다. 요세는 날마다 염불했고, 입적할 무렵에는 원효의 징성게(澄性偈)를 쉬지 않고 외웠다고 전해진다.

통일신라 만일염불결사 시작으로
국가 안녕 · 개인 수행의 결사 진행
고려 이후 교단 개혁 결사로 확대

올해로 70주년 맞은 봉암사 결사
한국불교의 현재 기틀 만들어내

두 결사는 기존의 개경 중심의 불교계의 타락상과 모순에 대한 비판 운동이라는 성격과 지방 지식층을 기반으로 했다는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중앙 문벌 귀족을 대신해 이들 지방 지식층이 새로운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불교를 숭앙했던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건립된 조선은 숭유억불의 시대였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결사운동의 동력도 축소됐다. 이후, 근대화의 물결과 일제의 침탈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결사운동에 불이 붙었다.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스님은 1889년 해인사에서 수선사를 결성하고 수선결사를 시작했으며, 용성 스님도 1925년부터 1927년까지 망월사와 통도사에서 만일참선결사회를 조직해 수행을 통한 결사를 진행했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결사, 근현대 한국불교의 몸부림〉에서 학명 스님이 내장사에서 1923~1929년 이룬 반농반선의 공동체를 결사로 정의했다. 이밖에도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 한암 스님이 1921~1922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선회(禪會)를 주관한 것과 근현대 대강백 탄허 스님의 수도원운동과 역경불사도 보조와 한암으로 이어진 정혜결사의 현대적 변용으로 평가했다.

現불교 기틀 다진 봉암사 결사

근현대 결사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봉암사 결사다. 봉암사 결사는 1947년 10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봉암사에서 50여 명의 승려가 전개한 수행결사를 말한다.

당대 명망 높았던 수행자였던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은 1942~1943년 선학원과 속리산 복천암에서 함께 수행하며 결사의 의지를 다졌다. 이후 1944년 사불산 대승사 쌍련선원에서 두 스님은 총림 설립을 꿈꿨다.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은 해인사에 총림을 설치하려 했지만, 대처승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봉암사를 결사지로 삼았다.

봉암사 결사의 처음 시작은 성철 · 자운 · 우봉 · 보문 스님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었다. 법당과 전각에서 칠성탱화와 산신탱화를 뜯어내고 목(木)발우도 부처님 법에 맞지 않다며 부쉈다. 신도들에 대한 천도재도 지내지 않았다. 살림은 철저히 자급자족으로 유지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울력을 시행했으며 포살을 정례화했다.

이 같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일련의 수칙은 '공주규약'으로 제정됐다. 총 18개 조항으로 이뤄진 공주규약은 결사의 목적부터 자급자족, 기복불공 금지, 좌차, 의식주, 수행 준칙 등이 간결하면서도 상세히 기술돼 있다.

1948년에는 결사 참여 수행자가 30명으로 늘었고, 1949년에는 50명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여자 중에는 묘엄 · 묘찬 · 지영 스님 등 6명의 비구니 스님도 있었다. 비구니 스님들은 계율상 봉암사에 기거할 수 없어 봉암사 인근 암자인 백련암에 머물며 수행정진했다. 1950년이 되면서 봉암사 인근서 빨치산과 경찰이 대치하는 등 수행환경이 어지러워지자 결국 결사를 회향하고 참여자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 아래 치열하게 수행 정진한 이 결사는 현 조계종단 재건의 밑거름이 됐다. 봉암사 결사 정신은 성철 스님의 법문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가 어떻게 근본방침을 세웠느냐 하면, 오직 '부처님 법대로만 살아보자' 이것이 원(願)이었습니다. 즉, 근본 목표다. 이 말입니다." 〈**수다라 10집에 수록된 성철 스님 법어 中**〉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봉암사 결사의 재조명' 논문에서 "간화선 위주의 수행 풍토가 주류를 이뤘지만, 그 저변에는 청규와 율장이 자리잡고 있었다"면서 "수좌들은 예불, 청소, 나무하기 등 모든 사찰 일에 동참했다. 요컨대 건강한 참선수행이었다"고 결사를 평가하고 있다.

이어 "봉암사 결사는 식민지 불교의 극복을 위한, 즉 근대 불교의 모순을 청산하려는 강렬한 정신과 실천에서 대두됐다"며 "그 정신은 이후 불교정화운동의 추진 및 조계종단 재건과 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준칙으로 인식됐다"고 밝혔다.

계속 이어지는 결사 운동

최근에 와서는 조계종 종단 차원의 자성과 쇄신 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1년 1월 26일 시작된 자성과 쇄신 결사는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적폐와 부정적 관행, 외부 의존 등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뼈를 깎는 개혁과 쇄신을 통해 한국불교사에 남을만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성과 쇄신 결사는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부문으로 나뉘며,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가진다. 이후에는 100인 대중공사 등을 진행하며, 종단의 현안에 대한 여론 수렴, 장기 플랜을 세우기 위한 노력 등이 이뤄졌다. 올해 7년 차를 맞는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서는 "위로부터 이뤄진 친종권적 수사"라는 비판과 "대중 공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불자 개개인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눌의 정혜결사에서 봉암사 결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결사들은 선각자가 '부처님 법대로' 살아갈 것을 주창하고 이를 공감하는 대중들의 동참과 실천이 있었다. 그들의 결사는 한국불교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결사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역사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 주요 결사들

758년 발징 화상의 건봉사 염불만일결사
– 29년만인 786년 31명이 왕생했다고 함.



고성 건봉사 전경. 염불만일결사가 시작됐다.

1188년 지눌 국사의 정혜결사
–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 발표하고 불교 쇄신운동 전개



송광사 승보전에 있는 정혜결사 벽화.

1216년 요세 스님의 백련결사
– 참회행과 미타정토신앙을 강조. 피지배층 호응 높아

1889년 경허 스님의 수선결사
– 해인사 중심으로 진행



1925~27년 용성 스님의 만일참선결사회
– 망월사와 통도사서 진행



1947~50년 봉암사 결사
– 성철 · 청담 · 자운 · 향곡 스님 등이 주도



문 사이로 보이는 봉암사 태고선원.

2011~現 조계종 자성과쇄신 결사



2011년 참회의 절을 올리고 있는 스님들. 이는 자성과쇄신결사로 이어졌다.



“佛法대로 ‘답게’ 사는 것이 결사 근본”

원택 스님에게 듣는 ‘봉암사 결사’ 70주년 의미와 과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아난이 있었다면, 성철 스님의 곁에는 원택 스님이 있었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생전 22년을 시봉했고, 사후 24년 동안 스님의 추모사업에 열중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을 설립한 것도 은사인 성철 스님의 추모와 선양을 위해서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스님이기에 봉암사 결사에 대해서도 풀어 놓을 말들이 많았다.

가장 먼저 물은 것은 봉암사 결사의 의미였다. 성철 스님과 뜻을 함께 한 도반 청담 스님, 자운 스님, 향곡 스님 등이 시작한 봉암사 결사가 현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은 컸기 때문이다. 질문과 동시에 막힘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사(結社)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위법망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와 일제를 거치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한국불교를 살리기 위해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 등이 중심이 되어 봉암사 결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암사 결사의 큰 의미는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든 ‘자생적 결사’ 였다는 점입니다. 모든 일상생활을 부처님 초기 교단 형태를 갖춰가려 애를 쓰고, 청정성과 계율을 철저히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중단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다면 봉암사 결사는 대중에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것일까. 원택 스님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지금에 와서야 ‘봉암사 결사’ 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 당시에는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는 수행공동체로서의 개념이 컸습니다. 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사리탑 조성 모연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소식지로 〈고경〉을 창간했는데, 잡지를 만들다보니 자연스럽게 봉암사 결사에 대한 사실들이 술회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982년 스님께서 대중들이 봉암사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하니, ‘몇 번에 걸쳐 남겨야겠다’ 하며 당해 음력 5월 15일 관련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는 봉암사 결사의 역사적 자료가 됐습니다.”

봉암사 결사의 핵심은 ‘부처님 법대로 살자’ 는 정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18조항의 공주규약이다. 부처님 법대로 살기 위해 목(木)발우를 금지하고 흙과 철로 된 발우를 만들었다. 가사와 장삼도 통일했다.

공주규약에는 부처님 가르침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핵심내용들이 들어 있다. 모든 내용 하나하나에 부처님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단순한 ‘일제 잔재 청산’ 이 아닌 ‘근본적 개혁’ 의 기치가 내포돼 있다.

원택 스님은 “수행자로서 기본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봉암사 결사의 근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했다.

“봉암사 결사를 처음 시작할 당시 성철 스님은 재주(齋主)들이 ‘재를 올려달라’ 하면 〈반야심경〉만 3번 봉독해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재가 모두 끊어졌죠. 재주들은 떠나면서 ‘스님들은 재도 안 지내고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라고 걱정했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산 중에 솔이 있고, 물이 있으니 굶어죽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봉암사 스님들이 정말 부처님 법대로 산다’ 는 소문이 전해졌고, 신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재를 지내달라는 요청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반야심경〉 3번 봉독하는 것을 1번으로 줄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정성을 다해 수행하는 모습을 중생들에게 보이는 게 수행자의 큰 재산이다. 그렇게만 하면 절대로 굶어죽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로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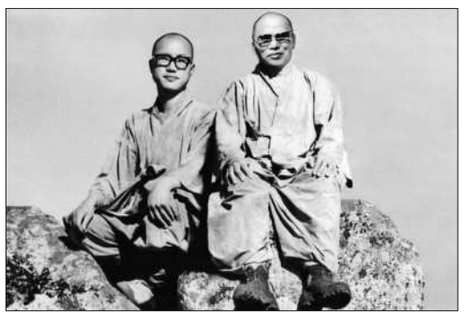


봉암사 결사 대중들의 규칙 ‘공주규약’. 18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부처님 法대로 살자’ 는 수행공동체
왜곡된 의례 · 수행풍토 등 변화 시켜

齋 모두 끊어져도 반야심경 봉독만
‘수행 잘한다’ 소문 돌자 신도들 모여
성철 스님 “정성 다한 수행이 재산”
백일법문도 봉암사 결사의 연장선

“불교 인구 추락… 결사 절실한 때”
수행자의 기본으로 회귀가 필요해



성철 스님과 원택 스님. 해인사 인근 남산 매화봉에서 찍은 모습.



원택 스님은… 1967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친구를 따라 찾아간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일만 번의 절을 하고서야 겨우 얻은 좌우명은 ‘속이지 마라’ 한마디. 그 후 다시 찾아간 성철 스님에게서 “니 고마 중 되라”는 한마디를 듣고 1972년 출가를 했다. 혹독한 행자생활을 거쳐 계를 받고 성철 스님을 곁에서 22년, 또 스님을 떠나보내고 난 후 24년, 이렇게 46년여 동안 큰스님을 시봉하며 살고 있다.
원택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도서출판 장경각 대표, 해인사 백련암 감원, 부산 고심정사 회주로 있다.
선(禪)의 핵심이 담겨있는 〈선림고경총서〉 37권과 성철 스님 법어집 11권 등을 편집 발간했으며, 최근에는 개정증보판 〈백일법문 상, 중, 하〉, 〈명추회요〉 등을 펴냈다.

성철 스님이 1967년 동안거에 시작한 백일법문도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수행자의 기본 정신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원택 스님은 설명했다.

“봉암사 결사는 눈 밝은 스님들을 만들고 싶은 마음, 즉 후배양성을 하겠단 일념으로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6.25전쟁으로 결사는 중단됐고, 이후에는 정화불사로 종단 안팎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철 스님은 1967년 해인사 방장이 되시기 전까지 수행만 전념하셨습니다. 하지만, 방장 소임을 맡은 후로는 ‘대중들도 불교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는 생각으로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려 하셨는지 알려주기 위해 백일법문을 시작하셨죠. 인재양성을 위한 하나의 교리체계로 법문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듯이 스님께서는 불교 역사를 중도(中道)로 회통하시면서 제대로 수행하자고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스님께서 1967년 백일법문을 하신 직후에 바로 책을 만들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한국불교의 현재 상황으로 넘어갔다. 조계종이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자성과쇄신결사와 최근 발표된 2015인구 총조사에서 불교 인구의 추락까지 원택 스님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자성과쇄신결사에 대해서는 100인 대중공사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총무원장 선거제로 인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대중공의를 통해 직선제 의견이 나왔으면, 가부의 결정이 있어야 했는데 중앙종회는 그냥 이월했다”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기여하지 못해 대중들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불교인구의 감소에 대해서도 “조사방식에 논란이 있지만,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스님과 불자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부처님 법대로’ 라는 봉암사 결사정신이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스스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청정승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철 스님 말씀대로 중이 중처럼 살아가면 왜 굶겠습니까? 스님으로서 바르지 못하니까, 신도들이 신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끼니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승가 스스로 자존심을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정신이고, 봉암사 정신이며 성철 스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원택 스님은 한국불교 승단이 자신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탁마해 눈 밝은 선지식들을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봉암사 결사는 성철 스님, 청담 스님 등과 같은 ‘낭중지추(囊中之錐)’ 같은 선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사에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추진력이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님의 주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스님들이 한국불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서는 세력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 청담 스님, 자운 스님, 향곡 스님 등 봉암사 결사를 이룬 스님들은 본인의 원력과 능력이 모두 출중한 선지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처럼 대중을 이끌어갈 스님들이 이 시대에 있는가. 이런 반성 속에서 수행하고 탁마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눈을 갖춰서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봉암사 정신으로 대중스님들 자신이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철저한 모범이 되는 수행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철 스님은 1982년 음력 5월 15일 법상에 올라 봉암사 결사에 대해 설했다. 법문의 말미에는 그 ‘기본’ 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가 신심으로 부처님 법을 바로 지키고 부처님 법을 바로 펴서 신도들을 교화하면 이들이 모두 신심을 내고 하여 우리 스님네들이 잘 안 살래야 잘 안 살 수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가장 잘 사는 것이 승려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좋으나 궂으나 할 것 없이 이 해를 완전히 떠나 신심으로 부처님만 바로 믿고 살자 이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행자로서 불자로서 기본을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 다. 그 기본은 부처님의 고준한 가르침이다.

신성민 · 박아름 기자



근하신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회	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학	장	덕민
부주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정수	재	무	성심
포	교	성요	호	법	성담
사	서	정빈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진현동)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4

깊이 인연을 보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떠나 밖에서 스승을 구하지 않는다. (장아함경)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지 태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TEL 054)931-7777
FAX 054)933-0808
www.gwanusa.org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부처님의 가피를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문수급식센터

센터장 효신

급식센터봉사자 일동

「매월 둘째 토요일-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점심무료급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주지 덕화
(포항불교 사암연합회장)
회 장 김중근
총 무 성도일
자원봉사회장 만법화
합창단장 수일심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두리 151
TEL 054)285-8516

천년기도성지, 삼국통일의 염원이 담긴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팔공산 **불 굴 사**

주지 덕조

신도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
TEL 053)854-0440
http://cafe.daum.net/bulgulsa.ok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운곡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주 법달

주지 철산
재무 지범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암**

하루헌 · 영남불교문화원

보현회신도회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휴대폰 010-3534-8950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지 포전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TEL 053)767-3971

요람에서 무덤까지 논스톱 시스템을 갖춘
도심불교의 신모델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전세 3천만원에서 세계적 도량으로
우뚝 선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는
불교인의 자부심이요, 한국불교의 비전입니다.
영험과 성취의 도량, 엘리트 불자가
다니는 도량, 33년 대수행 정진도량,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불자라면, 반드시! 한국불교대학입니다.

기도성취 및 천도대도량
대 한 불 교 조 계 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 대구큰절 (053)474-8228
(영대병원네거리, 지하철 1호선 2번출구)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문

사부대중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대선불교조계종
수도산 금봉사

* 동산 대종사 주석했던 사찰 *

주지 도문(혜동)

법회안내
매월(음) 15일(보름법회)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590-433
TEL 053)424-0876
FAX 010-6786-5830

풀뿌리 · 계율… 시대 맞는 결사가 필요하다

한국불교 결사 구현 어떻게

1947년 시작된 봉암사 결사는 현재 한국불교의 모습과 기틀을 닦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결사 정신 아래 '공주규약'이라는 수칙을 정하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1950년까지 수행 정진했다.

봉암사 결사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스님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조금씩 갈렸다.

한국 근대불교사의 권위자인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는 봉암사 결사를 '미완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김광식 교수는 "봉암사 결사는 해방공간 안에서 식민지 불교의 잔재와 모순을 청산 · 극복하려는 움직임이었고, 훗날 불교정화 운동의 정신과 이념에 영향을 줬다"며 "비록 6.25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중단됐지만 미완의 성공을 한 결사"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성과와 한계를 나눴다. 암울했던 시기 전근대에서 현대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결사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비불교적 요소들이 사라진 것은 분명한 성과라는 것이다. 한계에 대해선 "봉암사 결사를 주제로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전개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성찰과 비판적 관점서 바라봐야 극복해야할 점, 보완해야할 점, 계승해야할 점을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도 봉암사 결사는 한국불교사 안에서 갖는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율장을 근거로 한 참회와 계율교육이 크게 부족한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는 "봉암사 결사는 기복 신앙을 멀리하고 선 수행을 근간으로 삼고, 자립의 삶을 살았다. 이는 부처님 정신을 구현한 좋은 본보기"라며 "정말 문제는 봉암사 결사라는 가치 높은 이상이 이후 종단 상황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봉암사 결사, 잘 계승 · 구현됐나

도법 스님은 봉암사 결사가 제대로 계승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졌다. 스님은 봉암사 결사 50주년 당시 그 정신을 대대적으로 계승하자며 선언한 것을 상기시키며 "무엇이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스님은 "현 불교인들은 '과거는 좋았고 지금은 아니다'는 생각만 하는데 이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봉암사 결사는 그 자체로 훌륭하다. 하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새로운 결사 정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덕문 스님은 "전국에 많은 총림이 개설되고 선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율원과 강원이 개설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불교의 사회적 위상변화도 적지 않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하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승풍실추사건과 승가의 도덕성을 시비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종도들에게는 자긍심을 잃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제 제2의 봉암사 결사와 같은 수행결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승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사업단장 역시 긍정적 성과와 비판적 현실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했다. 그는 "봉암사 결사 당시에는 안거 및 참선 수행을 극소수 사찰에서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간화선 수행 및 안거를 100여 사찰서 하고, 총림도 생겼다. 이것은 분명한 성과"라면서도 "봉암사 결사에선 제사불공, 신중탱화, 칠성각을 다 없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고준한 지향과 발원은 퇴색했다. 오히려 제사불공 위주로 사찰 재정이 운영된다.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새로운 좌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법 스님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불암사 결사, 비판적 논의 필요해
바른 계승위해 심화할 필요 있어
復古보단 新 결사정신 창출해야"



덕문 스님 통도사 율원장

"봉암사 결사, 계율적 측면서 한계
부처님 법대로 5년 계율 교육 필요
현재 한국불교, '계율결사'가 절실"

'부처님 법대로'는 무엇인가

현재 한국불교가 봉암사 결사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되짚어봐야 할 것은 '부처님 법대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현재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다.

이에 대해 김광식 교수는 "봉암사 결사의 '부처님 법대로'는 당시 승려 및 승단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정립한 산물"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한다는 단순한 이야기다. 결사라는 것은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스님들은 봉암사 결사의 정신을 보고 '어떻게 나가야겠다'는 방향과 노선을 재창조해야 한다"며 "선배들의 옛 고민을 되짚어보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강한 자극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이 있어야한다"고 조언했다.

박희승 사업단장은 "결사는 부처님법, 즉 중도를 따르자는 것이다. 결국 부귀영화나 명예를 추구하는 세속적 삶을 초월해 진리의 삶을 살겠단 정신과 다짐으로 봐야한다"면서 "봉암사라는 하나의 사찰을 모범도량으로 세우고, 이곳에서 정진해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야말로 순수한 종교적 방식을 봉암사란 도량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모든 상황을 자성의 계기를 삼고 이를 탁마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일제청산 · 정화 등 미완의 성공
'부처님 법대로'는 성찰의 산물
현 상황 고민할 집단지성 나와야"

그렇다면 자성과쇄신결사는?

봉암사 결사 이후 현재 한국불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사는 조계종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자성과쇄신결사'다.

올해로 6년차를 맞는 현 종단 결사에 대해서는 긍정 · 부정의 평가가 함께 나왔다.

덕문 스님은 "자정과쇄신결사를 시작하며 눈길을 끈 것은 승가청규의 제정과 대중공사를 통한 종단의 청정성과 역할 증대를 도모한 일"이라며 "그러나 봉암사 결사의 공주규약과 쇄신위원회의 승가청규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부처님 당시에 시행되었던 여법여율한 승가시스템의 복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때 자정과 쇄신도 원만히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탁 교수는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종령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다. 100인 대중공사도 진행됐고 의견이 모아져도 종책적 반영이 된 부분은 드물다. 좋지 못한 정치적 수사로 그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성과쇄신결사를 이끌고 있는 도법 스님은 "결사라는 것은 불교집안에선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일인데, 아무 논의과정 없이 진행되니 이후 온갖 불신과 냉소, 부정, 비난들이 계속 있었다"면서 "총무원이 결사를 선언했다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지역으로 퍼트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100인대중공사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도법 스님은 "100인대중공사는 그야말로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는 장이다. 어느 편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지혜들을 모으는 것"이라면서 "'바보 셋이 모이면 문수지혜가 발휘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용광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종의 집단지성"이라고 강조했다.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

"봉암사 결사 정신, 진정 구현됐나
율장정신 살리고 청빈 가치 보여야
경전 근거한 교리 해석과 실천 중요"

한국불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한국불교에 필요한 결사는 무엇일까. 신규탁 교수는 "결사보다는 율장 정신을 살리고, 경전에 근거한 교리 해석과 사회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광식 교수는 "결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수, 궁벽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린다"면서 "하지만 현재 한국불교는 안주하는 분위기고 이러면 발전할 수 없다. 현재 불교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집단지성이 나타나야 올바른 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사업단장은 시대에 맞는 '부처님 법대로 사는 방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풀뿌리 결사를 하자'는 것이다. 그는 "현대 시대에 맞는 결사는 '풀뿌리 결사'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매우 다원화, 전문화됐다. 작은 단위서 일어나는 결사가 매우 소중하다"며 "생활 단위 및 지역사찰서 결사가 이뤄질수록 불교가 내실화되고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덕문 스님은 율사인 만큼 제2의 봉암사 결사는 '계율결사'가 돼야 한다고 봤다. 스님은 "제2의 봉암사 결사는 계율 근본도량을 마련해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하고 관심 있는 스님들이 그 곳에서 부처님 법대로 사는 삶을 체험함으로써 계율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봉암사 결사의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전 종도에게 의무적으로, 부처님 법대로 5년 이상의 계율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박희승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사업단장

"불교 힘들 때 나타난 변화의 동력
이젠 작은 단위 결사가 중요할 때
佛法에 대한 바른 이해 · 정리를"

신성민 · 박아름 기자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세계불교법왕청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世界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합동 대설법전

(미얀마 삼사 아사리 주석사찰 친견 대설법전)

불조의 법맥을 전해 받은 수법제자로서 스승의 법통을 이어받아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받고 四種鉤印하여 지구촌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계대화상과 3師7尊證阿闍梨께서 법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전수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법왕님과 법상자간에 因緣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서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얽혀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三師七尊證 阿闍梨 큰스님들을 찾아 뵙고 예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지라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世界佛教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大法會 2016.10.5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일 정 : 2017년 丁酉年 3월 1일 출발 (6박 7일)

■ 대설법전 :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 대설법전,
미얀마 삼장법사 주석사찰 대설법전,
양곤 불교회장 주석사찰 대설법전,
짜익티오 성 파고다 대설법전

■ 참가자격
- 5회에 걸친 세계불교지도자 합도 금강계단 수계자 전원
- 수계 희망자 사부대중 누구나

■ 참가신청 (미리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02)737-5665. 010-3618-6061
봉행위원장 010-8930-1785 / 기획실장 010-4467-9600

관리본부장 : 성각 대종사 합장
존증아사리 : 혜정. 남륜. 인경. 혜담. 제성. 현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법왕 비서실장 대승정 목탁 / 봉행위원장 대종사 대공 법혜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회 주 법계 명성
주 지 진광 합장
승가대학장 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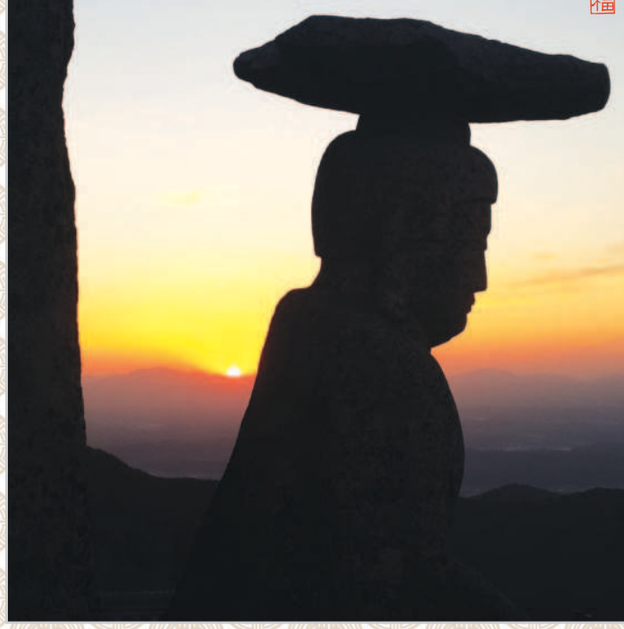
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전화 : 054)372-8800 / 팩스 : 054-371-0359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갓바위부처님!
저의 잘못으로 어둠에 헤메일 때
빛으로 나투소서

謹賀新年 福



높은 산중턱에 좌정하시어 묵묵히 자비와 지혜로 중생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시는 갓바위 부처님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도 어려움과 수고스러움을 마다 않고 갓바위 부처님 도량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본사 사부대중은 올해도 모든 이들의 소원성취와 인연공덕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丁酉년 새해에도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의 광명이 모든 가정에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서원합니다.

- 주지 법성 외 사부대중 일동 -

■ 천년을 이어온 법등,
천년을 이어갈 불사 · 12지 석등
■ 갓바위부처님 주변
연화석 조성 불사
■ 대웅전, 삼성각 동기와 불사

소중한 인연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053.851.1868
053.8 53.9877

대한불교조계종
삼 각 산 # 흥 천 사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 오시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대한불교조계종 낙 산 사

주지 도 후
사부대중일동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무산사(양양포교당)
· 낙산유치원
· 낙산사불교대학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무산 복지재단
·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타
· 양양군노인복지관
· 무산지역아동센타
· 의상도서관
· 양양시니어클럽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추서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추서

2017년 정유년 한 해에도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발원합니다.

이	사	불심 도문	이	사	장산 성춘
이	사	봉안 효경	이	사	무심 보광
이	사	서해 흥교	이	사	벽암 지홍
이	사	선효 성학	이	사	월천 혜총
이	사	장산 도업	감	사	월암 덕상
이	사	서주 태원	용성문도회 회장		경선
이	사	금아 혜국	대각회분원 회장		지암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목동 법안정사 · 횡성 대각정사 주지 **월천 혜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TEL. (02)765-2701, FAX. (02)741-1385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기적을 선물하세요"
TEL. 02-734-8050 www.lisa.or.kr

謹賀新年



정유년 한해도 불자 여러분 가정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업,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사업, 자살예방 교육 사업]

후 원 문 의 : ☎ 02-734-8050
온라인 후원 : 농협 053-17-001346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 면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謹賀迎新
2017년 丁酉年
불기2561년 / 단기4350년
www.samkwangsa.or.kr

좋은일을 하면 좋은일이 생깁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힐링사찰 삼광사

늘 좋은일을 만들어 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삼광사 주지 김 무 원 스님 외 사부대중 일동 합장-





송구영신
의망울림 문화축제 및
제야의 종 타종식

• 일 시 : 2016년 12월 31일(토) 오후 9시
• 장 소 : 삼광사 지관전 및 범종각
• 내 용 : 문화공연 및 타종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예불기도수행

새벽 3시 희망과 행복을 위한 새벽예불
오전 10시30분 가족건강과 화목을 위한 사시 천수관음기도
저녁 5시 안락과 평화를 위한 저녁예불
저녁 9시 행복·동행길 108참회계단 묵언힐링명상걷기수행
저녁 9시 직장인의 행복을 위한 108참회 관음기도
저녁 10시 걷기명상 힐링 탑돌이 수행
밤 11시 참 나를 찾는 수행 관음정진

대안불교 천태종 일링사찰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051)808-7111~6 FAX.(051)803-1332

해운대 해운정사

주 지 도 무
신도회장 박대성
사부대중 일동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전화 : 051) 746-2256 / 744-4812 홈페이지 : www.seon.or.kr

신비령산 소원천지탑
음이온 명상치유 선도량

마이산탑사

회주 혜명스님
주지 진성스님
총무 정해스님 홍보 진송스님
교무 보문스님 기획 정원스님

▶봉 사◀
연탄나눔 봉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진안군 어르신 생신잔치 봉사
전주교도소 불교반 특별법회
사랑의 백미나눔
대구분원 혜인정사 색소폰 봉사밴드
대구분원 혜인정사 연 꽃 봉 사 단
마이산탑사 색소폰 봉사밴드
마이산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 063)433-0012
www.maisantapsa.co.kr

ACE 잘가르치는대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세상을 움직이는 참사람, 양성 대학
Dongguk University Gyeongju

2016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중심대학 전국 15위 기록, 대구경북권역 우수교육중심대학 선정
교육부 '잘 가르치는 대학' 재진입, 8년 연속 ACE 대학(2011~2018)
교육부 대학특성화(CK) 사업 선정(2016)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우수 대학(2015~)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선정(2016)

• 교육부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2013~2017) • '파라미타칼리지'에서 인성과 역량 모두 갖춘 '참사람' 인재 양성
• 신입생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설치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선정(2015~)
• 동국엘리트장학 신입생 선발 정규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전액 지원, 매월 학업장려금 지급, 해외연수 파견 등 혜택

|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6. 12. 31 (토) 09:00 ~ 2017. 1. 4 (수) 18:00

문의처 054.770.2031-4 http://ipsi.dongguk.ac.kr

2017년도 대한불교조계종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무엇을 웃고, 어찌하여 즐거워하는가?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 세상에서,
그대는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데 등불을 찾지 않고 있구나." 「법구경」

| 개강일 |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저녁 7:30

강사진 소개 ※ 무근스님 : 불교수행, 고경스님 : 불교예절


회일스님(학장) 천수경


석현스님(부학장) 기초교리


성우스님 부처님생애


이창구 교수 대승불교


혜림 법사 불교문화

| 교육일정 | 1년과정 - 1학기(3월, 4월, 5월) / 2학기(9월, 10월, 11월)
| 수업일시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30 ~ 9:00
| 교 과 목 | 천수경,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교문화
| 수 강 료 | 수강료 30만원(교재비 별도)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일 ~ 2월 18일까지
| 준비서류 | 입학원서, 사진 2장
| 접수및문의 | 063)236-6633 강월거사님(불교대학 운영위)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urijel

※불교대학 졸업 후 조계종 포교사 시험을 응시할 수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東國大學校 佛教大學院
出家共同體 總東林 同門會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 고 문
자용. 법만. 학명

◆ 자문위원
경봉. 진우. 법경.
덕인. 혜진

◆ 명예회장
무문 스님

◆ 회 장 혜정
◆ 수석부회장 도원 혜성. 원행
◆ 부 회 장 혜인. 승현. 하담
◆ 사무총장 지담
◆ 총무부장 종산 ◆ 재무부장 지선
◆ 기획실장 지련 ◆ 수석감사 덕성
◆ 감 사 성담

◆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해천
◆ 학술분과 위원장 설봉
◆ 포교분과 위원장 명원
◆ 기획분과 위원장 법승

회 원 일 동

주소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1114호
전화 02)735-1053 / 사무총장 010-2313-5671

갈등의 시대, 해법 제시한 '和諍國師'

원효사상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상호인정–배려–소통–행복 구조
'화쟁회통' 논법… 현대 사회 대안
동아시아 사상가에 미친 영향 지대
100여 명명과 설화서 존재감 드러나

붓다와 원효

분황 원효(617~686)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방법과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고대 이래의 천신(天), 산신(地), 무속(人) 신앙을 아우른 풍류도(三才)와 접목한 불교를 통하여 종교적 '삶의 품'과 철학적 '앎의 격'을 높여 주었다. 원효는 지난밤(땅막)과 오늘밤(무덤) 잠자리 사이에서 '일심(一心)'을 발견하고 대자유를 얻었다. 그는 부처와 중생의 관계를 '일심지원(一心之源)'과 '일심(一心)'의 관계로 해명하였다. 원효는 유식의 아뢰야식과 여래장의 진망화합식의 구조를 통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대승기신론〉의 이문일심(二門一心)의 중층 구조를 원용한 독자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는 존재 이해의 양극단을 넘어서는 '중관(中觀)'의 길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용수는 '공관(空觀)', 승랑은 '정관(正觀)', 천태는 '묘관(妙觀)', 원효는 '화관(和觀)' 즉 '일관(一觀)'의 길로 펼쳐내었다. 여기서 '화(和)'는 '일(一)'과 '묘(妙)'와 '정(正)'과 '공(空)'과 '중(中)' 등의 다른 표현이다. 원효는 우리들의 '본래마음(心源)'이자 '하나를 향한 그리움'인 '일심(一心)'의 철학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을 적확하게 풀어내었다.

붓다의 가르침은 '사성제'의 수렴인 '중도'와 '십이연기'의 수렴인 '연기'로 전해져 왔다. 이것은 연기의 지혜와 중도의 자비로 언표되며, 상호의존의 연기법과 상호존중의 자비행으로 표현된다. 원효는 이것을 '귀일심원(歸一心源)'과 '요익중생(饒益衆生)' 즉 '상홍불법(上弘佛法)'과 '하화중생(下化衆生)'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일심지원'과 '일심', '본각(결정성)'과 '진여(신해성)', '일심'과 '여래장', '일승'과 '삼승', '개성(皆成)'설과 '각별(各別)'설 등의 다양한 범주와 구도로 해명해 내었다. 그리하여 원효는 부처와 중생, 즉 여래와 범부가 지닌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풍요롭고 이익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원효는 일심을 지니고 있는 중생이 부처가 되고, 범부가 여래가 되는 길을 화쟁(和諍)의 논리와 회통(會通)의 논법으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이론 중심의 틀에 서서 쟁론을 전회시키는 용수의 회쟁(廻諍)과 쟁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길장(吉藏)/혜사(慧思)의 '무쟁(無諍)'과 달리, 원효는 쟁론을 인정하면서 화회시켜 가는 '화쟁·회통'은 원효의 독자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심에 근거한 화쟁과 회통 즉 '화회'의 방법은 이후 현대사회의 모든 대립과 여러 갈등을 해소하는 주요 활로로서 원용되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심과 화회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의 서두에서 '일심의 근원'은 유와 무를 떠나서 홀로이 청정하고, '삼공의 바다'는 진과 속을 녹여서 깊고도 고요하다고 했다. 일심의 근원은 존재론적인 유무의 구분을 넘어선 자리이고, 삼공의 바다는 인식론적인 진속의 범주를 넘어선 지평이다. 즉 일심이라는 주체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고, 자아에 대한 집착인 아집을 넘어선 아공과 존재에 대한 집착인 법집을 넘어선 법공 그리고 이들 아집과 법집 모두를 넘어선 구공(俱空)의 바다는 피아(彼我)와 주객(主客)의 구분과 그것조차 넘어서게 한다. 이렇게 일심의 근원과 삼공의 바다는 우리를 존재와 인식에서 자유롭게 해 준다.

분황사는 고선사와 함께 원효의 주석처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들 두 사찰에는 모두 그를 기리는 비문이 세워진 절이다. 이 때문에 분황사와 고선사는 그의 존재감을 온몸으로 대표하고 있다. 절 이름이 '연꽃 중의 연꽃' 즉 '분다리카 중의 황제(芬皇)'인 것처럼 원효의 〈십문화쟁론〉과 〈판비량론〉 등에 담긴 논리사상이 인도 불교논리학의 대가인 디그나가 즉 진나를 이었다는 뜻에서 그는 '분황지진나(芬皇之陳那)' 혹은 '진나보살후신(陳那菩薩後身)'으로 불렸다. 또 그가 머물렀던 고선사에 세워진 '고선사서당화상비'에 나타난 것처럼 그는 '고선대사(高仙大師)'라고도 불렸다.

고려 의천(義天)은 형왕인 숙종에게 주청하여 원효에게 화쟁국사(和諍國師)를 추증하게 하였다. 그에게 화쟁국사를 추증한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의 사상적 기호가 '화쟁'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적 기호인 '일심'은 103부 208여권의 저술명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논리적 기호인 '화쟁' 혹은 '화회'는 〈십문화쟁론〉 뿐만 아니라 여러 저술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장은 〈대승기신론의기〉에서 원효를 '화회(논사)'로 일컫고 있다. 원효가 '일심논사' 혹은 '일심보살'이 아니라 '화쟁국사' 또는 '화회(논사)'로 불려진 것은 그가 철학적 방법론으로써 원용한 주요기호가 '화회' 또는 '화쟁'이었기 때문이다.

원효의 화쟁 회통 즉 화회(和會)는 '회통'을 통해서 '화쟁'해 가는 것이다. 여기서 회통은 '통(通)' 즉 '글이 서로 다른 것에 통하는 것(通文異)'으로, 먼저 방편적인 언교들을 모아내고(先會權教) 뒤에 실제적인 도리들과 소통하며(後通實理), '회(會)' 즉 '뜻이 서로 같은 것에 모으는 것(會義同)'으로, 같은 종류의 뜻을 가졌으면서도 표현된 문구가 서로 다른 것들(同流義有移文句)은 뜻이 같은 종류대로 묶어서 여러 경문들을 회통하는 것(以義類而會諸文)이다. 화쟁은 '해(解)' 즉 '다른 주장을 풀이하고 밝히는 것(解異諍)'으로, '화(和)' 즉 '경전 문장을 모아 푼 것을 조화하는 것(和會文)'이다. 이처럼 원효는 중도 일심에 의거하여 '통'→'회'→'해'→'화'의 순서로 회통하고 화쟁하였다. 그의 '화회(和會)' 도리는 이후 중국과 한국의 사상가들에게 계승되고 원용되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원효 이후와 분황종 그리고 원효종

원효사상의 영향은 여러 방면으로 미쳤다. 그는 의상과 같이 조직적인 교단활동은 하지 않았다. 대신 많은 저술과 대중 교화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원효에게 부여된 많은 별호와 자호 및 존칭과 시호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화회(和會)' 혹은 '화쟁국사(和諍國師)' 등이다. 이는 그의 지명도와 대중적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선사서당화상비'에는 만선(萬善)화상이 원효에게 불법에 능해 대덕(大德)으로 불린 9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전한다. 특히 분황사의 현륭(玄隆)은 대표적인 제자로서 원효의 〈겁의〉(劫義) 등을 전한 이로 보인다. 원효와의 인연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사복(蛇福), 그에게서 정(淨/錚)관법으로 지도받은 엄장(嚴莊) 등도 그의 제자로 추정된다.

이후 신라의 순경(順憬), 둔륜(遁/道倫), 태현(太賢), 표원(表員), 견등(見登)과 고려의 균여(均如), 의천(義天), 지눌(知訥) 등은 원효의 저술을 인용하거나 그의 논지를 원용하였다. 의천은 〈신편제종교장총록〉(3권)을 찬술하면서 〈고려교장〉에 원효의 저술 44부 88권을 입장(入藏)시켰다. 송나라 국사 찬녕이 '원효전'과 '의상전'을 〈송고승전〉(988)에 입전하면서 원효의 존재감은 동아시아에 널리 퍼졌다. 고려 중기의 의천은 숙종에게 주청하여 '화쟁국사'를 추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분황사효성문(祭芬皇寺曉聖文)'을 지어 "백가의 상이한 주장의 단서를 화해시켜, 일대의 지극히 공정한 이론을 열었다"고 평가한 이후, 김부식은 '화쟁국사영찬'을 지어 그의 학문을 크게 찬양하였다.

명종은 원효의 업적과 개성을 기려서 '화쟁국사비'를 추립하였고, 이규보는 '소성거사찬'을 지어 거사의 모습으로 원효를 기렸다. 고종 때의 하천단은 '해동수좌모'에게 주는 관고(官誥)에서 "백가의 상이한 주장들을 화해시키고, 선교를 다 함께 귀일시켜 회통하였다"고 하였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거리낌이 없는 원효(元曉不羈)'로 그의 가풍을 파악하였다. 고려 중후기에는 그의 유법을 계승한 이들이 모여 분황종 즉 해동종 역시 분황사에 머물면서 경전과 계율을 혁신하고 민중과의 광범위한 기반을 확보한 원효의 학문과 행화를 계승한 종단이었다. 당시 분황종은 상당한 세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기도 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중기 연산군 대에 불교교단이 사라진 이후 대한시대에 창종된 원종(1908)과 임제종(1910)이 이어졌다. 이후 다시 조선불교(1926), 조계종(1941)을 거쳐 대한불교조계종(1962), 한국불교태고종(1962/1970),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총지종, 대한불교불입(관음)종에 이어 대한불교원효종(1963)이 창종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용산구 행정구역 내에 '원효로'가 붙여지고, 원효초등학교, 원효로성당, 원동교회, 효동교회, 원효아파트, 효창공원 내의 원효대사상, 한강의 강남북을 잇는 원효대교 개설 등으로 인해 '서울의 원효'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한 전역에는 원효봉을 비롯하여 원효사, 원효암, 원효방, 원효굴 등 사암들 100여개의 명명과 연기설화가 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원효사상의 영향

원효에 대한 평가들은 모두 여러 상이한 주장들을 '화해', '귀일', '회통'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사상의 강력한 영향이 화쟁회통 즉 화회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갈등과 대립이 사라진 평화의 길은 상대가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절대적으로 틀리다거나,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거나, 옳을 수도 없고 틀릴 수도 없다는 사구(四句)의 편견을 넘어설 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먼저 1) 서로의 시간적 지연과 공간적 차이를 '인정'하게 된다. 즉 1-1)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남이 하고 있다는 것(無分別), 1-2)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남이 할 수 있다는 것(無執着), 1-3)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는 것(無所有)을 인정하게 된다. 2) 서로의 시공적 차연의 인정 위에서 '배려'하게 된다. 2-1) 그가 지닌 몸과 마음의 조건(條件), 2-2) 그가 지닌 현실과 상황(狀況)에 대해 배려하게 된다.

3) 서로의 배려 위에서 깊은 '대화'가 우러나온다. 3-1) 상대가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인식, 3-2) 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인식 위에서 마음이 열려진다. 4) 서로의 깊은 대화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 4-1) 서로 간의 깊은 대화 속에서 몸의 소통, 4-2) 서로 간의 깊은 대화 속에서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5) 서로의 소통 속에서 '행복(건강)한 삶'이 이루어진다. 5-1) 서로 간의 몸과 마음의 소통, 5-2) 서로 간의 몸과 마음의 소통을 통해 행복(건강)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구를 넘어서게 되면 상호의 인정-배려-대화-소통-행복(건강)의 연쇄 속에서 회사의 노사 갈등, 남북한의 이념 대치, 국가 간의 기후 대립 등의 충돌을 해소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구를 넘어선 원효의 화쟁회통의 논법은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널리 원용되어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염불수행, 윤회 벗어나는 지름길”

念佛覺者 列傳

① 연재를 시작하며



염불·주력 수행법은 일반 신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행법도 간단해 많은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사진은 천태종 재가안거에서 염불정진에 매진하는 불자들의 모습.

염불 주력 수행법… 불자들 접근 쉬워
천태종과 진각종, 진언과 염불 대중화
“염불 하근기가 하는 수행법 아니다”
선과 염불 함께 닦으면 만인의 스승돼

淨土는 육도윤회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

이른바 오탁악세 말법시대인 오늘날,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 종교의 타락과 세속화는 탈종교시대를 예견하고 있고, 불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승과 도인, 선지식이 부재한 상황에 처해 국민의 정신을 위로하고 이끌어갈 영도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불교도가 10년만에 약 300만 명 감소한 761만 명으로 제1종교에서 제2종교로 밀려난 것이다. 고령 신도가 대다수인 불교 인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청소년포교와 청장년층 신도교육 활성화를 비롯한 제도적인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행법의 대중화 · 생활화일 것이다.

알다시피 한국불교의 수행법에는 참선, 염불, 위빠사나, 주력(진언), 간경, 사경, 절하기, 방생 등이 있다. 참선은 한동안 조계종 시민선방을 중심으로 수행 붐이 불기도 했지만, 행법이 어렵고 일상 속에 지속하기가 쉽지 않고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질 않아 이제는 전문 수행자들만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말았다. 한 마디로 대중화에 실패한 것이다. 위빠사나 역시 근본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에 의해 서서히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형편이다. 반면 염불 · 주력 수행법은 일반 신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행법도 간단해 많은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칭명염불로 급속히 발전한 종단이 천태종이라면, ‘옴마니반메훔’ 진언수행으로 성장한 종단이 진각종이다. 이 두 종단은 불교계에서 제3, 제4의 종단으로 발돋움했으며, 쉽고 간단한 수행법의 이점을 가지고 앞으로도 교세가 확장될 전망이다. 또한 천태종과 진각종은 간단한 불보살님 명호나 진언을 생각하고 외우는 염불로 수행의 대중화에 큰 성공을 얻은 것이다. 신라 때 원효스님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표주박을 두드리며 온 백성들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쉽고 간편하고 효과적인 수행법으로서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자력과 타력이 둘이 아닌 효과적 불력 수행

이미 부처님께서도 염불이 범부중생에게는 가장 적합한 수행법임을 파악하셨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말법시대에 꼭 필요한 대안으로 미리 설해 놓으셨으니, 그 대기 법문이 바로 자력(自力)과 타력(他力)이 둘이 아닌 불력(佛力) 수행이다. 이른바 이행도(易行道: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길)에 해당하는 정토종(淨土宗) 또는 정종(淨宗), 연종(蓮宗)으로 불리는 염불수행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토법문은 사실, 하근기나 하는 차원 낮은 법문이 아니라 문수 · 보현 · 관음 · 대세지보살과 8종의 조사인 용수보살이 왕생극락을 발원했을 정도로 깊은 법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사찰을 창건한 양대 고승인 원효 · 의상대사께서 염불법을 널리 펴서 신라불교의 찬란한 꽃을 피운 바 있다.

일부 대중이 홀대하고 깎아내리는 염불이라는 수행법이 실은 위대한 성현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찬탄하고 닦았던 수행법임을 알아야 한다. 염불은 부처님의 한평생 교화의 정화(精華)이자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 중의 지름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염불의 최고 장점은 업장을 소멸시키지 않고도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인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帶業往生)는 데 있다. 게다가 일단 극락에 왕생하면 다시는 퇴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염불은 ‘성불로 가는 최고의 방편’이라 할만 하다. 탐진치 삼독(三毒)을 전혀 없애지 못해도, 또 일심불란이나 염불삼매에 들지 못해도 부처님의 본원력(本願力)에 의지하기 때문에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또 오역죄를 지은 극악한 죄인도 임종 시 한 번, 또는 십념(十念)의 염불로 극락에 왕생할 수 있으니 이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원력 덕분이다.

업을 지닌 채도 윤회계 벗어나는 묘법

염불이 횡적으로 윤회계(삼계)를 벗어나서(橫超三界) 업을 짊어진 채로 극락에 왕생한다는 것은 정토법문에만 있는 특별한 장점이다. 즉 일체의 다른 법문을 통해서는 반드시 수직적으로만 윤회계를 벗어날 수밖에 없고, 횡적(橫的, 공간적)으로는 절대로 삼계를 벗어날 수 없으니 수직으로 벗어나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횡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쉽기 때문이다.

한 가지 비유를 든다면, 긴 통대나무 막대의 마디 안에 벌레가 갇혀 있어서 대마디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만약에 대나무 마디 쪽을 향하여 수직으로 한 마디 한 마디씩 씹어서 구멍을 뚫어 대나무 끝까지 가고자 한다면 이는 수직적으로 삼계를 벗어나려는 것으로써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바로 대마디 옆을 향하여 대나무 마디 벽을 씹어서 구멍을 낸다면 이는 횡적으로 삼계를 벗어나려는 것으로써 대단히 쉬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정토법문이 다른 행법에 비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며 원만하고 즉각 깨닫는 법문임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인용된다.

이러한 법문만을 보더라도 오탁악세를 살아가는 범부들이 이 염불법문을 버리고 다른 수행에 의지하면 생사 해탈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마명 · 용수보살과 선도대사, 영명연수선사 등 수많은 불보살의 화신들이 인간의 몸으로 다시 사바세계에 오셔서 염불법문에 의지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셨던 것이다.



중생을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인도하고 접인하시는 석가모니불(右)과 아미타불을 형상화한 이하백도도(二河白道圖).

상중하 모든 근기 닦는 효과적 수행

이 정토법문은 중국에서는 당나라 이후에 선종사찰에서 염불을 병행해 수행하면서 선정쌍수(禪淨雙修: 참선과 정토수행을 같이 닦음)의 전통으로 자리잡아 원나라 이후 오늘날까지 중국과 대만의 주 수행법으로 정착되었다. 현재 대만과 중국의 선종사찰에서도 염불법을 병행할 정도로 염불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수행법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의 억불정책으로 중국의 정토법문이 거의 전해지지 못했고, 신라 원효 스님의 일심정토 염불수행의 전통마저 희미해지고 말았다.

이 염불법문은 상중하 근기 모든 수행자가 할 수 있으며, 가장 쉽고 빠르며 효과적인 수행법으로서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수행방편이 되고 있다. 오늘날, 화두참선과 위빠사나 위주의 자력수행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도 윤회를 벗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반면, 염불 수행자들은 살아서도 안심을 얻고 불력의 가피를 입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동시에 미리 임종을 준비하고 염불을 하면서 극락에 왕생한 이가 역사상 부지기수이며, 현재도 극락왕생한 이들이 적지 않다.

이 극락이라는 정토(淨土)는 육도윤회를 벗어난 보살지 이상의 구도자가 머무르는 깨달음의 세계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 불자 가운데는 극락이 육도 안의 천상의 한 곳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염불을 하근기가 하는 낮은 수행법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한국불교가 더욱 대중화되지 못한 큰 원인이 되었다.

禪과 염불 함께 닦으면 ‘뿔 달린 호랑이’

이제라도 간화선 위주의 한국불교가 생활불교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염불수행의 대중화가 아주 절실하다. 염불이 살아나면 불자들의 신심도 살아나고 선종 역시 더불어 살아날 수 있다. 특히 염불삼매의 경지는 선의 삼매와 둘이 아니어서 많은 선지식의 출현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이다. 선종(법안종)의 조사이자 연종의 조사이기도 한 영명연수선사가 남긴 유명한 선종사료간(禪淨四料簡)에 참선과 염불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묘법이 담겨있다.

“참선수행도 하고 염불수행도 하면 마치 ‘뿔 달린 호랑이’(戴角虎) 같아 현세에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장래에 부처나 조사가 될 것이다. 참선수행은 없더라도 염불수행만 있으면 만 사람이 닦아 만 사람이 모두 가나니 단지 가서 아미타불을 뵙기만 한다면 어찌 깨닫지 못할까 근심 걱정하리오. 참선수행만 있고 염불수행이 없으면 열 사람 중 아홉은 길에서 자빠지나니 저승 경지가 눈앞에 나타나면 눈 깜짝할 사이 그만 휩쓸려 가버리리.”

역사상 출 · 재가의 많은 고승 대덕들이 마음을 깨달은 후 염불로 보림하면서 윤회를 벗어나 극락정토에 왕생하였다. 그들의 구도과정과 수행법을 통해 참선과 염불이 둘이 아니며, 선(禪)과 염불을 함께 닦으면 ‘뿔 달린 호랑이’가 되어 살아서는 만인의 스승이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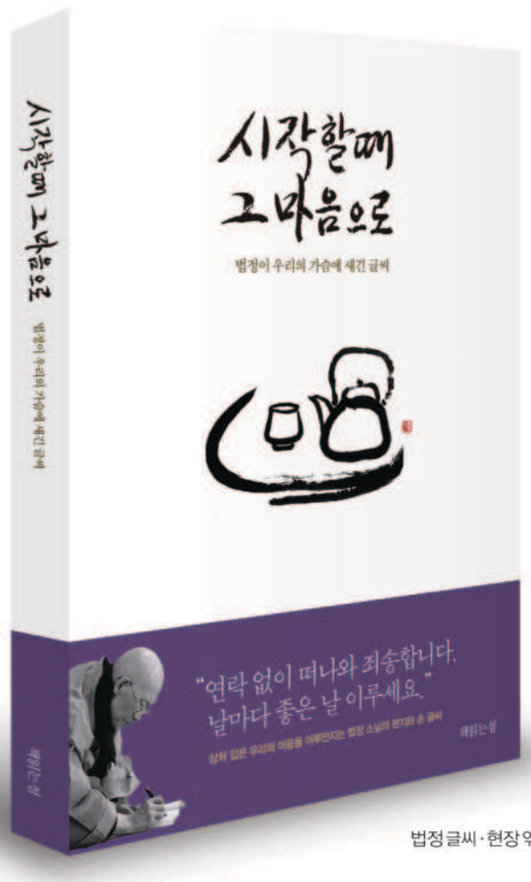
게다가 이생의 명이 다한 뒤 정토에 왕생한 후 불퇴전지에 올라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마침내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일대사를 완수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앞으로 연재를 통해, 일심을 깨달아 염불로 보림하고 중생을 제도한 뒤 생사 해탈한 고승대덕의 일화와 구도과정을 정토법문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염불수행을 되살리는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대표)

법정이 우리의 가슴에 새긴 글씨



연락 없이 떠나와 죄송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이루세요

7년 전 우리 곁을 떠나간 법정 스님의 알려지지 않은 발자취, 타 종교와 두루 교류했던 이야기, 지인과 도반들에게 보낸 편지와 선시를 손 글씨와 함께 엮은 책이다.

법정 스님의 명동성당 강론 최초 공개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정 스님의 편지와 손 글씨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법정글씨·현장엮음 정가 12,800원 책읽는섬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10

일체법의 성품을 중생들은 알지 못하니 온갖 물질에 집착하고 얽매여서 여섯 감각 기관은 미혹되기 마련이다. (허공장보살경)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정효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뿐다리까

불교문화예술원
하얀연꽃외국인쉼터

원장 현진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51길28
(이곡동 3층)
TEL 053)581-2013
FAX 053)581-2010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종무원

자비원

'불자의 안식처'

종무원장 석불
주지 법선
무진 · 무운스님
사무국장 이홍순

■ 부산광역시 동구 조천4동 883-8
TEL 051)644-8361
FAX 051)642-8361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부설 학교법인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이사장 운곡돈관
교장 이희영
교감 이봉오
행정실장 김인수
법인사무국장 강희종

「새롭게 도약하는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의 가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 7번지
TEL 054)333-3431
FAX 054)333-3432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

회장 류병선

www.yeonvia.com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9
TEL 053)721-8550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대구 운불련 호출택시

(한국 운전기사 불자연합회 대구지회)

회장 조신제

■ 대구광역시동구 용계동 763-11
053)766-7777,053)323-7777
053)566-7777,053)744-8888
053)764-0763~4
FAX 053)764-0766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장기기증 /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 결연사업

■ 후원계좌 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24(구.신암동)
TEL 053)945-0007/FAX 053)945-0008
■ 산하기관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TEL 053)944-0007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탁진규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FAX 054)955-8202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룡사

주지 효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0에 9045 또 9045

대한불교조계종

석가사

주지 경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보리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아미사

주지 덕현
신도일동

■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곡로 91길 14(지묘236)
TEL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회주 무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대한불교조계종

향림사

주지 정관
사부대중 일동

천수경 에세이집
「마음을 주는 손」 - 저자 정관스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1번지
TEL 053)767-7504

관음보살원만성취 지장보살업장소멸 기도도량

까치산 길조암

주지 보현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가야산 영통사

주지 혜오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2길 44
054)933-8475(팔자치료)
FAX 054)933-8476
010-8955-9800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주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륵사

주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불종사

주지 현진

■ 경북 경산시 남방동 276-2번지
TEL 053)802-4043

관음기도도량

수국사

주지 지원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3리
TEL 054)932-9847

'큰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상아유치원

이사장 자현
능인고등학교장 조상승
능인중학교장 김상만
상아유치원장 정인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 800)
TEL 053)764-0807, 232-9102/ FAX 053)763-1807

(株)玖峰·鍍金·精工

ISO 9000:2000 인증업체/QS 2000-1998 인증업체

代表理事 金明錫

■ 구봉정공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053)351-0009,4856 / FAX 053)352-1717
(주)구봉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053)582-0156 / FAX 053)582-0157
구봉도금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053)581-0009,8907 FAX 053)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11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금 정 사

주지 도성

■ 대구광역시 동구 큰고개로 67-20(신암동)
주지실 : 053)476-3320
종무소 : 053)944-5578
팩 스 : 053)943-557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

■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 052)295-2335 / FAX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 천 사

주지 선 지
(대구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류화산

< ″ ¸…ǂ >
· 동해유치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퉁 범음 .범패 교육원)

■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전화 054)974-2605 / 팩스 054)974-2705



지장불교조계종

팔공총본산 지 장 선 원

총무원장 지 공

법회안내

◇신중기도 점찰법회 : 매월 첫째 일요일
◇지장기도 천도법회 : 매월 셋째 일요일

지장보살 원불 명옥봉안 납골당

■ 대구광역시 동구 갓바위로 35 (진인동 234)
TEL 053)986-0151, 983-0152



해 운 정 사

주지 청명

청명노인복지센터

육재일 법회안내

(음) 1월 초하루 (음) 15일 보름
(음) 7일 아라한재일 (음) 18일 지장재일
(음) 8일 약사재일 (음) 24일 관음재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2동 1928-13번지(송현2길 35)
053-621-6237 / 010-3191-6237



홍기종합건설(주)

대표 황동열

문화재수리업 토목건축공사업

경남 김해시 칠산로 511-46(풍유동)
TEL 055) 329-2597~8 / FAX 055) 329-2596
E-mail : munhwajae2597@hanmail.net
웹하드 ID : hk2597 / PW : 3333

대한불교 법화종

수 참 사

주지 영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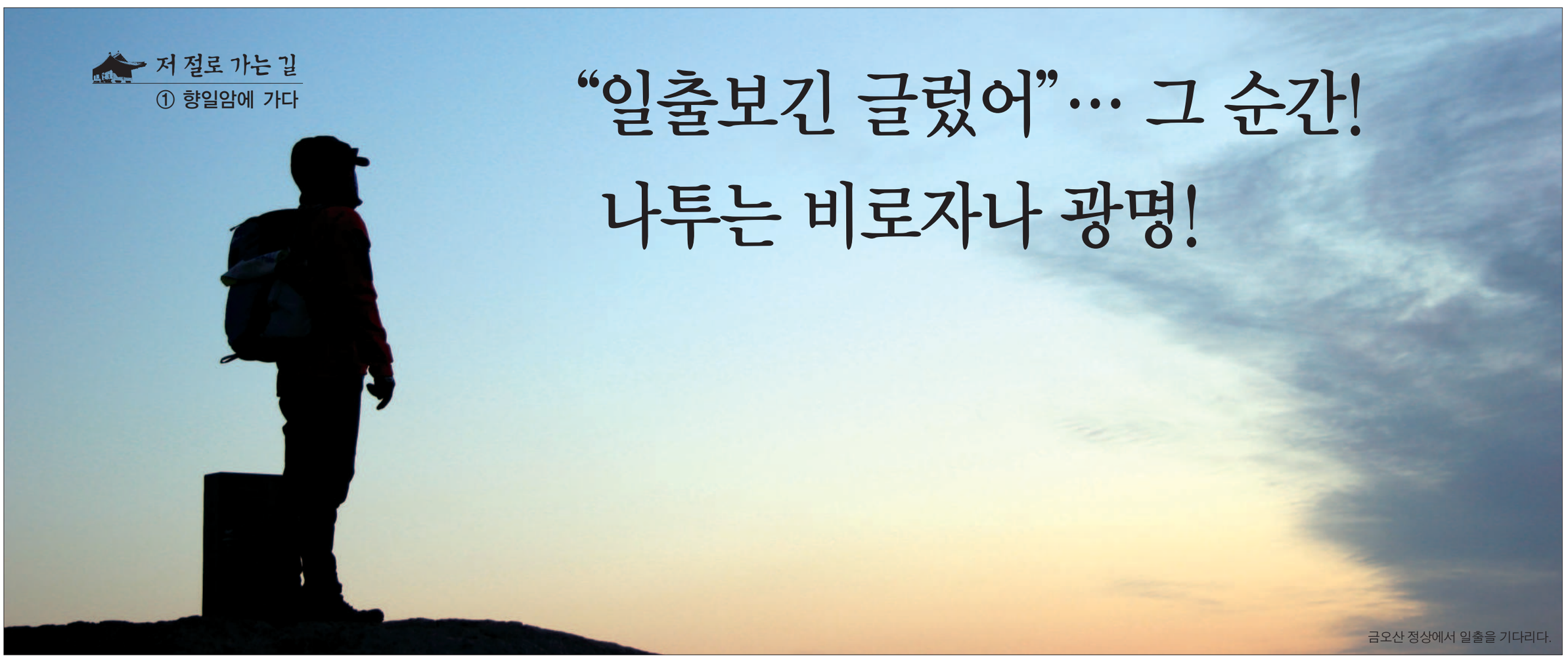
신도회원 · 관음회원 일동

고통의 삶에 기적은 일어난다.
한가지 소원만 말하세요.
'30년 전통 맞춤형 방편 전문도량'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137-1 (평리6동 640-5)
TEL 053)561-3129

저 절로 가는 길
① 향일암에 가다

“일출보긴 글렀어”… 그 순간! 나투는 비로자나 광명!


금오산 정상에서 일출을 기다리다.

아주 먼 옛날에는 신이 남아돌아갈 정도로 많았나 보다. 일상의 요소요소에 신이 깃든다고 믿어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을 섬겼으며, 다신교가 뿌리내린 일본에서는 심지어 도낏자루까지 섬긴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신은 또한 인간을 닮았으니, 신계(神界)를 보면 최고신과 최고신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들의 위계질서가 있었다.

한때 부처가 신 중의 신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도 인도인의 계급의식이 빚어낸 산물이다. 인도인은, 부처가 자연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에 버금가는 존재이기를 희망해서 그 이름에 바이로차나(vairocana)라 덧붙였다. 비로자나는 해의 광명을 뜻하는 바이로차나의 인도말 음사이다.

사찰에서는 대적광전(大寂光殿)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자나불을 모시는데, 크나큰 선정(寂)과 크나큰 지혜(光)를 품었다는 뜻이다.

부처를 해에 비유하기는 했으되, 그 차이점이 없지는 않다. 해는 구름이나 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으나, 부처의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은 언제나 온 세상을 비춘다.

여수반도 최남단에 솟은 금오산 323m에는 해의 형상으로 바다 위에 떠오르는 부처를 보러 사람들이 몰린다. 그들은 금오산 정상에 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해안선을 따라 절벽을 이룬, 150여m 높이의 향일암(向日庵)에서 해를 맞이한다. 특히 해가 바뀌는 시기엔 하루에 30여 만의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일출 명소라지만 향일암에 막상 가보면 제대로 된 일출을 볼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렇지만 바다를 물들이는 불그레한 햇빛만으로도 사람들은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한 듯 얼굴이 밝다. 언제 어느 때고 두루 세상을 비추는 비로자나불의 존재를 굳게 믿는 까닭이리라.

금오산에 올라 향일암에 가려면 3가지 코스가 있다. 향일암 일주문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는 길, 율림치 주차장에서 ‘유인김해김씨묘’를 지나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 죽포 삼거리를 기점으로 삼아 봉황산을 넘어오는 길.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는 너무 짧거나 긴 코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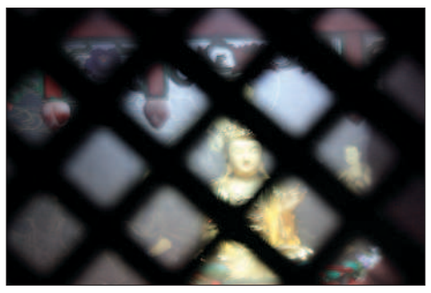
서울에서 밤버스를 타고 내려온 나와 도반들은 두 번째 코스 율림치를 들머리로 삼기로 했다.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한동안 제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별이 총총 빛났으며 그믐달은 캄캄한 밤에 손톱을 박은 채 묵묵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얼굴들에서 일출을 볼 수 있으리란 의견과 그렇지 않으리란 의견이 잠시 갈렸다. 우리는 이내 금오산 들머리를 찾아 걸었고, 헤드랜턴과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뚫고 능선과 골짜기 이곳저곳을 깨웠다. 불청객을 맞이한 나무와 바위와 흙들이 부스럭거린다. 겨울날의 새벽 추위는 남도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았다. 소백산이나 덕유산처럼 칼바람이 불진 않았지만, 이따금 찬 바람이 불었고 마른 나무들이 스산하게 울었다.

금오산 정상인 323m봉우리를 지난 우리는 예상보다 일찍 315m봉우리에 도착했다. 정상과 비슷한 높이로 겹쳐 있는 봉우리인데 금오산에서 가장 조망이 넓게 트이는 곳이었다.

능선에 부는 바람이 차서 우리는 몸을 잔뜩 움츠리고 걸었다. 그 모습이 줄지어 바다로 기어가는 거북이 무리 같았는데, 마침 우리가 오른 산이 바다로 기어가는 금거북이 형상이라는 금오산이었다. 250m봉우리를 향해 걷는 동안 먼바다의 수평선이 약간 동요하는 기색이었다. 250m봉에 닿자 바다와 하늘에 걸쳐있는 구름에 붉은빛이 살짝 감돌았다. 바다는 여전히 캄캄했으나 동이 터오는 하늘은 차고 새파랬다.

“수평선에 구름이 차오르는 걸 보니 오늘도 일출 보긴 어려울 거 같네.”


항일암 풍경에 와닿는 아침빛.


관음전 문살로 들여다보이는 관음보살상.


임포리로 내려서는 언덕길.

- 걷는길 : 대율마을 – 율림치 – 정상 – 315m봉 – 250m봉 – 향일암 · 임포리
- 거리와시간 : 4.5km 정도, 2시간 30분 예상

“여기 와서 제대로 된 일출 본 게 딱 한 번이었나? 거북아 거북아, 어서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주고받는 말끝에 누군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구지가(龜旨歌)를 읊조렸다.

향일암에서 우리가 서 있는 봉우리를 보면 영락없는 거북이다. 향일암의 본래 이름은 영구암(靈龜庵)이다. 신령스러운 거북이산에 들어선 절이므로 그런 이름이 붙여졌음이 틀림없다. 거북은 옛사람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문화적 스펙트럼으로 나타났는데,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선 산악신앙으로 발전했다. 향일암과 금오산이 그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수평선과 나란히 주홍색 구름띠가 일자진을 펴기 시작했다. 그 아래 해가 잠복했을 테지만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떠오를지 오리무중이었다. 하늘은 검푸른 접시에 홍합을 까서 속을 내놓은 듯 알록달록했다. 다들 해무를 뚫고 둥근 해가 솟아오르기를 기대해서 목을 내놓고 바다를 내려다보는데 누군가 맥 빠진 소리를 했다.

“일출 보긴 글렀어.”

그러나 실망은 잠시뿐, 꼭 둥근 해를 봐야만 일출을 본 것인가. 남도바다에서 세상이 깨어나는 원초적 풍경만으로도 도반들은 충분히 감격한 표정이었다. 삼라만상에 존재 이유가 있듯이 아침 해가 구름 뒤에 숨은 것도 다 이유가 있으리라.

다도해의 섬들을 붉게 물들인 햇빛이 점점 옅어지자 우리는 향일암에 가려고 철제계단을 밟았다. 날이 훤해져 거북이 등껍질 무늬의 크고 작은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식으면서 육각형 또는 오각형의 주상절리가 생긴 것이지만, 그보다는 천 개의 거북이 천 개의 경전을 바다로 옮기는 중이라는 상상이 여기서는 훨씬 그럴싸하지 않을까.

향일암에 들어가자 낯익은 전각들이 차례로 눈에 띄었다. 눈길을 더듬어 대웅전 뒤로 난 좁은 길을 찾아냈다. 거대한 암벽이 포개진 사잇길을 따라 원효가 수도했다는 상관음전으로 갔다.

다시 망망대해가 펼쳐진다. 아침 햇살이 널리 퍼져서 먼바다의 섬들이 깨어났고, 고기잡이배들은 벌써 해가 뜨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빛나는 생활의 풍경이었다.

상관음전은 향일암의 구조를 확실히 알고 일출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찾는 장소지만, 대부분은 그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러 왔다가 저도 모르게 명당터에 발을 디딘다. 나는 풍수지리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이라면 향일암 상관음전에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어떤 소망이라도 들어준다는 관세음보살이 거기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기에 알맞은 온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향일암 상관음전은 법당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깥에서부터 묘하게 훈풍이 감돈다. 따듯한 공기에 싸인 몸에서 관세음보살의 손길이 느껴진다.

일출을 보러 향일암에 다녀오면 비로자나불이나 관세음보살 못지않게 생각나는 것이 일주문밖에서 임포리로 내려서는 언덕길이다. 그 지역 명산물인 돌산갓과 홍합 파는 가게가 길가에 줄을 섰다. 해산물 곁에 일종의 옵션처럼 동동주 항아리를 좌판에 두어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언덕길을 잠시 멈춰 서서 동동주 한 잔에, 갓김치 한쪽 입에 넣어 보라. 가슴이 무너지듯 뻥 뚫리는데, 어디 가슴뿐인가. 임포리에 정박한 배 옆구리에 쓰인 글자까지 보일 정도로 눈이 밝아진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謹賀新年

佛紀 2561年 丁酉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과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열반경)

福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정진호
회원일동
■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TEL 051)636-4531

문화포교전문도량
동 림 사
문빈정사 포교당
주지 효산성타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화 · 문인화 · 채색화 그림교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143-12
TEL 051)508-2917 / H · P 010-6609-8011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 3호 만덕사지)
주지 금산 박혜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만덕동)
TEL 051)334-3009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제도로 29
TEL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주지 계호
사부대중 일동
[부설] 보현정사 포교원 ,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터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이금강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99-4
TEL 051)624-3754, 7848
FAX 051)623-9253

대한불교조계종
혜 원 정 사
쌍계총림 방장 고산 혜원
주 지 원허 효명
사부대중 일동
재단법인 고산장학회 사회복지법인 혜원
영도구노인복지관 부산영도시니어클럽
혜원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선재어린이집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68번길47 (연산4동)
TEL 051)866-7771~3 FAX 051)866-7777

학교법인 금정학원
금정중학교
재단이사장 경 선
교 장 정진완 교 감 권장석
교법사 이석언 행정실장 김세경
교직원, 반야불자회 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04
TEL 051)517-3984 팩스 517-3982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일동
■ 부산 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0-8
TEL 051)338-1008. 337-1080

謹賀新年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13

항상 부처님의 바른 법을 빛내는 길은 으뜸가는 지혜를 믿어 즐기고 수행은 무소와 같으며 '나'가 없어야 한다. (현겁경)

福

•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천년고찰 •



설법전 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33개월) 다라니 관음기도 봉행 정여 큰스님 초청법회

입재 : 2017년 **2**월 **20**일(관음재일, 음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웅전**

※ 매월 관음재일(음력 24일) 오전 10시 주지스님과 다라니 관음기도 봉행

동참계좌 : 농협 351-0912-6540-53(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문의 : 010-4270-9798 / 051-727-2392

대한불교조계종 원효성지 불광산 장안사

사하구 불교연합회

고 문 **법운스님** (보광사) 자문위원 **법인스님** (약천사)
남운스님 (남운정사) **만일스님** (미륵암)

회 장 **혜우스님** (약수사)
부회장 **혜원스님** (성불사) **승공스님** (칠보사)
사무국장 **송우스님** (해장암) 교육국장 **선혜스님** (대부암)
복지국장 **묘덕스님** (문수암) 감 사 **해봉스님** (백용사)
조직국장 **보승스님** (무학사) 포교국장 **자은스님** (성불사)

정홍스님 (용주암) **서천스님** (미륵암)
지송스님 (지송사) **지연스님** (옥련암)

사하사암 무료급식소

성불사 대부암 약천사 길상사 문수암 약수사 해장암 무학사 옥련암 이귀연 외
문 의 : 송우스님 010-4410-0061
후원계좌 : 부산은행 101-2007-6617-08 (예금주 : 사하사암무료급식소)
매주 월, 화 오전 9시

사하구불교신도연합회

회장 **김흥남** 수석부회장 **이용한** 총무 **박형숙. 김정년**

울산유일의

영구봉안 납골당

정토사 극락원

도심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의장등록 제0362069 정토사 유골함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17번길 15 (옥동)
전화 052)258-9944, 212-7000

사상구 불교연합회

고 문 **청강**(옥천사) **혜지**(낙은사) **종학**(불광사)
법공(칠보정사) **성비**(영수암) **경호**(법성사)
자문위원장 **종선**(해경사)
자문위원 **무학**(성학사) **청암**(관음사) **만오**(도원사)
회 장 **유정**(운수사)
수석부회장 **성문**(선광사)
부 회 장 **성관**(백운사) **만용**(성불사) **대둔**(용운사)
총무국장 **혜산**(봉덕사)
포교국장 **은적**(관음사)
의전국장 **성림**(관음사)
사회국장 **자륜**(낙은사)
문화국장 **지관**(약수암)
감 사 **진각**(홍덕암) **법경**(광명사)

사상경찰서 경승

고 문 **청강**(옥천사) **유정**(운수사)
실 장 **성문**(선광사)
경 승 **성관**(백운사) **성림**(관음사) **대둔**(용운사)
혜산(봉덕사) **지관**(약수암) **법경**(광명사)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상갑**(홍법)
수석부회장 **전수덕**
상임부회장 **장병주**(자광)
상임감사 **김명조**
자문위원장 **심인택**(수담)

각 사찰 운영위원 자문위원 일동

■ 사무국 010-8581-2045 / 팩 스 051)862-1024

대한불교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사)한나래교육재단
한나래지역아동센터 HANNARAE COMMUNITY CHILD CENTER

걸망메고 떠나는
홍법사 108산사순례
(매년 음력 10일)

주 지 深 山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 33번길 202 (두구동)
www.busanbuddhism.net
전화 051)508-0345 / 팩스 051)508-6561
e-mail : 5080345@hanmail.net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해 남 사

사부대중 일동

■ 주 소 : 울산 중구 기상대길 13
■ 연락처 : 052)244-9647

Since 1999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대표이사 정 여

외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3층
전화 051) 753-9907
홈페이지 http://www.bswia.org/

한국불교태고종

천 불 정 사

주 지 선묵 고담
총무국장 심 일
신도회 회장 이정민
신도회 총무 김영애

외 신도 일동

■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장전동)
TEL 051)583-9233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14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말을 버리고 바른말을 항상 즐기어 쓰나니
그러한 아름다운 말을 쓰는 사람은 곧 열반을 얻으리라. (정법염처경)



BBS부산불교방송 북항신사옥 건립 원만 성취와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200만 부산불자가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불기2561(2017)년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
불기 2561년 1월 5일(목) 오후 5시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명예회장 이윤희
회 장 박대성
외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양정동) 불교회관 401호
TEL 051)861-8800
FAX 051)867-0504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고 문	허인구 김재운 김재진 박민식 조효식 최칠관 설동근 이윤희 박흥대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직전회장	박순곤
회 장	박수관
차기회장	박영근
부 회 장	김수현 김종백 신재철 최삼섭 양재생 배상진 최금식 최주덕
감 사	윤경석 이종우
사무총장	공영석
재무총장	정연식
총무이사	
친목이사	공정근
홍보이사	이현수
기획이사	최대경
섭외이사	배도정
조직이사	박창근
사업이사	최상곤
대외협력이사	장병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 9층 (부전동, 정산빌딩)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사부대중 일동

한마음선원 부설
한마음유치원
전화 051-403-6701
www.한마음유치원.kr

■ 부산광역시 영도구 79번길 23-26 (동삼동)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www.hanmaumbusan.org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 선 암 사

주 지 원 범

원효신도회, 원효봉사단회
원효불교대학, 원효거사회
원효합창단, 원효청년회
원효다도회

사부대중일동

고품격 추모문화를 추구하는 선암사추모관
· 선암사 직영으로 신뢰 높은 운영관리
· 천년고찰 선암사와 영구히 존재
· 매월1회 발복과 극락왕생 기원합동천도재
· 설, 추석, 백중 합동제사
문의 및 접수처 ☎ 051)803-757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부암동)
TEL 051)803-7573 / FAX 803-7521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회 주 법희
주 지 혜총
부주지 경성
총 무 경원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432(전포동)
TEL 051)809-0926 / FAX 803-0188

(감로사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가릉빈가언어치료센터 ■ 용호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 용호방문요양파견센터 ■ 용호어린이집
■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 용당어린이집
■ 무료급식(매일 400여명) ■ 노인대학(매일 200여명) 등

■ TEL 051)628-6737 / FAX 628-6562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경선
부 총 재 법수 목종
사무총장 효산
협 회 장 백명숙
사무처장 천용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27, 1206호
전화 051)513-4306
팩스 051)513-4307

(부산시청 뒤) 청정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부설-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스님(前범어사 주지)

영도대흥사	주지 정여스님
삼랑진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김 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해운대 여여선원	주지 도우스님
바라밀선원	주지 효산스님
사량도 관음낙가사	주지 효원스님
울산 여여선원	주지 효암스님
기장 여여힐링선원	주지 효운스님
금 정 보현선원	주지 효범스님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94 7층(인재빌딩)
TEL 051)853-5486~7, FAX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TEL 051)702-9944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심산, 고담 이경순, 이동권, 이승표
감 사	호법 문연주
총무이사	해암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자살예방이사	하림

이 사 일 동

■ 생명나눔부산 자살예방센터 051) 442-0429
■ 부산 동구 고관로 67, 3층 (수정동 대성빌딩)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www.bslisa.or.kr / www.bsmy-life.or.kr

부산연제구 불교연합회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회 원 일 동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社) 釜山佛教實業人會 妙光禪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최 찰. 이상태. 하문원. 박수복
부회장 이근철. 이달수. 강양수. 정영철
감 사 지호경. 박신욱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송우근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연수이사 박주영
부총무 양동회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70-8133-9917 / FAX 051)818-9914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 광 명 불 교 대 학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 지 목 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마음 편한 절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 지 종호
사부대중 합장

"가장 행복한 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복공감 평생교육원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산 홍 제 사
황 령 선 원

선원장 혜 국
주 지 성 문

사부대중 일동

· 매월(음) 초하루 - 초사흘 신중기도
· 음력 보름 인등 기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노인요양시설 효 림 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TEL 051)802-0130 / FAX 804-1037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기도도량
운 수 사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19번길 173(모라동)
TEL 051) 313-3300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 장	자 승	(조계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원 행	(조계종 종회의장)
	춘 광	(천태종 총무원장)
	회 성	(진각종 통리원장)
이 사 장	홍 파	(관음종 총무원장)
부이사장	인 구	(보문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향 운	(원효종 총무원장)
여성부		
회 장	백명숙	(대일심)
부 회 장	박동희	(만월심)
총 무	방정자	
재 무	조원숙	
감 사	남영희	
운영위원	김경수, 김동희, 김예영 정지연, 박정옥, 옥영숙 우정해, 김명애	
국제협력부장	서경순	
문화홍보부장	김민경	

■ 서울사무소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9 불교대학 3F 전화 02)702-1708
부산사무실 : 부산 부산진구 동천대로 24 종로학원 전화 051)818-3427

치유와 각성 부르는 붉은 닭 울음소리

정유년(丁酉年) 불교사

▲457년 고구려 승려 묵호자(墨胡子), 신라 눌지왕 때 불교 전래

▲577년 백제의 검단선사, 선운사 창건. 보물 제290호 대웅보전, 제297호 금동보살좌상, 제280호 지장보살좌상 등 19점 유물과 천연기념물 제184호 동백나무 등 있음. 창건 당시 89개 암자에 3,000여 승려들이 수도했다고 전해짐.

▲577년 백제가 일본에 경론과 율사, 기술자 등을 보내 일본불교 지원.

'일본서기'에 의하면 577년 11월 백제 국왕이 승려와 함께 조불공(造佛工)과 조사공(造寺工) 2명을 일본에 보냈다고 함. 조불공은 금동불을 주조할 수 있는 공인, 즉 불사(佛師)이며, 조사공은 거대 목조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관계 공인.

백제의 불교 전파는 경전을 통해 한문을 깨치는 일본인들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지적 수준을 급격히 향상시켰고, 불교건축 등 새로운 기술 유입 등으로 인해 아스카시대의 문명개화를 촉발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함.

▲637년 신라 선덕여왕 당시 자장율사가 광덕사 창건. 당시 중국서 가져온 부처님 사리 치아, 가사, 화엄경 등 봉안 창건.

▲697년 발해 고왕 당나라와 불교 외교.

▲817년 이차돈은 혼자 불교의 공인(公認)을 주장하다가 순교를 자청하여 마침내 주살됨. 그는 죽을 때 "부처가 있다면 내가 죽은 뒤 반드시 이적(異蹟)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과연 목을 베니 피가 흰 젖빛으로 변하여 한 길이나 솟구쳤고,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꽃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남. 이에 모두 놀라고 감동해 528년 드디어 불교를 공인. 전설에는 그가 죽을 때 머리가 날아가 떨어진 곳이 경주 북쪽에 있는 금강산이며, 그곳에 817년 헌덕왕 때 승려 혜륭이 무덤을 만들고 비를 세웠음.

▲1177년 서경 민중봉기, 담화사 근거로 투쟁. 승려들을 봉기군으로 징발함.

▲1177년 표충사 청동함은향완(靑銅含銀香완; 국보 제75호) 제작. 1177년(명종 7) 제작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고려시대 향로.

▲1237년 몽골군의 1232년 침공에 의해 초조장경(初雕藏經)과 속장경(續藏經)의 판본이 모두 소실되자 고려 조정에서 다시 대장경 제작에 착수. 1237년에 시작해 1248년에 완성된 대장경이 현재 해인사에 보관 중인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 즉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1357년 금강반야바라밀경 제작. 보물 제877호. 1357년(공민왕 6)에 선종의 근본경전인 금강경에 육조 혜능의 주해본 중 김저(金貯)가 소장한 원나라 판본을 저본으로 전라도 전주의 덕운사에서 지선(志禪) 스님이 복각 간행한 금강경 주해본의 일종.

▲1417년 불교를 옹호하던 태조가 죽자 대대적인 사원 정리에 나서 절과 승려의 수, 절의 소유지를 대폭 줄이고 서운관에 소장된 각종 밀교 경서 모두 불태워짐.

▲1597년 의승군, 울산 · 석주관 전투 참가.

▲1777년 영광 불갑사 팔상전 영산회상도(靈光 佛甲寺 八相殿 靈山會上圖) 제작.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행한 설법광경을 도설. 비현 등 15인 불화승이 제작.

▲1897년 승려 도성출입금지령을 해제.

▲1957년 한국전쟁 때 소실 된 인제 백담사 재건.

한국인과 닭

'꼬끼오~!'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십간 중에서 정(丁)은 붉은색을 의미하니 올해는 붉은 닭의 해다. 닭은 예로부터 어두운 새벽녘에 홀로 울어 밝은 태양을 불러들이는 상서로운 존재로 인식됐다. 특히 고대 한국인의 의식 속에 닭은 신성한 새, 신조(神鳥)로 남아있다.

월간 〈현대양계〉 발행인 이희훈이 출간한 〈한국의 재래닭〉은 우리나라서 최초로 닭을 기록한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전(韓傳)을 통해 기원 전부터 한반도에 재래닭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조명했다. 이처럼 오래된 닭의 역사만큼 닭은 우리나라 각종 신화와 지명에 그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가장 오래된 신화는 신라로부터 출발한다. 신라는 국명이 정해지기 전 탈해왕 때까지 계림(鷄林)으로 불렸다. 탈해왕 9년(65) 3월 어느 날 밤 왕은 월성 서쪽 시림(始林)이라는 숲에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금색 궤짝서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이름을 알지(閼智)라고 하고 금궤에서 태어났다고 성을 김이라 불렀다. 이후 이곳을 계림(鷄林)이라 했으며, 김씨가 왕이 되어 나라가 번

닭은 예로부터 하늘의 메신저役
건국신화 · 신령한 장소 이름 남겨
禪師들은 닭 울음에 깨달음 얻기도
불교선 군다리보살 · 진달라 화신

영할 땐 나라 이름을 아예 계림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처럼 신라 박 · 석 · 김 씨 시조의 탄생은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바다를 건너오거나, 알에서 깨어나는 난생설화가 대부분을 이룬다. 고대인의 관념에 새는 하늘과 땅의 '메신저' 역할을 한 신성한 존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도인들의 수행처로 유명한 '계룡산'도 닭과 관련 있다. 천황봉(845m)을 중심으로 연천봉 · 문필봉 · 삼불봉 · 관음봉 등 엇비슷한 높이의 봉우리들이 늘어선 모습이 닭 벼슬을 쓴 용을 닮았다는 것이다. 혹은 조선 개국 당시 무학 대사가 "금계포란(錦鷄抱卵)과 비룡승천(飛龍昇天)의 명당이 합쳐진 형국이니 계룡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한 말에서 유래됐다고도 한다. 계룡산은 신라시대엔 5악의 하나로 분류돼 제왕들의 제사 터로 쓰이기도 했다.

이 계룡산에 자리한 청량사지 쌍탑엔 재밌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신라 선덕여왕 원년에 당승 상원 대사가 이곳에서 움막을 치고 수도할 때 목에 가시가 걸린 범 한 마리를 구해 줬다. 이튿날 범은 보답으로 한 처녀를 물어다 놓고 사라졌고 둘은 꼼짝없이 한 움막에서 겨울을 나야 했다. 부부의 연을 맺자고 애원하는 처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었던 스님은 의남매를 제안했고 둘은 평생 불도를 닦다 한날한시에 입적했다고 한다. 남매탑, 오뉘탑 등으로 불리는 이 쌍탑은 계룡산을 대표하는 풍경이 됐다.

닭의 울음, 사람을 깨우다

닭의 울음은 개벽의 소리다. 건국 신화에 닭이 출현하는 이유도 태초의 소리로 새 시대를 깨우는 임금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징성에 기대 선승들은 닭 울음소리를 인간을 깨우는 소리로 종종 비유하곤 했다.

서산대사는 젊은 시절 지리산 암자를 전전하며 정진하던 가운데 큰 의문에 부딪혀 울증(鬱症)에 시달렸다. 이 와중에 용성(龍城:전북 남원)에 사는 벗을 만나러 가는 도중 별마을(星村)을 지나다가 한낮 닭 우는 소리에 자신의 진면목(眞面目)을 깨달아 연거푸 두 수의 시를 읊는다. 오도송(悟道頌) 탄생의 순간이다.

머리는 세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옛사람이 이미 말했네
오늘 닭우는 소리 들으니
대장부 할 일 마쳤네
髮白非心白 古人曾漏洩
今廳一聲鷄 仗夫能事畢

前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 스님은 법문집 〈저 건너 산을 보라〉서 절박한 심정으로 불법을 구하는 한 거사에게 닭 울음 소리에 빗댄 이야기로 타일렀던 일화를 소개했다.

"거사야! 어서 집에 돌아가서 닭 우는 소리를 보라! 그 소리는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니, 그것은 마치 못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아서, 그처럼 차 있는 소리를 보면 곧 진리가 인식 되리니, 그 소리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흙물도 없고 빠질 곳도 없으며 고락(苦樂)이 없는 도리를 알리라!"

성수 스님은 닭 울음소리를 보고 진리와 하나 되면 본래 진흙물도 없고, 거기에 빠질 사람도 없으니 고락의 이분법적 생각이 붙을 수가 없음을 역설했다.

〈벽암록〉에 견색명심 문성오도(見色明心 聞聲悟道)란 선어가 있다. 사물 색상에 응해 심성을 밝히고, 자연의 소리로 본성을 깨친다는 뜻인데 이처럼 선사들은 닭 우는 소리로 깨달음이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이 설법한 무아론(無我論)에 대한 가르침을 펼치는 데도 닭이 등장한다. 〈밀린다팡하(밀린다왕문경)〉엔 고승 나가세나와 고대 인도 찬드라굽타 시절 왕 밀린다가 나눈 허심탄회한 불교문답이 전해져 온다.

불교에 조예가 깊던 밀린다 왕은 무아가 어떻게 윤회가 가능한지 의문을 품었다. 이에 나가세나는 "윤회란 닭이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닭이 나오며, 이 닭 역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과 같다. 사람의 생과 사는 결코 중단되는 때가 없고, 이 몸에서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 영혼 같은 존재도 없다"고 답했다. 이것은 무아윤회(無我輪廻)를 일컫는 말로 '아트만(참자아)' 존재를 주장하는 브라만 전통과 가장 분별되는 특징이다.

군다리보살, 중생을 치료하다

〈천수경〉에서 닭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군다리보살의 화신으로 불린다. 군다리는 감로병(甘露甁)이란 뜻으로 군다리보살은 늘 감로병을 들고 감로수를 뿌리면서 중생을 구제한다. 군다리보살이 싸우는 대상은 우리들 마음속에 숨어 있는 탐 · 진 · 치 삼독심이다. 그래서 옛 조상들은 닭을 통해 나태와 방일(放逸)과 타협하지 않는 주체성을 다짐했다.

부지런함 · 주체성과 더불어 꼿꼿한 닭 벼슬서 풍기는 당당함과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시간을 알리는 성실성 등을 갖춘 닭은 조선시대에 학문과 벼슬에 뜻을 둔 사람들에겐 그림 주제로 애용됐다. 닭의 볏이 관을 쓴 모양과 닭아 벼슬길에 오를 것을 상징하기도 했다.

닭은 또한 약사여래를 수호하는 12나한 가운데 진달라(眞達羅)를 상징한다. 진달라는 나쁜 왕이나 강도 등 고난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는 호법신장이다. 쇠몽둥이를 들고 닭 머리에 사람 몸둥아리 모습을 한 진달라(眞達羅)대왕은 고대 인도의 귀신 '야차'가 불교 신화로 편입돼 나약한 인간을 보호하는 수호신장이 됐다.

2016년 불안한 정국에 고통 받은 국민들은 정유년 군다리보살과 진달라대장의 보호를 기도한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 정유년엔 난세를 정리하고 불국정토가 도래하길 불자 모두는 염원한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효산 성타 스님 作(기장 동림사)

謹賀新年

佛紀 2561年 丁酉年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해탈을 이루지 못한다면 끝내 번뇌를 끊을 수 없고 모든 번뇌를 끊지 못하면 진실한 지혜가 없다. (달마다라선경)

대한불교조계종
불 광 사
라오스 후원단체
'라오의 산들바람'
주지 보광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77번가길 72 (초읍동)
TEL 051)809-1420
FAX 051)819-1425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지 정 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508-4870

대한불교조계종
자비도량 원 오 사
회주 고원 명정
주지 정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124-5
전화 051)542-7979, 545-7949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대한불교 조계종 길 상 사
[부설] 삼계선원 · 불교대학
성현덕회 · 단월회 · 지장회
참선반
주지 만 제 혜 수
사 부 대 중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69번길 15(삼계동)
TEL 055)333-8202 / FAX 055)333-8203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부산분원 관 음 사
늘기쁜마을 관음사
cafe.daum.net/gwanumsa1
■ 부산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051)294-9300

불교중흥실천협의회
중점포교사업
1. 청소년 대학생불교 포교
2. 직장 직능불교단체 포교
3. 재가 안거 제도 포교
4. 불교 콘텐츠 개발
5. 불교포교대상 수여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46-5
전화 051)504-3389

부산진구불교연합회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좋은일하면
좋은일이생깁니다.
늘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 회원 스님 일동

심신치유 MBSR명상교육도량
시 선 원
지도법사 우현 조원경
MBSR은 마음챙김 명상에 근거한 과학적인 스트레스 관리 행복명상 프로그램입니다.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308 11층
TEL 051)746-7611
cafe.daum.net/sisunwon

언제나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 일번지
사단법인 미 소 원
대중일동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주지 능후 효선
사부대중일동
http ://www.gongdukwon.net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TEL 051)625-2253 / FAX 051)625-3886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마음

마음은 쓰는 것. 그래서 주고받는 것. 그래서 간직하는 것. 쓰면 쓸수록 줄지 않고 쌓여 가는 것. 그 어딘가에 반드시 쌓이는 것. 결국 내 앞에 쌓이는 것.

누군가 겨울 언덕 위에 그렇게 써 놓았다. 마음 심(心). 어디선가 새들의 발자국 소리가 다가온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① 해를 먹은, 거인 아수라왕

"너무 미운 해와 달, 삼켜버리겠다! 꿀꺽"

아수라는 싸움귀신입니다.

아수라 나라는 여러 아수라왕이 나누어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인 라후는 아수라왕의 하나입니다. 라후의 키는 수미산 높이에 이르고, 몸의 크기도 수미산 크기에 견줄 만합니다.

그의 영토에는, 보배나무가 우거진 동산 숲이 있습니다. 라후가 동산을 거닐 때는 새들이 고운 소리로 노래를 지저귑니다. 왕이 목욕을 즐기는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그의 궁전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곳곳이 마니 구슬과 여러 보배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처럼 호화로운 궁전에 살지만 라후의 마음속에는 싸우고 싶은 생각과 어두운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인 아수라왕 라후는 큰 손으로 수미산 꼭대기를 쓰다듬기도 하고, 큰 손으로 해와 달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크고 푸른 주옥과 빨간 주옥, 잡색 주옥을 몸에 휘감고 있습니다. 이들 주옥이 모두 찬란한 광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 광명 때문에 늘 속이 상합니다.

"저 햇빛 광명이 내가 지닌 주옥의 광명보다 몇 배 찬란하단 말이야. 이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저 해를 정말로 먹어버려야겠어. 이번엔 먹어치울 거야. 그래야 내가 지닌 보물의 광명이 해를 대신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라후가 해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정말 꿀떡 삼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될까요? 해는 수미산 중허리, 해의 궁전인 일궁에서 떠서 동 · 서 · 남 · 북 4주세계를 한 바퀴 도는 것이 낮 동안입니다. 일궁에 들어간 해가 궁전에서 쉬는 동안이 밤 시간입니다.

"이번엔 정말 꿀떡 삼켜버려야겠어."

아수라왕 거인 라후가 덥석 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는 역시 뜨거웠습니다.

"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그 뜨거운 해를 물었으니, 아무리 거인 아수라인들 소리치지 않을 수 없지요. 거인의 몸이 금방 타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라후는 기어이 해를 먹어야겠다며 억지로 해를 삼키려 합니다. 뜨거운 해가 목으로 잘 넘어갈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말합니다.

"한낮에 해가 왜 이럴까? 해가 반 조각이야. 반밖에 없네. 오늘이 일식인가봐."

아무도 뜨거운 해를 물고 견디는 거인 라후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라후가 해를 토해냈습니다. 뜨거워 견디지 못해서 해를 뱉어버린 거지요. 해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일식이 끝났군."

라후의 욕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해를 먹어 없애려는 라후의 욕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해를 먹고 말 거다!"

라후는 이 생각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마다 일식이 있는 거라 합니다.

그런데 거인 라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달이었습니다. 달은 아름답고, 둥근 모습으로 수미산 중턱 월궁에서 떠서 수미산 남쪽, 염부제로 옮겨가 보석 광명 속에 놓입니다. 이 때면 단정하고 예쁘기가 백배에 이릅니다. 세상 모두가 '야, 밝구나, 놀랍도록 어여쁘다, 달님!' 이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림 · 강병호

이 때 아수라의 신하가 라후왕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대왕님, 보름달이 단정하고 엄숙하기가 대왕님이 거느린 미녀들 모습에 비할 바가 아니옵니다."

라후왕은 곧 아수라의 궁전으로 미녀들을 모았습니다. 예쁘게 꾸민 미녀들이 우우 모여 들었습니다. 라후는 하늘에 뜬 달과 미녀들 모습을 견주어 보았습니다. 달에게 견줄만한 미녀는 없었습니다.

"절망이로다!"

한참을 생각하던 라후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 달이 밉다. 이번에는 정말 먹어 없애버리자, 그냥 두었다가는 계속 나를 괴롭힐 테니." 아수라왕은 미모를 뽐내는 달을 먹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먹어버리겠는 생각이었습니다.

덥썩! 라후가 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달은 여간 차가운 게 아닙니다. 아수라왕의 뼈가 얼어버릴 만큼 차가운 달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버리는 듯했습니다.

"으윽! 차거 차가워, 으윽!"

해의 표면은 뜨겁기가 6천도였는데, 달은 영하 6천도로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아수라지만, 소리칠 수밖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심쟁이 라후가 차가운 달을 문 걸 모르고 말합니다.

"밤중에 보름달이 왜 저럴까? 달이 점점 작이지네, 반쪽이네, 아주 없네. 오늘 밤이 월식인가봐."

아무도 차가운 달을 물고 견디는 라후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라후가 달을 토해냈습니다. 차가워 견디지 못해서 달을 뱉어버린 거지요. 달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월식이 끝났군."

라후의 욕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달을 먹어 없애려는 라후의 욕심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달을 먹고 말 거다!"

라후는 이 생각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월식이 일어난대요.

〈정법념처경 16권 아귀품〉

신현득 작가는… 1933년 경북 의성서 출생.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소년한국일보에서 취재부장으로 일했다. 단국대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 수료 후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한양여자대학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서울예대 아동문학론 강사, 새싹회 3대 이사장과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회장을 지냈다. 1959년 '문구멍' 동시로 조선일보 신춘문예 등단했고 평생 동시와 불교동화를 쓰고 있다. 1971년 세종아동문학상, 1994년 방정환 문학상, 2003년 윤동주 문학상, 2011년 윤석중 문학상을 수상했다. 〈참새네 말 참새네 글〉, 〈어린이 팔만대장경 1,2,3〉, 〈소리 내는 탑〉, 〈슬기의 왕자〉 등의 저서가 있다.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원명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법원
호법원장 석설산

호 원
호 원 장 석초오

문 원
문 원 장 석 법

원
교 원 장 석도일

원
원 장 석지광

원
교 원 장 석

종 무 원
전 종무원장 석설산
전 종무원장 석법진
종 무 원 장 석법경
종 무 원 장 석덕오
종 무 원 장 석초오
종 무 원 장 석 해

총 무 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지혜
총무부장 석화성
교무부장 석지담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문 도 회
문도회회장 석법현
문도회부회장 석법진
문도회총무 석해안
문도회감사 석지혜

중 앙 원 회
전 원 장 석도현
전 회 장 석지현(경주)
전 총 무 석 정
전 도 회 회 장 세 주
정 원 장 정 재
무 원 장 일
종 사 회 회 장 대 자
원 장 이선혜
회 장 한

대원불교조계종 불 교 대
, 수 강
수년간 명리학, 성명학을 고 도 아직
통 이 지 는 분은 실 하 지도함
010-3711-5072
교 원 장 : 석 합장
총본산 주소: / / . . / 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佛紀 2561年 丁酉年 | 전면광고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 B17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 (숫타니파타)



지장보살의 사상을 실천코자 노력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오봉산 영선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
등용청소년공부방
매 방학기간
'국가사회 동량 양성기원
방학 학업 특별용맹정진'
봉행됨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 32번지
TEL 063)636-2195
http://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관음사 성지순례단
신도 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장 덕림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TEL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금 선 암

주지 덕산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2-1
TEL 063)221-8486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성 불 사

주지 종명
명예회장 진여심
신도회장 금강지
거사회장 성문수
화 주 관음행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TEL 063)445-3266
http://seungbulsa.com/

한국불교태고종
순창 장덕사

주지 청암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덕마을길 37-19
TEL 063)653-1525

대한불교조계종
삼 보 사

주지 법송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성산면
환동길 26
TEL 063) 453-4742

대한불교조계종
보 천 사

주지 의종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294
TEL 063) 453-2306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천호산 백운사

회주 우성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여산면
천호산길 155-23
TEL 063) 836-8047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남 원 사

주지 상래(법계)

■ 전북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224번지
TEL (063) 836-5344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금산사
전북불교회관
108성지순례단

지도법사 구 담
단 장 하유호
부단장 임충섭
총 무 고귀월
재 무 정금옥
고경란

대한불교조계종
자 성 사

주지 일주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155번길 6-1
전화 : 062)381-0878

조계종승려연수교육기관
광 보 사

< 염불선수련회 >
"불교수행의기초와이론"
매월 마지막 금, 토, 일
(2박3일)
참선수행 독송수행
예배수행 정리수행
(대상: 스님, 재가불자)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옥동리길 19-20
전화 : 061)535-0113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주지 혜향

신도회장 조백련화

■ 광주 서구 마륵복개로
150번길 22
전화 : 062)371-5880

대한불교조계종
향림사 포교당 금당선원

주지 진표

신도 및 활짝회 일동

■ 광주 남구 독립로53번길
24-1
전화 : 062)653-8108

불 교 서 원

불교백화점, 불교출판, 포교자료 개발

원장 문선우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87
전화 : 062)226-3056

법인설립 허가번호 제 2014-4호

특허청 특허출원번호 42-0005848 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국내 최고 최대 종단이 가입한 법인단체)

회 장 성 철

한중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광
금강불교조계종 이사장 활안
무궁화무한월드 회장 애무린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총무원장 설송
생활불교범행종 총무원장 지광
대한불교금륜조계종 종정 지광 등운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환국불교조계종 종정 아산
한국거창배왕석예술문화연구원 위원장 석호
마애삼존불상무량정토성지순례봉찬회
우리불교우리절용암산미륵사 총무원장 청송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장수
대한신불교천우종 종정 일강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정암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사장 지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서울지부지회장 청산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부산지부지회장 구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구지부지회장 지영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인천지부지회장 석수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광주지부지회장 만봉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전지부지회장 태대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울산지부지회장 월정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월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남부지부지회장 일오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북부지부지회장 광명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남지부지회장 청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북지부지회장 설송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전남지부지회장 동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제주지부지회장 경흥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충남지부지회장 정섭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병대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불광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대한불교대선종 총무원장 대봉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동
달마선원예술문화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청광
대한불교신인종 종정 보인
대한불교천우종 총무원장 지암
환단도 이사장 태대
한국불교천신종 종정 정암
백산소도삼신문화재단중앙본부 이사장 일광
전통사찰조계종 총무원장 진상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대한불교해탈종문화재단 종정 대광
환국불교환인종 종정 아산
대한불교마야종 종정 정암
정토불교조계종 종정 일오
한국종교무교천왕종 종정 송월
한국도교본산수성궁 회장 금란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종정 태일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종정 무량수
대민불교조계종 종정 일공
국제대성황문화재단 이사장 환인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한국불교조계종종단연합회중앙본부문화재단 이사장 월정
진언불교 종정 도성
법행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선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총본산법천사
불교대학,불교출판사,무차회,보리회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승정원문화재단 원장 현각
금산문화재단 이사장 길주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무허
한국생활불교보림종 총무원장 운장
천지신명봉양회 회장 성덕
대한불교종단단체사암총연합회 회장 도광
한국무교총본산 회장 일강
한정연무교총연합회 회장 일광
무궁화어머니재단 회장 뮤린
한국고건축진흥원예술문화재단 회장 광선
한국불교조계교종 종정 법성
대한선불종 종정 명조
대원불교유심종 종정 법일
한국범종교단체연합회 종정 청산
지역복지교정협의회 종정 인산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현광
대한불교의성종 종정 의성
대한불교해탈종총본산소원사문화재단 회장 동환
대한불교태선종연합 종정 태선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현묵 혜승
세계불교약사종 종정 인산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혜철
월드불교법왕청 종정 청암
대한불교가야조계종 종정 혜산
대한불교팔만종 종정 운월
대한불교연화종 종정 동원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혜남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법왕불교조계종 종정 보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 혜봉
사회복지재단황손보살의집 원장 지영
해탈불교조계종 종정 대광
박정희 육영수추모제례진흥회 재단 회장 대광
법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법천
해동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영관
대한불교약사법사종 총무원장 약산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법민
대한불교구화종 종정 구화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원당
동도해인대법국미륵진법강원 회장 해인
목멱사랑회 회장 재연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고건축예술문화진흥원 회장 태인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만청
선법륜종 총무원장 월암
대안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월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월담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한국불교내외종 종정 청담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미타불교조계종 종정 월산
대한불교조계종봉정선원 총무원장 법기
한국전통불교천부종 총무원장 서광
한국불교미타종 이사장 원상
대한불교금강여래종 총무원장 연화
법신불교정법종 총무원장 법통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대각교단대한불교현수종 총무원장 금화
정통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대한불교법인종 종정 만오
대한불교선조계종 종정 기복
세계선불교조동종 총무원장 공산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법환
대한불교천왕종 총무원장 해인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반야수교원 총무원장 월성
천지대학일월용봉신선도문화재단 이사장 선학
세계불교대각종 종정 보각
한국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삼신신앙봉천재단 재단장 진순
참좋은인연문화재단 이사장 밀허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혜담
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한국불교나한종 종정 대보
한국불교법인선원덕선사 이사장 도운
세계평화불교연맹 이사장 혜승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 회장 지암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암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대한불교신조계종 총무원장 금당
해동대한불광종 종정 법경
한국불교청동불상예술연구원 원장 청담
대한불교임제선원문화재단 주지 법현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 주지 청광
대중불교조계종문화재단 종정 향덕
세계불교국제연맹재단조계종 총무원장 향덕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원광
대한불교일월여래종 원장 해월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장 만오
세계평화재단 법황청 총무원장 태산
한국전통범종연구소 소장 광식
대한불교밀인수증회 주지 덕천
한국불교미술원보응문도회 사장 규진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정안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이사장 일경

세계불교만불종 종정 일월
세계불교세심종 총무원장 범행
대불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총무원장 부건
한국전통불교천불종 총무원장 만봉
대한불교여래종 종정 혜담
한국법화종 종정 법천
대한불교일월조계종 총무원장 장원
동방선도총본산 도령 이지영
용화사 월대도 도주 용화
해동불교금강종 총무원장 해원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지암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황봉
한국불교종단단체협의회 회장 성철
한국도교삼청관문화재단 도장 대도
세계불교승가회한국본부 회장 보각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불광
천지불교태극종 종정 법성
대한불교통합조계종 총무원장 해봉
한국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진공
대한불교조계종국제승가총연맹 종정 혜산
대한불교용산조계종 종정 철산
한국불교화엄지장종 총무원장 영암
반야의세계진법불교조계종신선둥지문화복지재단 종정 진표
대한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석가불교조계종 종정 대각
대한호국무불천지종 종정 청산
유신불교조계종 종정 금강
대한불교조계종통합불교연합 이사장 영월
환국신앙천신교 종정 법안
세계불교법황청 종정 법열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만공 호조
세계불교선종 총무원장 제성
정법대승불교조계종 종정 고림
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장 성문
대한불교법인통합조계종 총무원장 지현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중천
한국전통민속문화협회강원도교구 교구장 만오
대한용화불교칠성산신종 총무원장 천공
대한불교보현종 총무원장 영사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청하
21세기디지털불교미륵대도 종정 대광대사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현송 고림
대한불교승가조계종사회복지협력봉사단 총무원장 월암
(사)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복지재단 이사장 도광
대한불교대조계종 총무원장 대공 법해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각
불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운봉
대한불교법음종 종정 청암
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자현
생사참사랑실천회(웰다잉) 회장 보성
한국고미술문화재진흥협회 회장 무산
문화예술불자연예인협회 협회장 운봉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각성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실천생활불교진흥원 원장 경산
대한불교불조계종 총무원장 혜암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법운
강원율사율원승가교육원 원장 월성
대한불교조계종승가회 회장 경보
포항시불교사암승가연합회 회장 법진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 일경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보현종영사복지재단 원장 영사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충남교구 교구장 태극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 강원도교 구교구장 신명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법륜
대한불교원각회보리원 원장 각화
대한불교반야선종 총무원장 도우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총무원장 도원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마하야나불교조계종 회장 청송
한국전통승복양공진흥회 회장 여래심
대한불교연화종 용남사 주지 법성
한국불교태극조계종 총무원장 해도
대한불교용화조계종 종정 능견
자비실천운동본부 본부장 해광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원장 동천
대승불교삼론종 종정 석봉
한국불교효예종 총무원장 법진
한국불교성지종 종정 원담
마하야나승가조계종 종정 청송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원봉

문무대왕대제보존진흥협회 회장 운담
중생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문
대연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연
대한불교해인삼보종 총무원장 해인
법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허
화쟁교단분황종 종정 현불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대한불교근본조계종 총무원장 성공
홍지문화재단 원장 홍지
사회복지법인 산촌마을사람들복지재단 이사장 인봉 동인
한국불교의식문화교육진흥협회 총무원장 일관
국제고미술교류진흥협회 회장 성철
대한불교삼계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총무원장 진공
한국불교선화종 총무원장 법산 호원
육영수생가보존회등육영수여사탄신숭모제례보존회
대표 법성 동방
국제불교조계종직할제1교구본사 청일사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대각
국제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고미술국제진흥원 이사장 도현
대한불교선화조계종 총무원장 혜원
사회복지법인세계불교복지재단자비원 원장 강현자
지장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한국불교조계종사회복지실천자비원 원장 명진
대한불교승가문화예술진흥회 회장 현불
대한불교칠불종 총무원장 혜선
대한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지선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원응사 회장 진해
대한불교칠여래종 총무원장 진성
대한불교묘법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전국불자총연합회태승사복지재단
재단장 혜원
대한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연운
한국불교조계종총본산태승사 총무원장 혜원
행복세상만들기운동본부 본부장 혜봉
세계불교선불종 총무원장 무성
한·중고미술국제진흥원 원장 도현
사회복지법인수암사마야복지재단 총무원장 운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한국전통민족불교소원사 총무원장 소원
자비실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륜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천불
대성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성각
마니산천부단복원추진위원회 회장 대경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덕공
사회복지법인화정토원복지재단 회장 원오
대한불교혜명조계종 총무원장 혜명
한국전통불교조계종 종정 태함
호국불교선미륵종 종정 효진
한국불교동산조계종 총무원장 원덕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고산
행복나눔종교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대한불교보법종 총무원장 법성
행복나눔치과문화재단 재단장 성해
한국초능력협회 회장 혜봉
사회복지법인금조복지재단 이사장 일경
대한명리사협회 회장 지공
대한불교전국호국무예봉사단총연합회 회장 박주석
사회복지법인대체의학자연치유국제문화교류복지재단
이사장 혜승
불교조계종대선불교대학 학장 현묵
한국불교마야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수암조계종 총무원장 태일
한국불교불광종 총무원장 안개 지공
천상의전상조극락정토원 대표 정관법사
한국불교천지조계종 총무원장 성진
범종단환경보호연합회 이사장 혜봉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회장 정관 일해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현도
전국교정,교화 불교법사단 단장 법성 성주
대금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금오당 금강
대한불교대승조계종 종정 동연당 도우
향토불교승가연합회 대표 조향
대한불교태선조계종 은산 덕호
대한불교천안종 회령
대한불교금강조계종 금봉
대한불교천기종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법천 청운
대한불교약불조계종 오영 법사
국제불교인력컨설팅공사문화재단 총무원장 금오당 금강
(무순)

"중생정재의 합리적 관리와 통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0315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909호 (두산위브파빌리온 수송동)

전화 : 02)2198-5022(代), 2198-5023~4 팩스 : 02)2198-5025 H.P : 010-4167-3666 E-mail : jonggyo119@hanmail.net http://kntga.or.kr

不通의 시대 신행단체들은 '소통' 꿈꾼다

연말이면 늘 '한 해가 다사다난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6년 병신년(丙申年)은 근래 여느 해보다 산란했다.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촛불민심은 한반도를 밝히고, 뿌리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불교계에서는 대표 신행단체 수장들이 새롭게 바뀌었다. 새 얼굴로 새해를 맞이하는 수장들은 최우선 조직 운영 가치로 하나 같이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불통'이 가져온 국가적 위기를 여실히 느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롭게 문을 여는 한 해에 첫발을 내디딘 신임 신행단체장들의 포부를 들어봤다.

윤호섭 기자





'천만불자모연'으로 인재불사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

"새해에는 '천만불자모연' 운동을 전개해 청소년·대학생 등 청년포교 인재불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청년불교가 다시금 중흥의 길을 걷도록 이 한 몸 아끼지 않겠습니다."

1920년 만해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청년들이 창립한 대한불교청년회(舊 조선불교청년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김성권 회장은 '천만불자모연'에 대한 사부대중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대한불교청년회 창립 100주년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서 청년불교 중흥을 꿈꾸며 모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1,000원씩 1만 구좌의 후원을 통해 최신 트렌드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젊은이들이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최근 발표된 인구센서스에서 불자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불교계는 많은 대응·포교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역시 위기상황을 절감하고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고자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지구회장 등을 역임하며 업무경험을 두루 쌓은 그는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중앙회장'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분권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귀 기울여 조직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가 가슴에 새기고 사는 '존해파평(尊海波平)'이란 말처럼 모든 회원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존중하며 함께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목표다.

"전국을 누비며 승속, 남녀노소에 구분을 두지 않고 귀를 열어 소통할 겁니다. 또한 청년회 내부로는 흩어진 조직망을 추스르고, 최고의 불사인 인재불사로 청년불교의 불씨를 살리는 시금석이 되고자 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걸어야 할 길이기에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8차 108인과 조직발전 발원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



"올해에 제8차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합니다. 100여 명의 식구가 늘어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단체장으로서 100가지 목소리에 하나하나 신경 써야겠죠."

지난해 11월 제9대 불교여성개발원장으로 취임한 노숙령 원장은 구성원들이 서로 웃어가며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도록 밝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살자'는 자신의 신념에 맞춰 조직 내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서도 내로라 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다.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여성불자 108인 구성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우바이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여성개발원은 신행단체로서 관료단체처럼 구성원들의 관계가 딱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최적화 돼 있죠. 다만 불교세가 약한 호남과 충청지역은 지부를 결성하기 어려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사찰서 스님과 재가자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노 원장이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것은 중·노년기 여성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이은 일자리 창출을 일궈내는 것이다. 그는 '돌봄교육'을 새롭게 마련해 방화구·신생아·환자돌봄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여성개발원이 주관하는 교육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장소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노 원장에겐 새해 화두다.

"개발원 교육관이 협소하고, 여러 면에서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교육장소를 찾아다니기만 할 순 없죠. 경기가 어려워 조심스럽지만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모연에 많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부서 확대·사무처 신설로 一新

박홍우 국제포교사회장



"국제포교사회는 외국인에게 불교를 알리고 한국불교를 국제화하는 데 일조해왔지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이는 체계화된 조직 미비와 예산부족, 회원 참여 저조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상시적인 부서를 조직해 단체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박홍우 국제포교사회장은 대전고등지방법원장을 지낸 소위 '엘리트 불자'다. 법조계 재가불자 단체인 서초반야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 국제포교사를 품수했다. 이런 그가 국제포교사회 변혁을 위해 구상한 방안은 부서 증설과 회원들의 주체적 참여 독려다. 교육·법회·홍보·다문화부 등 10여개 부서를 조직해 회원들이 각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활동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사무처를 신설해 유급 사무처장과 국장을 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동안 회원들의 회비와 포교원 보조금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회원수 확대에 중점을 두는 한편,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수입을 확충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단체장으로서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회원 간 분위기 조성에도 특별히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전읽기 모임, 영어서적 윤독회, 삼국유사 공부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통해 역량강화에도 나선다.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에게 포교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하려면 회원들의 개인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간 인화(人和)와 격려하는 분위기가 필수적입니다. 이후 포교사들의 힘을 필요로 하는 불교계 내외 단체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생 현장 활동가 양성 주력

이경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대불련 회장이 되기 전부터 대학교 활동가들과의 소통이 모든 일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아무리 중앙에서 좋은 포교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해도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겨듣고, 캠퍼스포교가 여법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금오공과대 불교학생회에 입회해 며칠 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이경수 제55년차 중앙회장. 그는 20대 젊은이의 패기를 담아 "부처님 가르침으로 대학생들이 깨닫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리더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죠. 저는 리더의 진정한 의미는 '모두가 리더이고 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소통의 자리여야 하고,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뿌리로부터 피어나는 대불련'을 운영기조로 세운 이 회장은 2000년 이후 침체된 각 대학 불교학생회 현실을 보며, 지식인 불자의 감소를 우려했다. 이에 캠퍼스포교팀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포교전략을 강구하고, 대학생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연 10회 전국단위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방침이다.

"'언제나 주인 되는 무한능력발전소'라는 슬로건 아래 홈페이지 리뉴얼로 소통창구를 개선하고, 주체적인 불자가 되도록 명상·참선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대학생불자와 현장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회장은 회장직 수행을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지방에서 상경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불자로서의 역량을 대폭 늘리는 한 해를 보낼 것을 서원했다.



새해 새날 법보시

마음은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아서 물결이 출렁일 때는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모든 것은 제 모습을 나타낸다. 〈화엄경〉

– 운수납자 합장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불기 2561년 정유년 새해

제나무는
제뿌리를믿어야
항상푸르게
살수있다

대행선사법어



그림 임효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131 (도천동)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o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